

6·4 국민의 선택 '8:9' 절묘한 구도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여당도 야당도 완승 없어... 유권자 '준엄한 경고' 교육감선거는 진보 13곳 석권 '세월호 심판' 반영 전문가들 "이젠 경제 살리기 나서야" 한목소리

6·4 지방선거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새누리당은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을 차지하며 여야 모두 텃밭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세월호'를 심판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3곳 중 인천과 경기 등 2곳에서 승리하고 제주를 비롯해 텃밭인 영남권 5곳을 모두 지켰다.

인천에서 유정복 후보가 50.0%를 득표해 48.2%를 얻은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데 이어 경기에서도 남경필 후보가 50.4%를 득표,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49.6%)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후보(60.3%)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으며, 부산 서병수, 대구 권영진, 울산 김기현, 경북 김관용, 경남 홍준표 후보가 각각 텃밭인 영남 5곳을 사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충청권 4곳을 석패하고 강원과 텃밭인 호남 3곳을 모두 사수했다.

특히 최대 관심 지역이던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가 56.0%를 득표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43.2%)를 물리친 데 이어 중원에서 대전 권선택, 세종 이춘희, 충북 이시종, 충남 안희정 후보가 모두 휩쓸었다. 충청권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보수성향을 드러냈던 곳을 감안할 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강원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와 힘겨운 싸움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고, 호남에선 광주 윤장현, 전북 송하진, 전남 이낙연 후보가 상대 후보에 압승했다.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를 상대로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며 새누리당의 텃밭을 위협했다.

교육감 선거에선 서울에서 조희연 후보가 가족사 논란을 일으킨 보수성향의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등 진보성향 후보가 총 17곳 중 13곳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4년 전 진보성향 교육감이 6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대약진이다.

준표 후보가 각각 텃밭인 영남 5곳을 사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충청권 4곳을 석패하고 강원과 텃밭인 호남 3곳을 모두 사수했다.

특히 최대 관심 지역이던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가 56.0%를 득표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43.2%)를 물리친 데 이어 중원에서 대전 권선택, 세종 이춘희, 충북 이시종, 충남 안희정 후보가 모두 휩쓸었다. 충청권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보수성향을 드러냈던 곳을 감안할 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강원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와 힘겨운 싸움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고, 호남에선 광주 윤장현, 전북 송하진, 전남 이낙연 후보가 상대 후보에 압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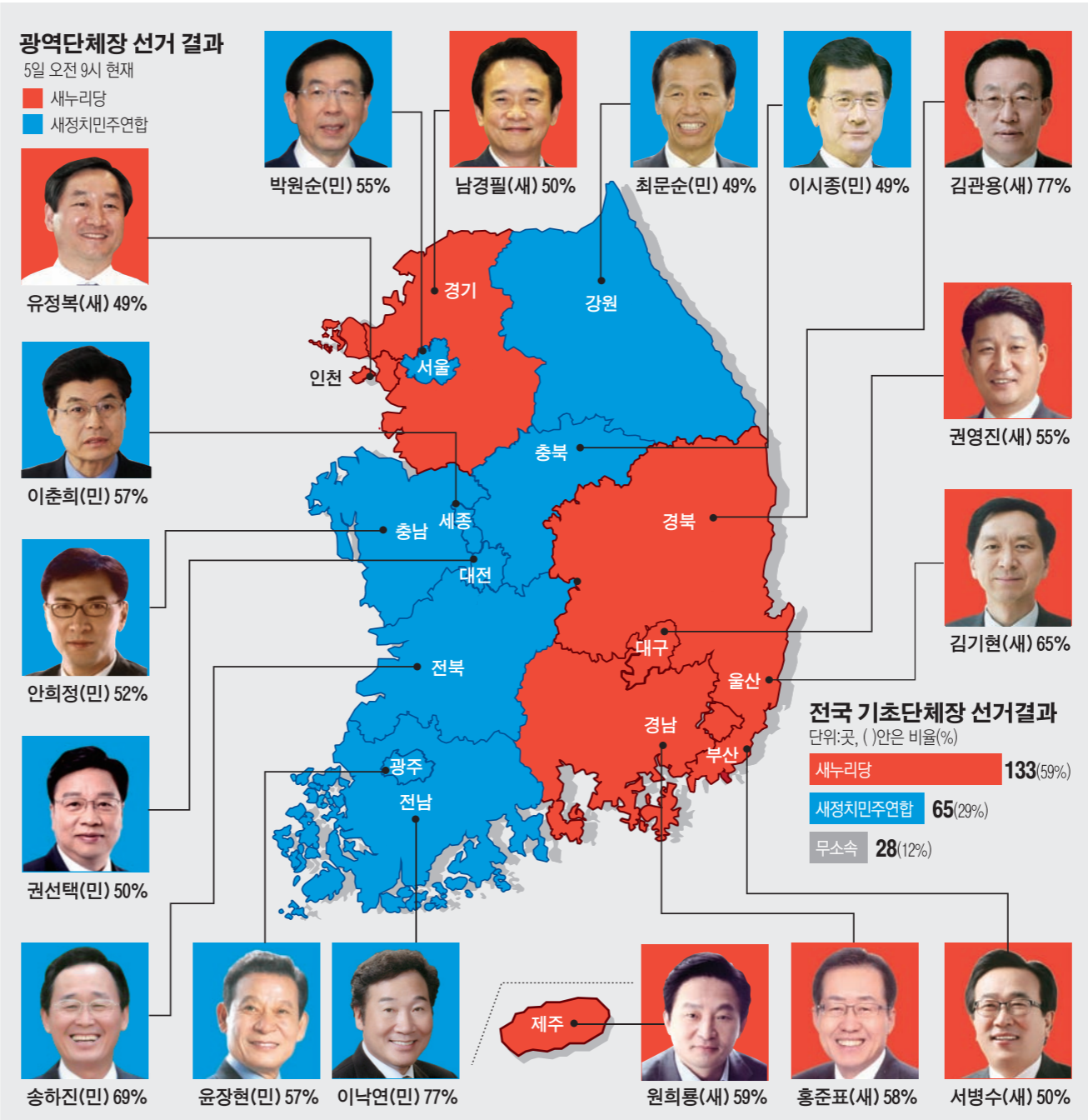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를 상대로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며 새누리당의 텃밭을 위협했다.

교육감 선거에선 서울에서 조희연 후보가 가족사 논란을 일으킨 보수성향의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등 진보성향 후보가 총 17곳 중 13곳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4년 전 진보성향 교육감이 6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대약진이다.

선택 6·4 지면 구성

진보교육감 대약진	2
박대통령 국가개조 속도나	3
표심 분석해 보니	4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5
전국 당선자 및 득표상황	6·7·9

김익중 기자 zerg@



실질 GNI, 0.5% ↑
증가율 2년새 최저
1분기 GDP 증가율 0.9%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세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특히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0.4%포인트 더 낮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0.5% 증가했다. 이는 2012년 1분기(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분기에도 0.5% 증가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이번이 더 낮다.

전 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1분기 0.5%에서 2분기 1.9%, 3·4분기 1.0%를 기록했다.

이는 GDP 성장률보다 더 높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모습이다. 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작년 1분기 0.6%, 2분기 1.0%, 3분기 1.1%, 4분기 0.9%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실질 GNI 증가율은 0.5%로 같은 기간 실질 GDP 증가율(0.9%)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배당금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서 국내 외국인인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 분기 3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진영 기자 mint@

“다시 경제다” 내수 활성화 불씨 살리기

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완화” 첫 언급

현오석 부총리, 30대그룹 사장단 회동...투자·고용 매진 당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자 경제 인사와 만나 경제활동을 독려했다. ▶관련기사 2면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고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전반이 둔화하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부총리가 직접 나서 기업인들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경제심리와 소비·서비스업 활동 등이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나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방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

현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도 신속히 채용하는 등 본연의 기업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도 체계가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간간담회에서 “(집주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중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혔던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일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주일 뒤인 3월 5일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 경기가 뒷걸음질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 장관은 특히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행진이 이어지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보유비중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1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3조26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감 등에 기인한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 보유액은 439조65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인 1326조3147억원의 33.15%에 달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25조7732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5.57%에 달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13조885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10.7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정경 기자 jcha@

‘바이 코리아’

외국인 보유비중 연중 최고치
16거래일간 3조267억 순매수

알립니다

‘히트상품 大賞’ 주인공이 되세요

금융·전자·유통 등 40개 부문 시상...6월20일 수상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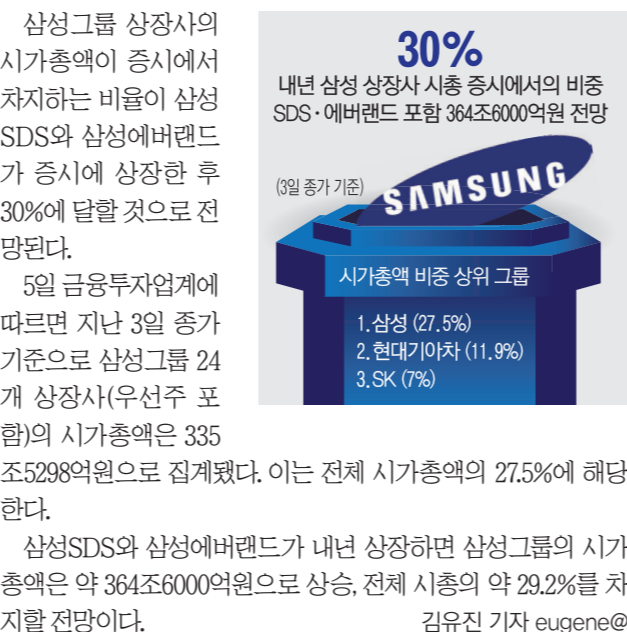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수한 제품을 발굴,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4 상반기 대한민국 베스트 히트상품 大賞'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베스트 히트상품 大賞은 기업들에게 상품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는 현명한 소비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시상 부문 : 금융, 전자, 생활가전, 자동차, 유통, 교육 등 40개 부문
-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etoday.co.kr) 참가신청서 출력 후 팩스 접수
- 발표 : 2014년 6월 20일(금) 본지 특집발행
- 문의 및 접수 : 광고국
※ 전화: 02)799-2673, 팩스: 02)799-2666, www.etoday.co.kr 참조

Graphic NEWS

SDS-에버랜드 성장 더 세진 '삼성파워'

5만원권, 발행잔액의 3분의2... 내 지급엔?



Life 목요일 21~25면

커버스토리
수직축적 리모델링 시동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6·8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대폭 개각·靑 개편·공직사회 혁신 強드라이브 예고

차대통령, 국가개조 속도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심 확인
국정운영 동력·개혁 명분 확보
김영란법·재난안전법 등 협조
인적쇄신 구상 실현 좌우할 듯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6·4 지방선거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과 공직개혁의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적 적폐 해소와 인적쇄신을 자질없이 추진해달라는 민의를 확인한 만큼 국가개조와 인적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후폭풍과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개각, 청와대 및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기존의 국정과제 실행에도 재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 정상화와 강도 높은 공직개혁 등 국가개조에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공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간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썩은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는 국가 대개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5일 새벽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최악의 선거 결과를 막았다”며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국가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개조,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사회부총리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안전처는 평시에는 장관급, 국가재난시 특임장관의 지위가 부여되고, 안전행정부는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 기능은 행정혁신(신설)로 이관하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민심이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혁신 3개년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 제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 국정 과제에도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된다. 다만 이같은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 재난안전 기본법, 은닉재산 환수법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여부도 향후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국정 주도의 기회를 다시 얻은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현재 공석인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 인선 후에는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축으로 한 청와대 참모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혼선 등의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6·4 지방선거 후 국정운영 과제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	국가개혁의 책임자이자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총리 임명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 조직 수준의 대폭 개각으로 2기 내각 구성
비정상적 정상화 등 국가개조	관공리 척결, 공직사회 혁신 사회교육문화 부총리,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핵심 국정과제 재시동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공기업 정상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관련 입법 촉구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국회 처리 요구

새 경제부총리에 ‘친박계 수장’ 최경환 유력

朴 ‘경제 교사’ 이한구 전 대표도 거론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선 구상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후임 총리의 인선 기준으로 내세웠던 ‘국가개혁’과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우며 국가대개조를 전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내각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를 비롯해 세월호 정국 수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선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서울시장을 또다시 야권에 내주고 충청의 4개 지역구에서 모두 패배하는 등 민심의 외면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선을 통해 민심을 추스리는데 주력해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 전반에 미친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집권 후반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 부처들의 수장이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에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한 추진력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부총리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전 원내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수장적인 최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이면서 경제부처 수장 경험도 있다. 또 오랜 시간 박 대통령 곁에서 함께한 정권의 실세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알려진 이한구 전 원내대표 역시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친박계 인사인 이 전 원내대표는 재무부에서 관료 경험을 거쳤고 민간영역인 대우경제연구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통이다.

윤필호 기자 beettlebum@

소신에 도덕성 갖춘 총리 후보는?

이강국·조무제·김승규 하마평 ‘7인회’ 최병렬 상임고문도 언급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새 총리 인선과 개각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인선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무원 사회의 적폐를 뜯어고치는 국가개혁을 이끌어 나갈 강직하고 소신 있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까지 두루 갖춘 인물을 제시했다. 기존보다 더 높은 인선 잣대를 내놓은 것으로, 김용준-안대희 등 두 차례에 걸친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선을 서두르려 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해 발표하지는 쪽으로 중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초 선거 직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총리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총리 후

보로 거론됐으나 본인이 고사하면서 청와대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 권익위원장 시절 공무원들의 청탁과 부패를 끊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입안했다. 또 변호사 활동 대신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법공리(법조인 마피아) 논란에서도 다소 비켜서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같은 법조계 출신으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조 전 의원은 별명인 ‘미스터 손소리’로 불릴 만큼 권력에 쓴소리를 마다 않는, 소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또 박 대통령 원로 멘토 모임으로 알려진 ‘7인회’ 소속 최병렬 새누리당 상임고문도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종진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에선 전용철 전 감사원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중 기자 zerg@

‘정권 심판론’ vs ‘대통령 구하기’...민심은 균형을 원했다

표심 분석해보니

6·4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세월호 심판론’을 들이던 야당과 ‘박근혜 구하기’로 맞선 여당에 권력을 양분시켰다.

에초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직전까지 지방선거는 여당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던 반면 야당은 합당 이후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양상은 크게 달라졌고, 박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함은 여실히 드러났고 야당은 이를 선거에 한껏 활용했다. ‘정권 심판론’과 함께 세월호 심판론으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여당은 박 대통령의 ‘눈물 담화’를

與 사고수습 무능·野 당내갈등...지지를 앞치락뒤치락

막판 보수표 결집...‘세월호 참사’에도 새누리당 선방

내달 30일 재·보궐선거 최소 12곳 ‘미니총선’서 재격돌

적극 홍보하고 ‘박근혜 구하기’로 선거 운동을 펼친 결과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민심이 세월호 심판과 동시에 박 대통령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개각과 ‘국가개조’ 등 예정했던 수순을 그대로 밟아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만 지적이다.

다만 어느 일방의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서 세월호 국정조사와 국정개혁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 30일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가 최소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격으로 치러지게 돼 격돌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경우 충청 참패로 ‘중원위기’ 후유증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 패배에 대한 책임 시비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 또 광주에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해 비난받아 온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모면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보수표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던 ‘숨은 표’는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나름 선방한 것

은 ‘40대 앵그리맘’의 표심을 막판 보수표 결집으로 누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거 기간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숨은 표 자체는 여야에 양분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최대 승부처로 꼽혀 온 서울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TNS 조사 결과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 48.7%,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34.9%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3.8%포인트였다. 투표 결과도 박 후보 55.8%, 정 후보 43.3%로 12.5%포인트 격차를 보여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천과 경기에선 여론조사보다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다소 높았고, 대전과 세종시 등지에선 여론조사 대비 새정치연합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지만,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익중 기자 zerg@

잠정투표율 56.8%...19년만에 최고

사전투표율 5%P 상승효과 최대 승부처 서울은 58.6%

6·4 지방선거의 잠정 투표율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대비 2.3%포인트 오른 56.8%로 집계됐다. 최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로 기대치가 높았지만 60%의 벽을 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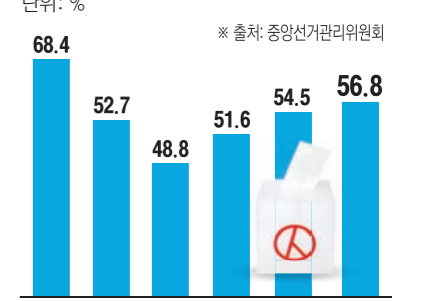
그럼에도 지방선거 투표율로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잠정 집계 결과 전국 유권자 4129만6228명 중 2346만4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56.8%를 기록했다”며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인 68.4%에 이어 역대 둘째로 높은 투표율”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실시해 11.49%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에서 5%포인트 정도 투표율을 상승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용한 선거였고 정책 대도 실종됐다”며 “그럼에도 4대강, 무상 급식 등 대형 이슈로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선거보다 투표율이 더 오른 것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사전투표 효과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65.6%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2.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가 52.3%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경기가 53.3%로 뒤를 이었다. 집선지역의 경우 경기(53.3%), 부산(55.6%), 충남(55.7%)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강원(62.3%), 충북(58.8%)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은 58.6%로 평균치를 넘어섰으나 경기(53.3%), 인천(53.7%)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체 평균보다 투표율이 낮은 곳은 부산(55.6%), 대구(52.3%), 인천(53.7%), 대전(54.0%), 울산(56.1%), 경기(53.3%), 충남(55.7%) 등 7곳이었다. 김익중 기자 zerg@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5일 천안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4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날개 단 ‘잠룡’ 차기 대선주자 한발짝 더

박원순 당선인 1순위로 거론 안희정 “준비되면 나가겠다” ‘전략공천’ 성공 안철수 발판 남경필·홍준표·원희룡 부상

6·4 지방선거에서 생환한 여야 ‘잠룡’ 정치인들은 차기 대권에도 성큼 다가서게 됐다. 2017년 대선이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입지종로 6개월 전 치러지는 만큼 중도 사퇴 부담이 적어, ‘성공적’ 시·도정 운영 후 대권 도전을 전명했던 이들은 물론, ‘일기 중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들도 대권직행 여지는 충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약속에도 가장 주목받는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한 광역단체장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듯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으로의 지름길이란 인식이 강해져서다. 대권을 노리는 새누리당 정몽준 전 후보가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지만, 박 당선자가 정 전 후보를 상대로 10%포인트 차이로 대승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에선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박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재선에 성공, ‘충청 대마룡’에 탄력이 붙었다. 안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도정 운영으

로 준비가 되면 (대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친노무현계 대권주자로서 문제인 의원과 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전략공천 논란에 밀리던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으로 당선시킨 안철수 공동대표도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됐다.

새누리당에선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에 이목이 쏠린다. 과거에도 손학규 전 의원, 이인제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이 모두 경기지사 자리를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남 당선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 속 초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데서 가능성이 보인다.

역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원희룡 제주

지사 당선자외는 당내 원조 소장파로 이미지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긴 원 당선자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남·원 당선자와 함께 비박계 인사로 재선 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자의 대권도 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 ‘뱃말’에서의 승리이긴 하나 당내 경선에서 친박근혜계와의 갈등을 겪으며 맷집이 강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낙선한 이들 가운데서도 새정치연합 김부겸 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여당 안방인 대구에서 40.3%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 잠재적 대선주자로서의 품값을 올렸다. 김미영 기자 bommi@

여야 “점허히 수용...나름 선방”

여여 반응

與 “수도권 2곳 승리 의미” 野 “영남 득표율 변화 바람”

여야는 5일 최종 집계된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의 성과와 의미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정·야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해 안도하는 모습이 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도권에서 2곳을 수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어느 쪽이 압승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야당이 심판론 프레임에 가져왔는데 경기도에 안산이 있고 인천에 청해진해군이 있어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세월호 프레임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을 받아주신 게 아

닌가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청을 전패했다. 세월호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얻는 것은 숙제”라면서 “전반적으로 누가 압승했다는 것은 아니다. 반성하고 새롭게 해 보겠다는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에선 “전반적으로 선전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면서 “대전의 경우 늘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겼고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예년보다 아권 후보들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잠재돼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원희룡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을 받아주신 게 아

니가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청을 전패했다. 세월호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얻는 것은 숙제”라면서 “전반적으로 누가 압승했다는 것은 아니다. 반성하고 새롭게 해 보겠다는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오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 설치된 개표장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방송3사·JTBC 엇갈린 출구조사

3사 김진표 당선 예측 틀리고 JTBC 남경필 당선 예상은 적중 인천 유정복 당선 3사서 맞췄

방송사들의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적중률을 얼마나 될까. 수도권 최대 표밭 경기지사, 인천시장과 제2의 도시 부산시장의 방송3사, JTBC의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 결과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50.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49.6%의 지지율을 얻어 아깝게 낙마했다. 앞서 방송3사(KBS, MBC, SBS)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는 김진표 후보가 51.0%로 49.0%의 남경필 후보에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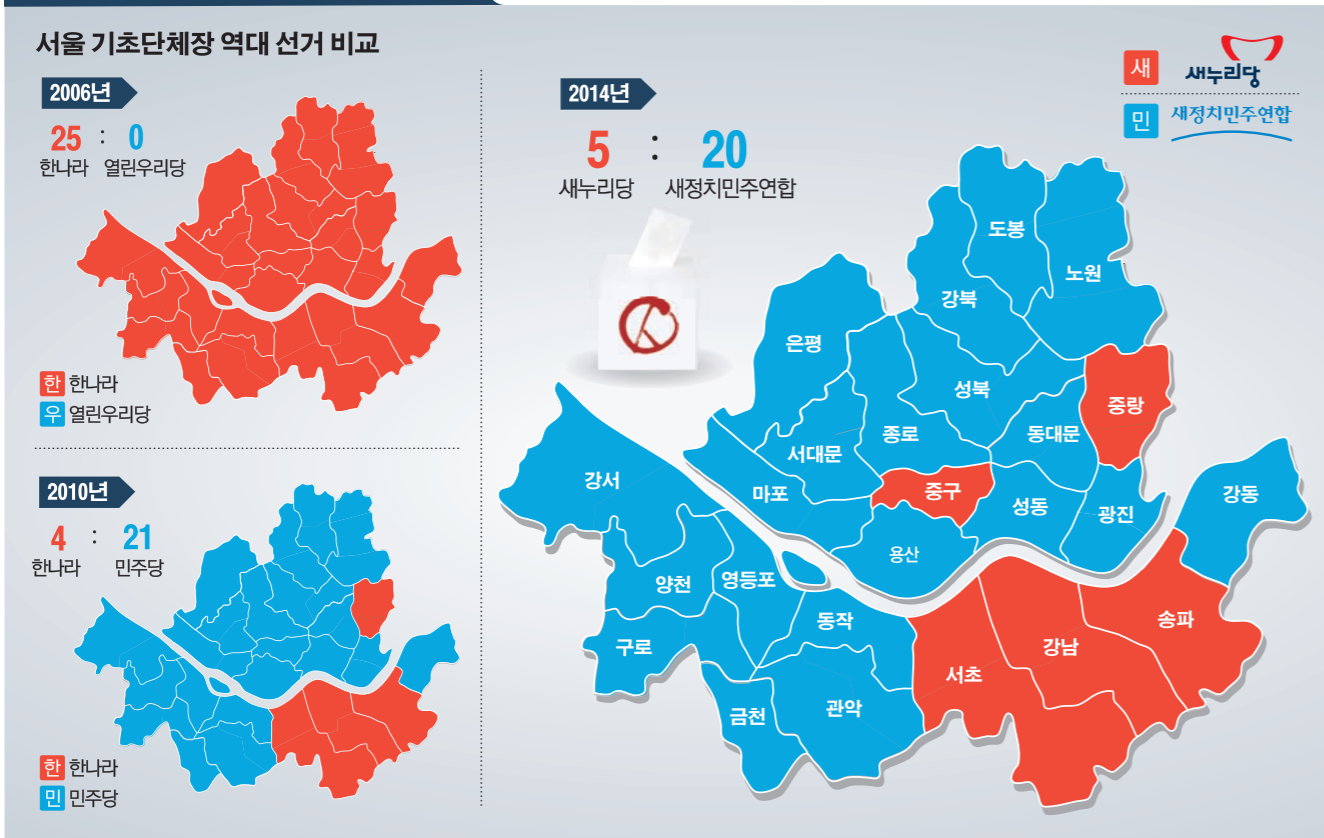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결과와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반면 경기지사에 한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출구조사 결과는 보다 정확했다. JTBC 출구조사 결과 남경필 후보는 52.5%의 득표율로 47.5%의 김진표 후보에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경합지역으로 개표 막바지까지 당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인천광역시 출구조사에서는 방송3사가 웃었다. 인천광역시 투표 결과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50.3%로 47.9%의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방송3사는 유정복 후보가 49.4%로 송영길 후보(49.1%)에 0.3%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JTBC는 송영길 후보가 52.2%로 유정복 후보(46.4%)를 5.8%포인트 차이로 앞선다고 예측했다.

최두선 기자 sun@

‘박원순 효과’ ‘현역 프리미엄’... 與 또다시 ‘서울의 악몽’

서울 기초단체장 정당별 1위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서울 10곳 승리 예상했지만
강남3구·중구·종로구 등
25곳 중 5곳...사실상 참패

전국 133곳... 과반 이상 차지
4년 전 82석 부진 설욕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서울 광역단체장 탈환에 실패한 데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25개 선거구 가운데 5곳만 견제 사실상 참패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심판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으로 인한 ‘낙수효과’에 밀렸다는 분석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명의 구청장을 뽑는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초구(조은희 당선자)·강남구(신연희)·송파구(박춘희) 등 강남 3구와 중구(최창식)·종로구(나진구) 등 5곳에서만 승리했다. 선거 전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10곳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도 우세했지만, 강남 3구와 중랑구만 이었던 2010년 지방선거 성적표에서 절반 내이지지 않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종로구(김영종)와 용산구(성정현)·성동구(정원오)·광진구(김기동)·동대문구(유덕열)·성북구(김영배)·강북구(박경수)·도봉구(이동진)·노원구(김성환)·은평구(김우영)·서대문구(문석진)·마포구(박홍섭)·양천구(김수영)·강서구(노현승)·구로구(이성)·금천구(차성수)·영등포구(조길형)·동작구(이창우)·관악구(유종필)·강동구(이혜식)를 수성했다.

당선이 유력했던 박원순 후보가 선거 막판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강력히 호소한 점이 효과를 낸 것으로 당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소속 구청장들의 ‘현역 프리미엄’도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신승한 경기에서도 31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3곳을 차지했을 뿐, 새정치연합이 17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이겼다. 인천구청장 선거에선 10개 자치구 중 6곳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역시 새정치민주연합(3곳), 무소속(1곳)으로 돌아갔다.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총 226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33곳에서 승리했다. 4년 전 82석에 그쳤던 데 비하면 설욕을 한 셈이다. 당시 92석을 차지했던 새정치연합으로선 이번에 65곳뿐이어서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김미영 기자 bomnal@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과 부인 강나희씨가 5일 오전 당선 사실이 확정되자 서울 종로5가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photothink@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 당선인이 5일 오전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캠프 상황실에서 부인 최은영(왼쪽)씨와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뉴스시스



5일 오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스

“변화 요구한 시민의 승리”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여러분이 흘린 땀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 순간 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을 생각한다. 저의 당선은 세월호의 슬픔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낡은 것과의 결별’이라고 칭한 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목욕하러 갈 것”이라며 “다함께 손잡고 한 마음으로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과 갈등, 분열과 대립 같은 낡은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소통과 공감, 화합과 통합으로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정몽준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저를 지지한 분들은 물론이고 반대한 사람과도 함께 서울시 모두의 시장으로 일하겠다. 모든 시민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며 통합의 시정을 약속했다.

그는 또 “선거기간 시민 여러분께 들었던 많은 말씀, 제가 시민 여러분께 드린 많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모든 시정에 반영하도록 꼼꼼하고 간간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지 기자 imj@

“위대한 인천시대 만들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5일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 위대한 인천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인천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며 “이러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제 온 몸을 던져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민 300만 모두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앞으로 모든 일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당선인은 또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며 “이번 선거에서 위대한 인천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하셨

다. 인천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을 희망이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거듭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유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정권의 핵심으로 불리며 이번 선거에서 주목 받았다. 그는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이후 36세에 김포군수를 시작으로 인천서구청장, 김포시장을 전국 최연소로 역임했다.

유 당선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시장의 지난 4년을 ‘부채·부패·부실’로 규정할 만큼 ‘3부’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13조원으로 불어난 인천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ji@

“함께 대화하는 도정 펼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야당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는 도정을 펼쳐 경기도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남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선거는 유례가 없던 선거였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엄중하고 진중하게 선거에 임했다”고 선거 운동을 마친 소회를 전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셨는데 저부터 반성하고 저부터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다”며 “유세차, 로고송,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끝까지 지켰다”고 강조했다.

했다.

이어 “총중생 생명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며 공약 이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 후보는 또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선거 기간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선거를 펼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는 도정을 펼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 후보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밀렸던 것과 달리 개표가 시작되고 출구조사 결과에 부딪혀 쓴 맛을 봤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 간 공천 다툼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정길 후보는 새누리당 조빈주 후보에 1.6%포인트 차의 신승을 거뒀지만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자사고 전면 재검토... 혁신교육 계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은 5일 “현재 진행되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와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투표로 표현됐다”고 당선 소감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진보 교육감인 박노현 전 서울 교육감이 열었던 혁신교육 시대를 부활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조 당선인은 “모든 교육현장은 혁신의 현장이어야 한다”며 “1기 진보 교육감 시대에 시행된 혁신

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교육의 확대보다는 창의 인성교육을 향한 교사의 자발성이 꽃피우도록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학부모가 자녀를 일관되고 안심하고 보내고 일반고 교육과정을 밟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시급한 게 학교 안전”이라며 “우리가 점검한 바에 따르면 공립학교 1곳, 사립학교 11곳이 붕괴 위험이 있는데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시설을 긴급 점검해 보완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imji@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중로구 새문안로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당선 사실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밤새 엮기락뒤치락... 강원·충북 ‘초박빙 접전’ 김부겸·오거돈 선전... 대구·부산 ‘텃밭의 반란’

세월호 참사와 개표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었던 이번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었다. 여당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2곳을 가져갔고 야당은 중원의 4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무엇보다 강원, 충북 등 초접전지역에서는 100표 미만 표 차이로 접전을 펼쳤던 지역구가 나올 정도로 혈투가 펼쳐졌다. 이들 지역은 매 시간 승부가 뒤집히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13조원으로 불어난 인천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ji@

여야 모두 텃밭을 수성하며 이변을 차 단했지만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모로 다양한 의미를 남겼다. 새누리당은 비록 서울에서 패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과 인천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가져갔다. 아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로서 승리가 당연할 것으로 보였던 대구시장에서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4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여당에 준엄한 경고장을 던졌다.

부산에서는 야권 단일후보인 오거돈 후보가 49%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무소속 돌풍

을 주도했다. 광주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에 반발해 탈당한 강은태 후보가 무소속으로 재집권을 노렸으나 새로운 변혁의 요구에 부딪혀 쓴 맛을 봤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 간 공천 다툼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정길 후보는 새누리당 조빈주 후보에 1.6%포인트 차의 신승을 거뒀지만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및 득표상황

광역단체장

◇ 서울특별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58세
단국대 사학과 서울특별시장

정문준 (새) 1,917,876 (43%)
김부겸 (민) 2,477,434 (55%)
정태홍 (통) 21,072 (0%)
홍정식 (지) 15,789 (0%)

◇ 부산광역시

서병수
새누리당
62세
북일대 노이대 박사 정당인

서병수 (새) 797,926 (50%)
오거돈 (무) 777,225 (49%)

◇ 대구광역시

권영진
새누리당
51세
고려대 정치학 박사 정당인

권영진 (새) 581,175 (55%)
김부겸 (민) 418,891 (40%)
송영길 (통) 10,857 (1%)
이원복 (정) 12,922 (1%)
이경국 (무) 14,774 (1%)

◇ 인천광역시

유정복
새누리당
56세
연세대 대학원장 정당인

유정복 (새) 581,631 (50%)
송영길 (민) 558,772 (48%)
신정현 (통) 21,393 (1%)

◇ 광주광역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65세
조선대 의학박사 정당인

윤장현 (새) 21,613 (3%)
윤민호 (민) 367,150 (57%)
이병욱 (통) 21,197 (3%)
김동원 (무) 6,785 (1%)
이경란 (무) 201,639 (31%)
이병관 (무) 16,246 (2%)

◇ 대전광역시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58세
대전대 행정학 박사 정당인

권선택 (새) 301,356 (46%)
권선언 (민) 322,722 (50%)
김경근 (통) 9,006 (1%)
한창민 (정) 11,344 (1%)

◇ 울산광역시

김기현
새누리당
55세
서울대 법학과 정치인

김기현 (새) 306,311 (65%)
조승수 (노) 123,736 (26%)
이갑용 (통) 38,107 (8%)

◇ 경기도

남경필
새누리당
49세
મે이일대 경영학 박사 정당인

남경필 (새) 2,389,247 (50%)
김진표 (민) 2,351,739 (49%)

◇ 강원도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58세
서울대 영문학과 공무원

최문순 (새) 369,192 (48%)
최부순 (민) 381,329 (49%)
이승재 (통) 15,773 (2%)

◇ 충청북도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67세
서울대 정치학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새) 346,152 (47%)
이시종 (민) 361,115 (49%)
신장호 (통) 18,590 (2%)

◇ 충청남도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49세
고려대 철학과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새) 385,067 (44%)
정진석 (민) 454,817 (52%)
김기문 (무) 33,271 (3%)

◇ 전라북도

송하진
새정치민주연합
62세
고려대 행정학 박사 정당인

송하진 (새) 176,464 (20%)
박철곤 (민) 596,392 (69%)
이광석 (통) 88,908 (10%)

◇ 전라남도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61세
서울대 법학과 정당인

이낙연 (새) 90,612 (9%)
이중환 (민) 739,834 (77%)
이성수 (통) 118,313 (12%)

◇ 경상북도

김관용
새누리당
71세
영남대 행정학 석사 공무원 (경북지사)

김관용 (새) 986,989 (77%)
오종기 (민) 189,603 (14%)
김병태 (통) 33,458 (2%)
박창호 (정) 59,609 (4%)

◇ 경상남도

홍준표
새누리당
59세
고려대 행정학과 공무원

홍준표 (새) 912,861 (58%)
김경수 (민) 559,191 (36%)
강병기 (통) 78,967 (5%)

◇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새누리당
50세
서울대 공법학과 정당인

원희룡 (새) 172,782 (59%)
신규범 (민) 99,489 (34%)
고승환 (통) 12,207 (4%)
주종근 (지) 3,637 (1%)

◇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58세
영남대 도시학 박사 정당인

이춘희 (새) 26,451 (42%)
이춘희 (민) 36,203 (57%)

기초단체장

<서울>

◇ 종로구

김영중
새정치민주연합
60세
한양대 공무원

김영중 (새) 29,333 (36%)
이수연 (민) 44,159 (55%)
김영준 (통) 809 (1%)
배영규 (무) 570 (0%)
우화성 (무) 4,679 (5%)
남상해 (무) 4,679 (5%)

◇ 중구

최창식
새누리당
62세
한양대 중구청장

최창식 (새) 31,908 (49%)
김남성 (민) 27,555 (42%)
김상국 (무) 2,049 (3%)
김연선 (무) 2,689 (4%)

◇ 용산구

성장현
새정치민주연합
59세
단국대 공무원

성장현 (새) 52,337 (45%)
홍춘자 (지) 58,239 (50%)
정영국 (정) 5,638 (4%)

■ 표 보는 법

▲ 당선자 약력은 정당, 나이, 학력, 직업 순 ▲ 후보별 항목은 소속당, 득표수, 득표율 순 ▲ ★표는 당선자 ▲ 정당 표시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정=정의당, 평=겨레자유명화통일당, 경=경제민주당, 공=공화당, 국=국제녹색당, 불=그린불교연합당, 기=기독교민주당, 노=노동당, 녹=녹색당, 대=대한민국당, 마=새마을당, 치=새정치국민당, 한=한나라당, 무=무소속 ▲ 득표수·득표율 5일 오전 8시 현재

◇ 성동구

정원오
새정치민주연합
45세
서울시립대 여주대 초빙교수

정원오 (새) 63,653 (46%)
장철환 (민) 67,514 (49%)
최정준 (통) 4,522 (3%)

◇ 광진구

김기동
새정치민주연합
67세
서울대 정당인

김기동 (새) 44,296 (44%)
권택기 (민) 55,115 (55%)

◇ 동대문구

유덕열
새정치민주연합
59세
경희대 공무원

유덕열 (새) 72,760 (41%)
방태원 (민) 96,697 (54%)
김재석 (무) 7,215 (4%)

◇ 중랑구

나진구
새누리당
61세
고려대 정당인

나진구 (새) 82,149 (49%)
김근중 (민) 77,321 (46%)
박종수 (무) 7,945 (4%)

◇ 성북구

김영배
새정치민주연합
47세
고려대 성북구청장

김영배 (새) 89,414 (39%)
김규성 (민) 124,512 (55%)
전태기 (통) 4,752 (2%)
황호산 (무) 6,776 (3%)

◇ 강북구

박겸수
새정치민주연합
54세
한양대 공무원

박겸수 (새) 60,812 (39%)
김기성 (민) 79,901 (52%)
황선 (통) 2,605 (1%)
채수창 (무) 9,318 (6%)

◇ 도봉구

이동진
새정치민주연합
53세
고려대 도봉구청장

이동진 (새) 68,734 (40%)
이동진 (민) 89,230 (52%)
조용현 (통) 4,050 (2%)
정일 (무) 8,727 (5%)

◇ 노원구

김성환
새정치민주연합
48세
연세대 노원구청장

김성환 (새) 84,865 (39%)
정기원 (민) 126,088 (59%)
정재복 (무) 1,941 (0%)

◇ 은평구

김우영
새정치민주연합
44세
성균관대 정부직공무원

김우영 (새) 94,973 (41%)
임승업 (민) 127,488 (55%)
유지훈 (통) 7,932 (3%)

◇ 서대문구

문석진
새정치민주연합
58세
연세대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새) 63,935 (40%)
이해돈 (민) 86,613 (55%)
박희진 (통) 3,616 (2%)
고은석 (무) 3,293 (2%)

◇ 마포구

박홍섭
새정치민주연합
71세
성균관대 마포구청장

박홍섭 (새) 74,824 (42%)
신영섭 (민) 111,678 (47%)
박용모 (통) 93,050 (52%)
김보연 (무) 8,717 (4%)

◇ 양천구

김수영
새정치민주연합
49세
숭실대 겸임교수

김수영 (새) 108,950 (46%)
오경훈 (민) 111,678 (47%)
김수영 (통) 3,986 (1%)
김수영 (무) 8,536 (3%)

◇ 강서구

노현송
새정치민주연합
60세
한국외국어대 강서구청장

노현송 (새) 91,027 (40%)
김기철 (민) 118,429 (52%)
노현송 (무) 16,155 (7%)

◇ 구로구

이성
새정치민주연합
57세
동국대 공무원

이성 (새) 76,409 (39%)
최재무 (민) 117,710 (60%)

◇ 금천구

차성수
새정치민주연합
57세
고려대 금천구청장

차성수 (새) 46,162 (41%)
한인수 (민) 65,951 (58%)

◇ 영등포구

조길형
새정치민주연합
57세
영원대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새) 80,932 (46%)
양창호 (민) 94,670 (53%)

◇ 동작구

이창우
새정치민주연합
43세
연세대 정당인

이창우 (새) 62,285 (43%)
장성수 (민) 73,879 (51%)
이창우 (통) 3,937 (2%)
한금성 (무) 855 (0%)
정기철 (무) 1,734 (1%)

◇ 관악구

유종필
새정치민주연합
56세
서울대 관악구청장

유종필 (새) 92,288 (36%)
이정호 (민) 154,056 (60%)
이승현 (통) 8,324 (3%)

◇ 서초구

조은희
새누리당
53세
한국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조은희 (새) 67,383 (49%)
조은희 (민) 43,437 (32%)
파세현 (통) 2,590 (1%)
이원호 (무) 1,360 (1%)
진익철 (무) 20,093 (14%)

◇ 강남구

신연희
새누리당
66세
고려대 강남구청장

신연희 (새) 149,722 (61%)
신연희 (민) 84,164 (34%)
김명진 (통) 8,110 (3%)

◇ 송파구

박준희
새누리당
59세
건국대 송파구청장

박준희 (새) 160,299 (54%)
박준희 (민) 128,811 (43%)
김정중 (통) 7,349 (2%)

◇ 강동구

이해식
새정치민주연합
50세
서울시립대 강동구청장

이해식 (새) 82,288 (41%)
최용호 (민) 116,620 (58%)

<부산>

◇ 중구

김은숙
새누리당
69세
부산대 공무원

김은숙 (새) 11,556 (50%)
이인준 (무) 11,460 (49%)

◇ 서구

박극제
새누리당
62세
동아대 공무원

박극제 (새) 33,313 (61%)
유승우 (무) 21,229 (38%)

◇ 동구

박산석
새누리당
64세
동아대 정당인

박산석 (새) 19,809 (42%)
성재도 (민) 8,133 (17%)
정영석 (무) 18,227 (40%)

◇ 영도구

어윤태
새누리당
68세
고려대 영도구청장

어윤태 (새) 34,522 (58%)
어윤태 (민) 24,746 (41%)

◇ 부산진구

하계열
새누리당
69세
동아대 정부직 공무원

하계열 (새) 109,337 (61%)
조영진 (민) 53,420 (30%)
손환영 (통) 6,225 (3%)
김명미 (무) 7,442 (4%)

◇ 동래구

전광우
새누리당
54세
동아대 정당인

전광우 (새) 60,235 (46%)
전광우 (민) 36,090 (28%)
조광우 (통) 23,387 (18%)
전일수 (무) 8,557 (6%)

◇ 남구

이종철
새누리당
70세
부산대 부산시 남구청장

이종철 (새) 57,753 (42%)
김병철 (민) 36,824 (27%)
차경양 (무) 7,685 (5%)
송순열 (무) 14,018 (10%)
김건길 (무) 18,474 (13%)

◇ 북구

황재관
새누리당
67세
한국방송통신대 부산시 북구청장

황재관 (새) 76,607 (55%)
정진우 (민) 45,033 (32%)
김대환 (통) 5,015 (3%)
신오동 (무) 10,598 (7%)

◇ 해운대구

백성기
새누리당
66세
경향대 우수유치원설립이사장

백성기 (새) 100,212 (54%)
윤준호 (민) 58,438 (31%)
김준호 (통) 6,687 (3%)
박은숙 (무) 9,942 (5%)
남명숙 (무) 8,743 (4%)

◇ 기장군

오규석
무소속
55세
동국대 기장군수

오규석 (새) 23,066 (37%)
홍성룡 (민) 7,120 (11%)
오규석 (무) 31,782 (51%)

◇ 사하구

이경훈
새누리당
64세
동아대 사하구청장

이경훈 (새) 93,415 (62%)
노재갑 (민) 56,122 (37%)

◇ 금정구

원정희
새누리당
60세
동아대 금정구청장

원정희 (새) 85,215 (73%)
정장근 (민) 31,504 (26%)

◇ 강서구

노기태
새누리당
67세
부산대 정당인

노기태 (새) 15,818 (46%)
김진욱 (민) 7,791 (22%)
안병태 (무) 10,772 (31%)

◇ 연제구

이위준
새누리당
71세
동아대 연제구청장

이위준 (새) 57,203 (64%)
김종재 (무) 31,668 (35%)

◇ 수영구

박현욱
새누리당
59세
부산외국어대 정부직 공무원

박현욱 (새) 50,225 (62%)
황진수 (민) 30,646 (37%)

◇ 사상구

송숙희
새누리당
55세
부산대 사상구청장

송숙희 (새) 70,536 (63%)
황호선 (민) 40,167 (36%)

<대구>

◇ 중구

윤순영
새누리당
61세
중앙대 대구시 중구청장

윤순영 (새) 21,468 (61%)
한기열 (무) 13,544 (38%)

◇ 동구

강대식
새누리당
54세
영남대 대구시 동구청장

강대식 (새) 116,937 (79%)
권택홍 (통) 30,341 (20%)

◇ 서구

류한국
새누리당
60세
영남대 정당인

류한국 (새) 45,867 (51%)
강성호 (무) 20,477 (22%)
서준현 (민) 20,213 (22%)
신상숙 (무) 2,996 (3%)

◇ 남구

임병헌
새누리당
60세
영남대 대구시 남구청장

임병헌 (새) 단독출마

◇ 북구

배광식
새누리당
54세
경북대 정당인

배광식 (새) 119,559 (68%)
권희기 (무) 22,270 (12%)
구본향 (무) 32,983 (18%)

◇ 수성구

이진훈
새누리당
57세
계명대 공무원

이진훈 (새) 142,937 (72%)
이성수 (무) 53,398 (27%)

◇ 달서구

곽대훈
새누리당
59세
서울대 공무원 (정무직)

곽대훈 (새) 178,964 (72%)
김학기 (민) 66,648 (27%)

◇ 달성군

김문오
새누리당
65세
경북대 달성군수

김문오 (새) 단독출마

<인천>

◇ 중구

김홍섭
새누리당
64세
경기대 인천시 중구청장

김홍섭 (새) 25,149 (52%)
김홍섭 (민) 20,295 (42%)
하승보 (무) 2,362 (4%)

◇ 동구

이흥수
새누리당
53세
인하대 BCM보승아학원장

이흥수 (새) 17,076 (47%)
조태상 (정)

◇ 중구

박용갑 새정치민주연합
57세 호남대 정치학과 교수

이은권 (새) 51,593 (45%)
***박용갑** (민) 58,024 (50%)
전동영 (무) 4,339 (3%)

◇ 서구

장종태 새정치민주연합
61세 대전대 정당인

박용용 (새) 99,217 (48%)
***장종태** (민) 99,534 (48%)
이강철 (자) 7,332 (3%)

◇ 유성구

허태정 새정치민주연합
48세 충남대 중문원(정무직)

진동규 (새) 49,817 (36%)
***허태정** (민) 83,441 (60%)
유석순 (동) 2,397 (1%)
김현태 (무) 1,766 (1%)

◇ 대덕구

박수범 새누리당
53세 호남대 정당인

***박수범** (새) 38,362 (46%)
박영순 (민) 37,979 (46%)
홍순기 (동) 2,725 (3%)
최영관 (무) 3,449 (4%)

<울산>

◇ 중구

박성민 새누리당
55세 울산대 중구경찰

***박성민** (새) 65,669 (62%)
임동호 (민) 39,055 (37%)

◇ 남구

서동욱 새누리당
51세 동국대 정당인

***서동욱** (새) 90,241 (60%)
김진기 (동) 58,427 (39%)

◇ 동구

권명호 새누리당
53세 울산대 정당인

***권명호** (새) 36,045 (44%)
유성훈 (민) 7,324 (9%)
김종훈 (동) 32,438 (40%)
손삼호 (노) 4,386 (5%)

◇ 북구

박전동 새누리당
48세 동대 정당인

***박전동** (새) 35,357 (44%)
김재근 (민) 9,435 (11%)
윤종오 (동) 33,877 (43%)

◇ 울주군

신장열 새누리당
61세 울산대 울주군수

***신장열** (새) 52,569 (65%)
서건기 (무) 28,075 (34%)

<경기>

◇ 수원시

염태영 새정치민주연합
53세 서울대 정무직공무원

김용서 (새) 188,998 (37%)
***염태영** (민) 296,875 (59%)
임미숙 (동) 8,404 (1%)
김규화 (정) 5,256 (1%)

◇ 성남시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49세 중앙대 성남시장

신영수 (새) 183,245 (44%)
***이재명** (민) 228,721 (55%)
허재안 (자) 7,377 (0%)

◇ 의정부시

안병용 새정치민주연합
58세 동국대 의정부시장

강세창 (새) 72,694 (42%)
***안병용** (민) 87,959 (51%)
이응 (무) 9,067 (5%)

◇ 안양시

이필운 새누리당
59세 성균관대 정당인

***이필운** (새) 136,586 (50%)
최대호 (민) 136,101 (49%)

◇ 부천시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49세 연세대 부천시청

이재진 (새) 148,307 (43%)
***김만수** (민) 186,099 (54%)
유운상 (자) 4,770 (1%)

◇ 광명시

양기대 새정치민주연합
51세 서울대 정당인

심중식 (새) 61,017 (38%)
***양기대** (민) 95,924 (61%)

◇ 평택시

공재광 새누리당
51세 고려대 정당인

***공재광** (새) 84,855 (52%)
김선기 (민) 73,059 (44%)
이호성 (동) 4,645 (2%)

◇ 양주시

현삼식 새누리당
66세 경민대 공무원

***현삼식** (새) 40,797 (52%)
이성호 (민) 37,337 (47%)

◇ 동두천시

오세창 새정치민주연합
63세 중앙대 동두천시청

임상오 (새) 15,056 (38%)
***오세창** (민) 15,767 (40%)
박인범 (무) 8,426 (21%)

◇ 안산시

제종길 새정치민주연합
59세 서울대 도시외곽연계 소장

조병주 (새) 97,789 (37%)
***제종길** (민) 101,906 (38%)
김철민 (동) 58,283 (22%)
강성환 (무) 3,635 (1%)

◇ 과천시

신계용 새누리당
50세 서울대 정당인

***신계용** (새) 12,222 (33%)
김종현 (민) 10,728 (29%)
서형원 (동) 7,121 (19%)
이경수 (무) 6,906 (18%)

◇ 의왕시

김성제 새정치민주연합
54세 서울대 의왕시장

권오규 (새) 31,290 (41%)
***김성제** (민) 43,898 (58%)

◇ 구리시

박영순 새정치민주연합
66세 연세대 구리시장

백경현 (새) 29,364 (36%)
***박영순** (민) 39,644 (49%)
이봉관 (동) 1,255 (1%)
권봉수 (무) 3,889 (4%)
김용호 (무) 5,652 (7%)

◇ 남양주시

이석우 새누리당
66세 연세대 공무원

***이석우** (새) 117,377 (49%)
김현정 (민) 109,185 (46%)
조병환 (무) 10,447 (4%)

◇ 오산시

곽상욱 새정치민주연합
49세 단국대 공무원(오산시청)

이권재 (새) 25,709 (34%)
***곽상욱** (민) 44,262 (59%)
최인혜 (무) 4,556 (6%)

◇ 화성시

채인석 새정치민주연합
51세 중앙대 화성시장

최형근 (새) 66,914 (47%)
***채인석** (민) 68,391 (48%)
홍성규 (동) 6,181 (4%)

◇ 시흥시

김윤식 새정치민주연합
48세 연세대 시흥시장

함인수 (새) 56,069 (46%)
***김윤식** (민) 59,775 (49%)
신부식 (무) 4,377 (3%)

◇ 군포시

김운주 새정치민주연합
65세 홍문초 군포시장

하은호 (새) 52,547 (40%)
***김운주** (민) 77,683 (59%)

◇ 하남시

이교범 새정치민주연합
62세 단국대 정당인

김환식 (새) 28,613 (44%)
***이교범** (민) 33,841 (52%)
이옥진 (무) 2,124 (3%)

◇ 파주시

이재홍 새누리당
57세 연세대 정당인

***이재홍** (새) 75,835 (47%)
이재호 (민) 74,262 (46%)
이재호 (동) 4,260 (2%)
김순현 (무) 5,710 (3%)

◇ 여주시

원경희 새누리당
58세 정국대 노인재무법인 대표

***원경희** (새) 25,106 (54%)
정호진 (민) 12,047 (26%)
정숙영 (무) 9,115 (19%)

◇ 이천시

조병돈 새정치민주연합
65세 화성대 공무원(정무직)

김경희 (새) 31,425 (38%)
***조병돈** (민) 32,340 (39%)
김정희 (동) 1,380 (1%)
김무환 (무) 15,959 (19%)

◇ 용인시

정찬민 새누리당
56세 경희대 정당인

***정찬민** (새) 188,787 (47%)
양해경 (민) 153,529 (38%)
김성국 (동) 16,976 (4%)
김학규 (무) 38,330 (9%)

◇ 안성시

황은성 새누리당
52세 건국대 안성시장

***황은성** (새) 42,909 (58%)
김선미 (민) 30,145 (41%)

◇ 김포시

유영록 새정치민주연합
51세 서울시립대 정당인

신관철 (새) 54,032 (42%)
***유영록** (민) 61,123 (48%)
김동식 (무) 11,760 (9%)

◇ 광주시

조억동 새누리당
57세 한국외국어대 광주시청

***조억동** (새) 51,576 (51%)
이성규 (민) 42,129 (41%)
정영욱 (무) 7,207 (7%)

◇ 포천시

서장원 새누리당
56세 대전대 포천시청

***서장원** (새) 35,406 (55%)
김창원 (민) 15,733 (24%)
최호열 (무) 12,286 (19%)

◇ 연천군

김규선 새누리당
61세 대전대 정무직

***김규선** (새) 11,592 (52%)
이태원 (민) 6,397 (28%)
정경식 (무) 2,189 (9%)
이효재 (무) 1,929 (8%)

◇ 양평군

김선교 새누리당
53세 고려대 정당인

***김선교** (새) 30,563 (60%)
김태수 (민) 20,266 (39%)

<강원>

◇ 춘천시

최동용 새누리당
63세 한국방송통신대 부직

***최동용** (새) 65,478 (58%)
변지량 (무) 47,353 (41%)

◇ 원주시

임장묵 새정치민주연합
53세 중앙대 공무원

원경록 (새) 68,477 (48%)
***임장묵** (민) 72,724 (51%)

◇ 강릉시

최명희 새누리당
59세 고려대 강릉시장

***최명희** (새) 69,393 (70%)
홍기엽 (민) 29,173 (29%)

◇ 동해시

심규언 새누리당
58세 동해대 정당인

***심규언** (새) 20,890 (47%)
김일기 (민) 9,057 (20%)
홍기진 (동) 5,210 (11%)
홍희표 (무) 4,878 (11%)
최경순 (무) 3,922 (8%)

◇ 삼척시

김양호 무소속
52세 강원대 단국대

김태수 (새) 15,606 (37%)
***김양호** (무) 25,948 (62%)

◇ 태백시

김연식 새누리당
46세 한국방송통신대 양구군수

***김연식** (새) 15,172 (57%)
김동욱 (민) 11,324 (42%)

◇ 정선군

진정환 새누리당
56세 경상고 정선군청

***진정환** (새) 12,941 (54%)
최승준 (민) 10,809 (45%)

◇ 속초시

이병선 무소속
51세 동국대 정당인

채용생 (새) 18,375 (47%)
***이병선** (민) 20,043 (52%)

◇ 고성군

윤승근 새누리당
59세 경동대 아모레 설악점 대표

***윤승근** (새) 7,829 (41%)
신영진 (민) 1,404 (7%)
신준수 (동) 2,910 (15%)
박도웅 (무) 3,268 (17%)
함현관 (무) 3,382 (17%)

◇ 양양군

김진하 새누리당
54세 강원원주대 정당인

***김진하** (새) 7,245 (42%)
정상철 (민) 6,492 (37%)
김관호 (무) 3,476 (20%)

◇ 인제군

이순선 새누리당
57세 한림성심대 정당인

***이순선** (새) 9,736 (50%)
최상기 (민) 7,911 (41%)
양정우 (동) 690 (3%)
문석관 (무) 878 (4%)

◇ 홍천군

노승락 새누리당
63세 강원대 축산대

***노승락** (새) 16,225 (42%)
고준석 (민) 5,671 (14%)
허복룡 (무) 15,983 (42%)

◇ 횡성군

한규호 새누리당
63세 강원대 정당인

***한규호** (새) 15,694 (61%)
김명기 (민) 7,913 (30%)
정영락 (무) 2,057 (8%)

◇ 영월군

박선규 새누리당
57세 세경대 영월군수

***박선규** (새) 15,188 (66%)
고진국 (민) 7,168 (31%)
이상준 (무) 498 (2%)

◇ 평창군

심재국 새누리당
57세 고려대 자연대

***심재국** (새) 13,537 (54%)
이석래 (민) 11,378 (45%)

◇ 화천군

최문순 새누리당
60세 화천실업고 농업

***최문순** (새) 10,033 (71%)
이재원 (민) 4,067 (28%)

◇ 양구군

전창범 새누리당
61세 한국방송통신대 양구군수

***전창범** (새) 7,385 (51%)
김대영 (민) 6,832 (48%)

◇ 철원군

이현중 새누리당
64세 서울시립대 정당인

***이현중** (새) 12,142 (49%)
홍병문 (민) 8,222 (33%)
최승준 (무) 4,199 (17%)

<충북>

◇ 청주시

이승훈 새누리당
59세 미국 메릴랜드대 정당인

***이승훈** (새) 178,336 (50%)
한병택 (민) 173,081 (49%)

◇ 충주시

조길형 새누리당
51세 서울대 정당인

***조길형** (새) 49,663 (51%)
한정희 (민) 41,230 (43%)
최영길 (무) 4,941 (5%)

◇ 제천시

이근규 새정치민주연합
54세 고려대 청소년운동연합총재

최명현 (새) 27,663 (41%)
***이근규** (민) 32,794 (49%)
홍성주 (무) 6,125 (9%)

◇ 단양군

류한우 새누리당
64세 충북대 정당인

***류한우** (새) 9,094 (49%)
김동진 (민) 7,565 (41%)
김우현 (동) 1,164 (6%)
한정근 (무) 435 (2%)

◇ 영동군

박세복 새누리당
51세 영동대 대광건설 대표

***박세복** (새) 13,629 (45%)
정구복 (민) 13,286 (44%)
김재영 (무) 2,968 (9%)

◇ 보은군

정상혁 무소속
72세 충북대 공무원

김소백 (새) 9,155 (41%)
***정상혁** (민) 2,980 (13%)
정상혁 (무) 9,676 (44%)

◇ 옥천군

김영만 새누리당
62세 고려대 공무원

***김영만** (새) 17,131 (57%)
김재중 (민) 11,432 (38%)
이성진 (동) 398 (1%)
김명훈 (무) 404 (1%)
박인수 (무) 631 (2%)

◇ 음성군

이필용 새누리당
52세 고려대 음성군수

***이필용** (새) 24,295 (59%)
박희만 (민) 16,513 (40%)

◇ 진천군

유영훈 새정치민주연합
59세 진천중 진천군수

김종필 (새) 13,037 (41%)
***유영훈** (민) 13,300 (42%)
남우현 (동) 701 (2%)
김원호 (무) 4,039 (12%)

◇ 괴산군

임각수 무소속
66세 국민대 공무원

송인환 (새) 8,923 (38%)
***임각수** (민) 2,279 (11%)
김도현 (무) 11,324 (49%)

◇ 증평군

홍성열 새정치민주연합
59세 청주대 증평군수

유명호 (새) 7,387 (41%)
***홍성열** (민) 8,227 (45%)
연기복 (동) 613 (3%)
박동복 (무) 287 (1%)
이현재 (무) 1,446 (8%)

<충남>

◇ 공주시

오시덕 새누리당
66세 충남대 정당인

***오시덕** (새) 27,626 (49%)
김정섭 (민) 20,900 (37%)
김태진 (동) 786 (1%)
이성호 (무) 1,303 (2%)
김선환 (무) 5,144 (9%)

◇ 보령시

김동일 새누리당
65세 동아인제대락 정당인

***김동일** (새) 27,654 (51%)
이시우 (민) 18,169 (33%)
염승용 (무) 8,317 (15%)

◇ 아산시

복기왕 새정치민주연합
46세 고려대 아산시장

이교식 (새) 43,127 (43%)
***복기왕** (민) 51,675 (51%)
조양준 (무) 5,332 (5%)

◇ 서산시

이완섭 새누리당
57세 숭실대 서산시장

***이완섭** (새) 42,247 (71%)
한기남 (민) 16,987 (28%)

<전북>

◇ 전주시

김승수 새정치민주연합
45세 전북대 정당인

김병서 (새) 25,022 (8%)
***김승수** (민) 136,220 (48%)
정상진 (동) 15,580 (5%)
임정엽 (무) 102,051 (36%)

◇ 군산시

문동진 새정치민주연합
76세 중앙대 군산시장

정종희 (새) 11,848 (10%)
***문동진** (민) 49,352 (42%)
채용록 (무) 15,577 (13%)
서동서 (무) 38,505 (33%)

◇ 익산시

박경철 무소속
58세 원광대 익산시민연합 대표

이현수 (민) 62,500 (49%)
***박경철** (무) 63,236 (50%)

◇ 정읍시

김생기 새정치민주연합
67세 전북대 정읍시장

***김생기** (민) 29,799 (49%)
강광 (무) 18,052 (30%)
정도진 (무) 11,972 (20%)

◇ 남원시

이환주 새정치민주연합
53세 전북대 남원시장

***이환주** (민) 19,138 (52%)
김종선 (무) 11,582 (31%)
강준성 (무) 5,700 (15%)

◇ 김제시

이건식 무소속
69세 전주대 공무원

박준배 (민) 22,034 (44%)
***이건식** (무) 2,789 (5%)
최라도 (무) 2,477 (4%)
이건식 (무) 22,647 (45%)

◇ 홍성군

김석환 새누리당
69세 홍성고 홍성군수

***김석환** (새) 23,160 (53%)
김현병 (민) 15,574 (35%)
김현경 (무) 4,764 (10%)

◇ 청양군

이석화 무소속
67세 대전대 청양군수

복철규 (새) 4,760 (23%)
***이석화** (민) 3,338 (16%)
김인호 (동) 4,094 (20%)
홍인석 (무) 404 (1%)
***이석화** (무) 5,536 (27%)
임영환 (무) 1,189 (5%)
이희환 (무) 915 (4%)

◇ 예산군

황선봉 새누리당
64세 예산고 예산군수

***황선봉** (새) 27,140 (63%)
고남홍 (무) 15,757 (36%)

◇ 당진시

김홍장 새정치민주연합
52세 경희대 정당인

이철화 (새) 27,470 (40%)
***김홍장** (민) 29,515 (43%)
김우각 (무) 5,346 (7%)
이덕연 (무) 5,543 (8%)

◇ 완주군

구분영 새정치민주연합
61세 서울시립대 정당인

최민기 (새) 86,522 (39%)
***구분영** (민) 115,712 (53%)
선준자 (동) 2,671 (1%)
정화순 (무) 1,811 (0%)
박성호 (무) 11,083 (5%)

◇ 김제시

이건식 무소속
69세 전주대 공무원

박준배 (민) 22,034 (44%)
***이건식** (무) 2,789 (5%)
최라도 (무) 2,477 (4%)
이건식 (무) 22,647 (45%)

송해 선생님님이 도맡기시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 완주군

박성일
무소속 59세 서울대 전북대 교육원 교수

국영석 (민) 21,551 (49%)
★박성일 (무) 21,740 (50%)

◇ 진안군

이항로
무소속 57세 한국방송통신대

이명노 (민) 5,840 (32%)
송영호 (무) 5,386 (29%)
★이항로 (무) 6,728 (37%)

◇ 무주군

황정수
새정치민주연합 59세 중부대 정당인

★황정수 (민) 6,686 (38%)
홍낙포 (무) 4,551 (26%)
김재홍 (무) 1,919 (11%)
황인홍 (무) 4,067 (23%)

◇ 장수군

최용득
무소속 67세 천진동업

김장수 (세) 833 (5%)
정영호 (민) 5,718 (36%)
최용득 (무) 2,508 (16%)
★최용득 (무) 6,534 (41%)

◇ 임실군

심민
무소속 66세 한국방송통신대 사회활동가

김태성 (민) 2,969 (15%)
이종택 (민) 1,027 (5%)
박기복 (무) 591 (3%)
한기연 (무) 1,334 (6%)
김복관 (무) 3,423 (17%)
★심민 (무) 4,516 (23%)
5,346 (27%)

◇ 순창군

황숙주
새정치민주연합 66세 연세대 순창군수

★황숙주 (민) 12,558 (66%)
홍승태 (무) 6,426 (33%)

◇ 고창군

박우정
새정치민주연합 69세 건국대 기업인

★박우정 (민) 17,550 (50%)
정학수 (무) 17,445 (49%)

◇ 부안군

김종규
무소속 62세 전주대 교육사업

이병호 (민) 15,871 (47%)
★김종규 (무) 16,471 (49%)
백기근 (무) 1,136 (3%)

◇ 전남

◇ 목포시

박홍률
무소속 60세 중앙대 정치인

이상열 (민) 31,532 (31%)
이순환 (민) 2,863 (2%)
박홍률 (민) 5,686 (5%)
김홍익 (무) 35,951 (35%)
★박홍률 (무) 6,444 (6%)
홍영기 (무) 18,851 (18%)

◇ 여수시

주철현
새정치민주연합 55세 성균관대 변호사

★주철현 (민) 66,622 (50%)
김상일 (무) 10,579 (7%)
김동재 (무) 33,223 (24%)
김동주 (무) 9,875 (7%)
정정호 (무) 1,791 (1%)
한정진 (무) 10,908 (8%)

◇ 순천시

조중훈
무소속 60세 중앙대 순천시장

허석 (민) 44,798 (40%)
이수근 (무) 11,950 (10%)
★조중훈 (무) 52,790 (48%)

◇ 나주시

강인규
새정치민주연합 59세 전남대 정당인

★강인규 (민) 24,370 (49%)
나창주 (무) 4,892 (9%)
임성훈 (무) 20,069 (40%)

◇ 광양시

정현복
무소속 64세 한림대 부직

김재무 (민) 21,762 (30%)
유현주 (무) 7,090 (9%)
★정현복 (무) 26,031 (36%)
정인화 (무) 16,367 (22%)

◇ 담양군

최형식
새정치민주연합 58세 전남대 정당인

★최형식 (민) 13,905 (50%)
유정중 (무) 12,464 (45%)
신동호 (무) 1,288 (4%)

◇ 장성군

유두석
무소속 64세 중원대 기업인

김양수 (민) 12,738 (46%)
★유두석 (무) 14,950 (53%)

◇ 곡성군

유근기
새정치민주연합 51세 전남과대학 정당인

★유근기 (민) 9,004 (45%)
김철재 (무) 7,445 (37%)
배병채 (무) 3,546 (17%)

◇ 구례군

서기동
새정치민주연합 64세 임흥고 구례군수

★서기동 (민) 7,119 (38%)
김중섭 (무) 1,994 (10%)
정영남 (무) 2,581 (13%)
전경태 (무) 6,863 (36%)

◇ 고흥군

박병중
새정치민주연합 60세 순천제일대학 고흥군수

김경준 (세) 1,548 (3%)
★박병중 (민) 19,265 (42%)
김학영 (무) 6,695 (14%)
송귀근 (무) 17,853 (39%)

◇ 보성군

이용부
무소속 61세 서울시립대 남부대사회복지학과

정중해 (민) 13,031 (44%)
★이용부 (무) 15,944 (55%)

◇ 화순군

구충근
새정치민주연합 55세 조선대 정당인

★구충근 (민) 12,751 (33%)
전형준 (무) 6,698 (17%)
구보경 (무) 6,095 (15%)
배동기 (무) 1,999 (5%)
임호경 (무) 9,538 (25%)
임갑수 (무) 1,057 (2%)

◇ 장흥군

김성
무소속 54세 조선대 비전임교수

이명환 (민) 8,649 (32%)
위두환 (무) 1,404 (5%)
정중순 (무) 5,638 (21%)
★김성 (무) 9,226 (34%)
최경석 (무) 1,877 (7%)

◇ 강진군

강진원
새정치민주연합 54세 시립국립대 강진군수

★강진원 (민) 17,173 (72%)
장정복 (무) 6,575 (27%)

◇ 완도군

신우철
새정치민주연합 61세 전남대 정당인

★신우철 (민) 17,831 (56%)
김인철 (무) 13,643 (43%)

◇ 해남군

박철환
새정치민주연합 55세 대불대 해남군수

★박철환 (민) 25,158 (61%)
김병호 (무) 15,578 (38%)

◇ 진도군

이동진
새정치민주연합 68세 서울대 공무원

★이동진 (민) 11,285 (56%)
박연수 (무) 8,778 (43%)

◇ 영암군

전동평
새정치민주연합 53세 전남대 정당인

★전동평 (민) 16,382 (50%)
김인태 (무) 11,810 (36%)
최정열 (무) 4,115 (12%)

◇ 무안군

김철주
새정치민주연합 56세 조선대 정부직 공무원

오원욱 (세) 3,930 (10%)
★김철주 (민) 30,248 (77%)
최정열 (무) 4,947 (12%)

◇ 영광군

김준성
무소속 62세 호남대 진지중학건설 이사

정기호 (민) 15,903 (45%)
★김준성 (무) 19,222 (54%)

◇ 함평군

안병호
새정치민주연합 66세 전남대 함평군수

★안병호 (민) 11,520 (58%)
노두근 (무) 8,331 (41%)

◇ 신안군

고길호
무소속 69세 동국대 자연업

남상창 (무) 4,599 (16%)
★고길호 (민) 10,548 (38%)
고길호 (무) 12,476 (45%)

◇ 경북

◇ 포항시

이강덕
새누리당 52세 고려대 단국대 초빙교수

★이강덕 (세) 141,154 (66%)
안선미 (무) 1,999 (5%)
이창권 (무) 41,128 (19%)

◇ 울릉군

최수일
새누리당 62세 대구공업대학 울릉군수

★최수일 (세) 5,264 (71%)
정태원 (무) 2,118 (28%)

◇ 경주시

최양식
새누리당 62세 리버풀대 신철직무무원

★최양식 (세) 53,853 (47%)
이광중 (무) 6,103 (5%)
최양식 (무) 28,022 (24%)
박희철 (무) 8,825 (7%)
황진홍 (무) 15,819 (14%)

◇ 김천시

박보생
새누리당 63세 경북대 김천시장

★박보생 (세) 46,598 (68%)
김정국 (무) 21,548 (31%)

◇ 안동시

권영세
새누리당 64세 경북대 안동시장

★권영세 (세) 46,447 (52%)
박정규 (무) 3,324 (3%)
이성길 (무) 35,587 (40%)
권희구 (무) 2,797 (3%)

◇ 구미시

남유진
새누리당 61세 서울대 구미시장

★남유진 (세) 82,905 (52%)
민희호 (민) 22,111 (14%)
김석호 (무) 25,094 (15%)
이재훈 (무) 27,520 (17%)

◇ 영주시

장옥현
새누리당 57세 미국 연세대에내대 정당인

★장옥현 (세) 33,241 (54%)
박남서 (무) 27,495 (45%)

◇ 영천시

김영석
새누리당 62세 연세대에내대 영천시장

★김영석 (세) 33,150 (62%)
박철수 (무) 20,161 (37%)

◇ 상주시

이정백
무소속 63세 상주대 법학

★이정백 (무) 26,945 (44%)
신백애 (무) 23,836 (39%)
김정호 (무) 10,234 (40%)
홍해선 (무) 2,785 (4%)

◇ 문경시

고윤환
새누리당 57세 연세대에내대 문경시장

★고윤환 (세) 26,298 (58%)
김명운 (무) 885 (1%)
신현규 (무) 14,571 (32%)
이우권 (무) 340 (0%)
신영진 (무) 2,789 (6%)

◇ 예천군

이현준
새누리당 59세 고려대 예천군수

★이현준 (세) 20,927 (74%)
이원자 (무) 7,205 (25%)

◇ 경산시

최영조
새누리당 59세 경북대 경산시장

★최영조 (세) 59,901 (63%)
황상조 (무) 33,956 (36%)

◇ 청도군

이승을
새누리당 62세 정라대 청도군수

★이승을 (세) 13,778 (50%)
김희수 (무) 13,681 (49%)

◇ 고령군

곽용환
새누리당 55세 영남대 고령군수

★곽용환 (세) 단독출마

◇ 성주군

김항곤
새누리당 62세 경북대 성주군수

★김항곤 (세) 15,995 (65%)
배기순 (무) 4,048 (16%)
오근화 (무) 4,442 (18%)

◇ 칠곡군

백선기
새누리당 59세 경북대 칠곡군수

★백선기 (세) 30,828 (64%)
조민정 (무) 17,152 (35%)

◇ 군위군

김영만
무소속 61세 경북대

★김영만 (무) 8,379 (47%)
장영만 (무) 9,290 (52%)

◇ 의성군

김주수
새누리당 62세 성균관대 동주산부여성대학장

★김주수 (세) 26,627 (75%)
김동호 (무) 8,840 (24%)

◇ 청송군

한동수
무소속 65세 영남대 청송군수

★한동수 (무) 10,437 (58%)
윤경희 (무) 7,540 (41%)

◇ 영양군

권영택
새누리당 51세 경북대 영양군수

★권영택 (세) 6,358 (50%)
이갑형 (무) 6,143 (49%)

◇ 영덕군

이희진
새누리당 50세 중앙대 영덕시장

★이희진 (세) 11,437 (45%)
황승원 (무) 1,214 (4%)
김연호 (무) 10,234 (40%)
윤정호 (무) 1,348 (5%)
박병일 (무) 780 (3%)

◇ 봉화군

박노욱
새누리당 53세 경북대 봉화군수

★박노욱 (세) 단독출마

◇ 울진군

임광원
새누리당 63세 경북대 울진군수

★임광원 (세) 16,939 (53%)
임영지 (민) 1,313 (4%)
김영우 (무) 5,277 (4%)
이강철 (무) 3,932 (3%)

◇ 울진군

윤상기
무소속 59세 전주농림고 하동미래연구소장

★윤상기 (무) 8,079 (24%)
이정훈 (무) 5,645 (17%)
김승철 (무) 1,437 (4%)
황충원 (무) 2,255 (6%)
양원희 (무) 6,805 (20%)
하만진 (무) 702 (2%)
이수영 (무) 6,542 (20%)
황규석 (무) 1,202 (3%)

◇ 남해군

박영일
새누리당 59세 동아대 정당인

★박영일 (세) 15,218 (50%)
문준홍 (무) 3,610 (11%)
정문석 (무) 669 (2%)
정현태 (무) 10,701 (35%)

◇ 통영시

김동진
새누리당 63세 연세대에내대 공무원

★김동진 (세) 28,455 (47%)
정태원 (무) 2,256 (3%)
박정호 (무) 4,840 (8%)
진외장 (무) 24,072 (40%)

◇ 고성군

하학열
새누리당 55세 중앙대 정당인

★하학열 (세) 13,289 (42%)
정중호 (민) 3,278 (10%)
이상근 (무) 9,786 (31%)
김태근 (무) 673 (2%)
하태훈 (무) 4,169 (13%)

◇ 사천시

송도근
무소속 66세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사대학회대표

정만규 (세) 28,826 (46%)
★송도근 (무) 33,063 (53%)

◇ 김해시

김맹곤
새정치민주연합 68세 단국대 김해시장

★김맹곤 (세) 100,379 (48%)
김맹곤 (민) 100,631 (48%)
박봉열 (무) 6,381 (3%)

◇ 밀양시

박일호
새누리당 51세 포이스트앵글리아대 정당인

★박일호 (세) 32,212 (57%)
김영기 (무) 17,850 (31%)
이태권 (무) 2,523 (4%)
이태권 (무) 3,908 (6%)

◇ 거제시

권민호
새누리당 58세 동아대 거제시장

★권민호 (세) 44,731 (45%)
김해연 (무) 37,973 (38%)
윤영 (무) 15,029 (15%)

◇ 의령군

오영호
무소속 64세 창원독야중

★오영호 (세) 7,810 (40%)
김태용 (무) 1,246 (6%)
김진호 (무) 8,822 (45%)
서진식 (무) 1,515 (7%)

◇ 함안군

차정섭
새누리당 63세 명지대 함안미래발전연구원

★차정섭 (세) 18,457 (50%)
김용현 (무) 14,628 (40%)
주정목 (무) 3,440 (9%)

◇ 창녕군

김충식
새누리당 64세 원곡3사관학교 창녕군수

★김충식 (세) 24,871 (76%)
김경준 (무) 4,819 (14%)
한영진 (무) 2,691 (8%)

◇ 양산시

나동연
새누리당 58세 동아대 양산시장

★나동연 (세) 64,213 (54%)
김일관 (민) 44,523 (37%)
김영호 (무) 5,277 (4%)
이강철 (무) 3,932 (3%)

◇ 하동군

윤상기
무소속 59세 전주농림고 하동미래연구소장

★윤상기 (무) 8,079 (24%)
이정훈 (무) 5,645 (17%)
김승철 (무) 1,437 (4%)
황충원 (무) 2,255 (6%)
양원희 (무) 6,805 (20%)
하만진 (무) 702 (2%)
이수영 (무) 6,542 (20%)
황규석 (무) 1,202 (3%)

◇ 남해군

박영일
새누리당 59세 동아대 정당인

★박영일 (세) 15,218 (50%)
문준홍 (무) 3,610 (11%)
정문석 (무) 669 (2%)
정현태 (무) 10,701 (35%)

◇ 함양군

임창호
새누리당 61세 서울사이버대 함양군수

★임창호 (세) 12,934 (50%)
서훈수 (무) 12,629 (49%)

◇ 산청군

허기도
새누리당 60세 경상대 정치인

★허기도 (세) 14,047 (67%)
이종삼 (무) 6,745 (32%)

◇ 거창군

이홍기
새누리당 55세 국립중앙대 거창군수

★이홍기 (세) 20,188 (57%)
양동인 (무) 9,355 (26%)
백신종 (무) 5,502 (15%)

◇ 합천군

하창환
새누리당 64세 합천농고 합천군수

★하창환 (세) 24,077 (75%)
박정호 (무) 4,030 (12%)
조찬용 (무) 3,972 (12%)

◇ 창원시

금융권 무더기 징계 태풍 '잔인한 6월'

10개 은행·3개 카드사 최대 400여명 예상 국민은행 내분사태 징계 수준에 관심 집중

이번 달은 금융권에 대규모 징계를 받는 '잔인한 6월'로 기억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금융 사건·사고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 대상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포함되고,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직원비리 등에 대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경남·한국씨티·한글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국민·롯데·농협카드 등에서 발생한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고의 제재도 마무리한다. 이에 제재 대상 임직원만 역대 최대 규모인 300~4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은행권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현장검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사안별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 제재심의위에 올라갈 안건을 선별하고 있어, 이달 말에 제재가 한꺼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달 제재심의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국민은행이다. 도쿄지

금융회사	주요 제재심의 대상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통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하나은행	-김승유 전 회장 미술품 구입 및 거래 특별 퇴직금 지급 -김중준 행정·성과급 지급 적정성 -KT ENS 관련 불완전판매 정황
신한은행	-불법계좌 조회
우리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파이시티 신약상품 관리 부실
기업은행	-KT ENS 관련 불완전판매 정황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국민·롯데·농협	-코리아크레딧부류(KBC) 직원 개인 정보 유출 건
SC·씨티은행	-고객정보 유출 건

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보 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징계 대상 임직원만 1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해당 점포에는 일정기간 영업

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관심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다. 내달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사태에 대한 징계도 앞두고 있어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가 나올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종합검사 결과와 함께 논란이 된 김중준 행장의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추가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KT ENS 협력업체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해 부실한 여신심사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불법계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제재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사업 신약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인철우 기자 acw@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대표 김용복 우리아비바생명 대표 김승희 우리저축은행 대표

농협, 우투 패키지 품고 4대 금융지주 급부상

(증권·보험·저축)

인수 후 총자산 290조 3개 계열사 대표이사 내정

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명실상부 4대 금융지주사로 부상했다. 현재 4대 금융지주 1위는 KB금융이다. 우리금융으로 부터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총자산이 387조6000억원이었다. 최근 인수한 KB캐피탈(옛 우리파이낸셜)의 자산 3조9000억원을 합치면 390조원을 웃돈다.

2위는 외환은행 인수로 급성장한 하나금융그룹(383조2000억원)이며, 3위는 신한금융그룹(3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위는 우투 패키지를 인수해 총자산이 290조원으로 늘어난 농협금융이 차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 및 우리신물의 손자회사 편입을 각각 승인했다.

이번 편입 승인에 따라 농협금융지주는

6월 중 우리금융지주로 부터 우리투자증권 주식 7542만주(37.85%), 우리아비바생명 1457만주(89.89%), 우리금융저축은행 1032만주(10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계열사 편입을 마무리하고 수장까지 내정한 농협금융지주는 명실상부 4대 금융지주사로 부상했다. 현재 4대 금융지주 1위는 KB금융이다. 우리금융으로 부터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총자산이 387조6000억원이었다. 최근 인수한 KB캐피탈(옛 우리파이낸셜)의 자산 3조9000억원을 합치면 390조원을 웃돈다.

2위는 외환은행 인수로 급성장한 하나금융그룹(383조2000억원)이며, 3위는 신한금융그룹(3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위는 우투 패키지를 인수해 총자산이 290조원으로 늘어난 농협금융이 차지했다.

4대 금융지주에 들어선 농협금융의 가장 큰 과제는 수익성과 이미지 개선이다. 지난해 농협금융의 순이익(자회사지분 순이익)은 2930억원에 그쳤다. 순이익 격차를 좁히기 위해 농협금융과 비교해도 3분의 1밖에 안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퇴직금, 연금수령엔 인센티브

정부가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사전연금지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 중인 사전연금 활성화 방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자 확대 △장기가입 유도 △운용수익률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6%로 OECD 국가평균(12.7%)의 4배에 이르고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42.1%)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91.6%나 돼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일시수령보다 연금전환에 따른 이연 세율을 낮춰주고 제도적으로 일시수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사전연금 활성화 방안은 부처간 조율 등을 거쳐 하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

박성영 기자 sypark@



신재운 금융위원장 미얀마 금융세일즈

신재운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통해 축적한 한국 은행들의 경험과 강점을 소개하며 국내 은행의 미얀마 지점 설립 인·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미얀마 건설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건설부 산하 미얀마 건설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한국의 주택금융 관련 법률·제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노하우가 미얀마에 전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신 위원장이 2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한-미얀마-ADB 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3609억달러 11개월 연속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이 11개월째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0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3297억1000만달러) 이후 11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한달 새 50억7000만달러가 늘었다. 2013년 10월 63억달러 증가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오름 폭이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근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외환당국이 달러 매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3301억1000만달러(91.5%)로 전월보다 40억8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10억8000만달러 증가한 200억7000만달러(5.6%),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2000만달러 줄어든 34억9000만달러(1.0%)로 각각 집계됐다. IMF포지션은 7000만달러 감소한 24억4000만달러(0.7%)였고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로 조사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4월 말 기준 세계 7위다. 그러나 최근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6위인 브라질(3667억달러)과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i@

이건호, 전산교체 논란이 불가피한 성장통?

〈국민은행장〉
"원칙따른 적법한 업무처리" 전 임직원에 사내메일 보내 노조위원장 "리더십 부족"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금융당국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전산기기 교체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은행의 심장인 업무 처리에 대한 스스로의 실재였다는 여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부의 불온 금융권 일각에서도 이 행장이 일련의 사태를 합리화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 행장은 지난 3일 전 임직원들에게 전산시스템 교체 논쟁에 대한 심경을 담은 사내 메일을 보냈다.

이 행장은 "경영진들이 내부적으로

KB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 성장통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 "논쟁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은행의 가장인 은행장으로서 여러분의 축 처진 어깨를 더 이상 지켜줄 수만은 없다"며 "제가 여러분을 믿었기에 여러분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이 행장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통'이란 단어로 문제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영대 KB국민은행노조 위원장은 "성장통에 수천억을 낭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참 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것을 수수방관하다 왜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해 IBM쪽에 끌려 다니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이 행장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교직원공제회와 이웃사촌 된 한화생명 '함박웃음'

본사 리모델링 63빌딩으로 이전 큰손 이웃에 투자자들 관심 기대

한화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수습소원의 자금을 끌리는 든든한 이웃사촌을 얻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24조원의 자금을 끌리는 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교직원공제회가 오는 10월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로 당분간 이전한다.

실제 교직원공제회는 63빌딩의 2-3개층

을 향후 3~4년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공제회가 63빌딩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여의도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본사 건물에 올 연말부터 신축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사 신축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63빌딩에 임시 터전을 옮기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 측은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임장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교직원공제회 전 부서 200여명 임직원들이 오는 10월쯤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큰손 이웃과 동거

동락하게 된 한화금융 계열사들에 대해 부러워 하는 표정이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는 수습소원의 자금을 위탁하는 슈퍼갑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든든한 이웃사촌을 얻게 된 셈이고 본사 이미지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교직원공제회로 방문하는 국내의 저명한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한화생명에도 방문하거나 관심 가질 수 있어 여러모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경자·강구규 기자 kakim@

손병옥 사장 "조직에 젊은피 수혈"

생보업계 실적악화 구조조정 속 30대 중심 영입매니저 특별채용



손병옥(사진) 프르덴셜생명 사장이 젊은 피 수혈에 나선다. 생보업계가 저금리·저성장 등 경영환경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채용을 꺼리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회사의 미래가 젊은 인재에 있다며 열정을 가진 인력을 영입해 영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 손 사장의 생각이다.

프르덴셜생명은 영업 관리자(Sales Manager) 특별채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993년 처음 실시 된 후 1999년, 2008년, 2009년에 이어 5년만에 실시된다.

프르덴셜생명 리쿠르팅 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은 영업 매니저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하면 30대 위주로 뽑아서 조직을 젊게 만들고 조직에 자극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프르덴셜생명의 영업 관리자 특별채용 프로그램은 보험영업 무경력자를 선발, 1년여 동안 훈련 후 전문 영업 관리자로 위

촉하는 내용이다. 이 영업 관리자는 설계사를 발굴하고 육성할 뿐만 아니라 부지점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한다.

프르덴셜생명은 한국시장 진출 초 기인 1993년, 보험업계 경력이 없었던 14명의 영업 관리자 특별채용 후보자를 선발했고 전임자 Agency Manager(지점장)를 역임했다.

이후 이들은 프르덴셜생명의 CMO(영업 담당인원), CEO가 되어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 특별채용 프로그램 출신자로는 황우진 전 프르덴셜생명 사장, 김세민 전 알리안츠생명 부사장 등이 있다. 현재 프르덴셜생명의 영업 관리자 수는 240명이다.

1999년 '탑건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영업 관리자 특별채용 프로그램은 통해 프르덴셜생명이 지방을 진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영업관리자 채용을 통해 프르덴셜생명은 대구, 전주, 울산 등 5개 지점을 오픈했다.

강구규 기자 kkk@

정부, 20억 달러 외평채 발행 성공

사상 최저 2%대 금리

10억달러 규모의 30년물을 포함해 20억 달러 상당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행기금채권(외평채)이 성공적으로 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30년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달러와 10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5000만달러(10억달러 상당) 여치를 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역대 최장기 채권은 2005년 10월 발행된 4억달러 상당의 20년물이었다.

외평채는 한국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외국환 평행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이번 발행은 올

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 25억달러에 대한 차환을 위해 이루어졌다.

3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은 72.5b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 4.143%(표면금리 4.125%)로 발행됐다.

정부는 한국과 국가신용등급이 유사한 칠레(109bp)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우량 채권인 AAA등급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채(72.5bp)보다도 낮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2006년 이후 8년 만에 발행된 유로화 표시 채권은 10년 만기에 57bp 가산금리 적용된 2.164%(표면금리 2.125%)다.

달러화·유로화 외평채를 통틀어 2%대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a@

롯데·신라면세점 시드니서 자리다툼

시드니공항 면세점 입찰... 내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 지난해 방문객 3790만명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 롯데, 올 초 입찰 의향서 제출... 신라도 후보군 꼽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면세점 업계 1, 2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5일 시드니공항당국 공고에 따르면 국제선인 제1터미널 6개 면세점장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선인 제2터미널 매장을 포함한 7600㎡ 구역 면세점은 12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제1터미널은 '명품' 브랜드가 입찰한 샌트랄라운지를 포함해 패션,

화장품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현 사업자인 뉴앙스(Nuance)와의 계약은 내년 1월 종료되며, 새 낙찰자는 내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운영권을 갖는다.
롯데면세점은 올 초 시드니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현 사업자인 뉴앙스, 면세점 세계 1, 2위 업체인 DFS와 하이네만 등도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 JR뉴트리, 키파워, 듀프리 등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시드니공항은 지난해 연간 방문객 3790만명 수준으로, 시드니공항 면세점은 오세아니아지역 최대 면세점이다. 지난해 매출은 터미널1과 터미널2를 합쳐 2억4700만 달러(약 25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시드니공항은 최근 중국 관광객 방문이 늘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시드니공항 방문객 중 중국 관광객 비중은 지난해 15%에 육박해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다음으로 많았다.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최근 해외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인도네시아 수카르 노히타공항점, 싱가포르 제1터미널 잡화매장 등을 운영 중이며 올해 광화문 면세점을 새롭게 개장한다. 호텔신라는 올해 1월 총 4조원대 규모의 싱가포르 창이공항 1-3 터미널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면세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전년대비 17.9% 수직상승하며 46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같은 기간 25% 증가했다.
국내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41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6조8326억원으로 전년보다 8.0%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까지 이미 매출 2조4096억원을 기록해, 추세대로라면 올해 7조2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전세계 면세점 시장 국가별 점유율 순위에서 2012년 기준 10.5%를 차지해 영국을 제치고 1위를 지키고 있다. 무디리모트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각각 세계 4위, 8위 업체로 꼽았다.
이다람 기자 zing@

자가발전 비율 높이고... 심야시간 가동 늘리고... 철강업계 여름 전력대책 돌입

여름철 요금 적용 6~8월로 연장

철강업계가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에 직면하면서, 전력 대책 마련과 시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5일 철강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적용기간이 기존 7-8월에서 6-8월로 1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 여름철 경부하 요금은 기존 1kW당 52.3원에서 54.5원, 중부하 요금은 104.7원에서 106.8원, 최대부하 요금은 184.2원에서 188.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대부하 요금 적용 시간대도 기존 11-12시, 13-17시에서 10-12시, 13-17시로 확대됐다.
일단 원전가동이 작년보다 원활해지면서 여름철 전력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가 최근 공개한 4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20개 전력사업자가 보유한 전력 설비용량은 9003만kW로 전년 대비 193만kW 증가했다. 현재 원전 23기 가운데 19기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철강업체는 철강 수요 둔화,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생산원가 증가분을 철강재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서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2011년 8% 웃돌던 국내 전기요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0.6%까지 하락했다. 업계는 전기요금 체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 발생분 약 27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전기요금체는 전력 사용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포스코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매달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포스코는 작년처럼 광양제철소의 가동률을 50%로 낮추고, 정기 설비보수를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최대부하 요금제가 적용되는 주간 시간대를 피해 경부하 및 중부하 요금제가 적용되는 심야시간에 조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포항제철소의 자가발전 비율도 기존 70-80%에서 90%까지 끌어올려 전력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설비보수를 여름철에 집중하거나 휴가를 활용하면서 생산량과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승승철 한불모터스 대표 "8월까지 워크아웃 졸업"

푸조-시트로엥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의 승승철(사진) 대표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워크아웃(기업회생 절차) 졸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승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성수동 푸조비즈니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 상반기 내 워크아웃을 졸업하겠다고 밝혔는데 채권단과의 절차상 문제로 늦어졌다"며 "늦어도 8월 말에는 워크아웃을 졸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워크아웃에서 졸업해 본격적인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상파울루서 월드컵 공식차량 전달

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상파울루 아레나에서 대회 공식 차량을 대회조직위원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왼쪽부터)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 '플레코', 안토니오 마시엘 네토 현대차 브라질 대리점 사장, 이용우 현대차 브라질(HMB)법인장,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사히맥주 가격 인하 '꼼수' 업소용 병맥주만 11.4% 내려 도매상에 혜택 시장장악 노려

수입맥주 1위 아사히맥주가 이례적으로 가격을 내렸다. 주류업계에서는 아사히맥주의 갑작스런 가격인하에 대해 최근 맥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장악력 약화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소용만 인하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제품에 대한 인harga획은 없어 결국 도매상만 배불리고 소비자들이 이번 가격인하의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사히주류는 국내에서 유통하는 '업소용' 아사히 수퍼 드라이 병맥주(330ml)의 출고가를 종전 2405원에서 2170원으로 11.4%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주류의 맥주 시장 가세로 병맥주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병맥주 판매 성장세가 둔화돼 가격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가격인하가 소비자가 인가로 직접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000원 단위로 팔고 있는 업소들이 도매가 인하에

따라 10% 가량의 인하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맥주에 대해서는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세가 둔화된 병맥주에 한해서만 가격을 인하하고 캔맥주는 종전 가격을 그대로 고수했다. 결국 롯데아사히주류는 가격인하로 도매상에게는 혜택을 줘 유통 지배력을 강화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종전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윤철규 기자 yoonck@

“코오롱-듀폰 소송 사례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겪는 하나의 과정임을 염두해야 한다.”
코오롱 항소심을 승소로 이끈 제프 랜달 변호사(사진)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지적재산권(IP)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랜달 변호사는 폴 헤이스팅스의 IP 분야 총괄 변호사로, 코오롱 대 듀폰 소송건을 진두지휘,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그는 3일 오후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년간 미국 자국기업들의 IP 보호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 재판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IP 소송 패널티를 매우 강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위기가 이후 미국기업들은 각 기업의 법무팀이 경영 지원 차원이 아니라 이유를 창출하는 수석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추세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첩보 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

코오롱 항소심 승소 이끈 제프 랜달 변호사 “해외진출 기업, IP 소송 대비해야”

오롱 대 듀폰 소송에서 미국 상무부 및 FBI가 다년간 개입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과 듀폰은 지난 5년간 치열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5년 코오롱이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해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나서자, 2009년 ‘케블라’로 시장을 석권해 온 듀폰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코오롱에 약 1조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최근 미국 항소법원은 이를 무효화하고 파기 환송했다.
그는 “해외 기업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대시킬 경우 소송이 생길 수 있다”며 “미국기업들이 자국에서 정착한 것과 비교해 빠르다면 영업비밀 침해 요소가 있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진화하는 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SKT, 中·日 여행객 대상
‘진에어 딜라이트 T로밍’
LG U+, ‘안심데이터 로밍’
KT, 집전화 통화 무제한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
종류 다양...선택폭 넓어져

고객 맞춤형 무제한 요금제

*출처: 각사 취합

구분	요금제	통신사	혜택
해외	진에어 딜라이트 T로밍	SK텔레콤	3일(2만9000원) : 데이터 무제한, 음성 30분, 문자 30건 5일(5만9000원) : 데이터 무제한, 음성 100분, 문자 100건
안심데이터 로밍	안심데이터 로밍	LG유플러스	1일(최대 2만원) : 데이터 로밍 무제한
국내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	KT	휴무한 3000(월5500원) : 통신사 구분 없이 유선간 무한통화 소호무한 3000(월7500원) : 휴무한 혜택 + KT 무선 무제한 통화
연령	T로밍 텡 무한톡 · 실버 무한톡	SK텔레콤	청소년(만 18세 이하) · 노년(만 65세 이상) : 월 5000원 데이터 로밍 무제한

제공하는 ‘진에어 딜라이트 T로밍 3일’과 데이터 무제한, 음성 100분, 문자 100건을 5일간 5만90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진에어 딜라이트 T로밍 5일’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과 일본 전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얼마전 해외에서 요금 폭탄 걱정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안심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별도의 기본료 없이 해외 데이터 로밍 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청구(9.1원/1KB)된다. 데이터 로밍 요금으로 하루 2만원을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요금제다. 이 서비스에 한 번 가입하면 다음 출국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 가입 신청서 작성 시 데이터 로밍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뿐 아니라 유선 전화도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다. KT는 이달 3일부터 집전화 통화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를 내놨다. 이 요금제는 △휴무한 3000(5500원) △소호무한 3000(7500원) 2가지로 구성돼 있다. 휴무한 3000은 통신사 구분 없이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유선간 무한 통화를, 소호무한 3000은 여기에 KT 무선으로의 통화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특히 집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요금(14.5원/10초)을 감안하면 월 최대 26만 원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단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월 3000분으로 한정한다.

이외에도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도 출시됐다. SK텔레콤이 얼마전 선보인 ‘T로밍 텡 무한톡·T로밍 실버 무한톡’은 청소년과 실버 해외 여행객들이 하루 5000원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T로밍 텡 무한톡은 만 18세 이하, T로밍 실버 무한톡은 만 65세 이상의 SK텔레콤 고객이 대상이며, 전세계 123개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모바일 게임 플랫폼 전쟁 하반기로 미룬다

게임빌·컴투스 통합 게임 ‘하이브’
“추가보완 필요” 6월 초 7월로 연기
NHN엔터 “방향 재논의” 출시늦춰

차세대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이 올 하반기부터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빌·컴투스,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카카오페이에 도전하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 출시 시기를 당초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하면서,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게임 플랫폼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공동으로 제작하는 통합 게임 플랫폼 ‘하이브(가칭)’를 7월 초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통합 플랫폼은 현재 게임빌과 컴투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인 ‘게임빌 서클’과 ‘컴투스 허브’를 합친 새로운 플랫폼이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유저 베이스를 통합 플랫폼인 하이브 한 곳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하이브를 통해 게임빌 서클과 컴투스 허브가 보유한 글로벌 회원을 통합하고, 플랫폼별로 나누어 서비싱되는 라인업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케팅 및 운영 비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양사는 전망하고 있다.

양사는 원래 6월에 통합 플랫폼을 내놓으려 했으나, 추가 보완이 필요해 7월 초에 하이브를 선보이기로 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양사가 TF를 꾸려 서로 회사를 오가며 통합 플랫폼 개발을 마쳤지만, 플랫폼 특성상 게임을 실행 어떤 오류가 나지, 어떤 마케팅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6월에 개발이 끝나지만 시장에 선보이는 것은 이르러 7월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NHN엔터는 자체 플랫폼 출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플랫폼의 방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카카오페이 모든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을 등록할 수 있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담스러운 수수료와 게임 업체들이 좋은 수익을 올리기 힘든 현재의 유통 구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며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NHN엔터 측은 “모바일 플랫폼 기획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글로벌 마켓에 출시될 소셜 카지노 플랫폼은 일정대로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셜 카지노 플랫폼은 슬롯머신, 텍사스홀덤, 포커 등 서양에서 인기 있는 게임 장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며,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 노하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달 카카오톡 게임하키의 대항마로 모습을 드러내며 걸음마를 댄 ‘밴드 게임’의 성과는 하반기 이후 측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현 기자 yhssoo@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지금 아이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해주세요

고마워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고 칭찬해주세요. 엄마에게 “고마워”란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10주년

마음을 다해 133만 아이들을 키웁니다

굿앤굿 어린이디보험

현대해상 하이플래너를 만나보세요. T 1588-5656 / www.hi.co.kr

- ▶ 어린이 질병률이 높은 주요 CI 대비 - 다발성 소아암 / 중증 광상 및 부식 등에 대한 집중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 유치부터 연구차까지 치료료 보장 - 차이에 대한 보존 / 보철치료(해당 특약 가입 시)
- ▶ 다양한 보장으로 맞춤형 설계 가능 - 저체중아 입원일당 / 폭력피해 / 시력교정 / 부정교합까지 대비(해당 특약 가입 시)

(2013년 10월 굿앤굿어린이디보험 보유계약 133만 건 기준)

SK Telecom

‘T전화’가 제공한 안심과 편리성에 100만 고객 매료됐다!

SKT ‘T전화’ 100만명 돌파 SK텔레콤은 지난 2월 선보인 ‘T전화’ 가입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T전화의 대표 기능인 안심통화는 다른 이용자가 등록된 전화번호 평가를 공유해 해당 번호의 수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 피싱방지 기능이다. T전화 이용 가능 단말기는 현재 삼성 갤럭시S5, LG G3, 팬택 베가이아 이연 등 총 10종이다. 사진제공 SK텔레콤

LG U+, 4배 빠른 ‘3밴드 CA’ 시연 성공

연내 지원 스마트폰 출시...서비스 제공

시되면 광대역 LTE 구축지역에서 보다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서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CA(Carrier Aggregation)’ 시연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가 시연에 성공한 3밴드 CA는 2.6GHz 광대역 LTE와 800MHz와 2.1GHz LTE 대역을 묶어 최대 300Mbps 속도를 제공한다. 실제 고객들이 사용중인 네트워크에서 3밴드 CA를 시연한 것은 LG유플러스가 세계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기술은 3개의 LTE 주파수를 연결, 대역폭을 넓혀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연내 3밴드 CA 지원 스마트폰이 출

시되면 광대역 LTE 구축지역에서 보다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광대역 LTE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기지국 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3밴드 CA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SD본부 최택진 기술전략부장은 “이번 상용망 시연 성공은 LG유플러스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력과 혁신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달 영국에서 개최된 GTB(Global Telecoms Busines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3밴드 CA로 무선 네트워크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KT, 1년3개월 만에 가입자 늘었다

지난달 단독영업 성과 12만명 순증



록해왔다.

KT가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에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지난달 단독영업과 스핀오프, 저가단말기 출시 등이 맞물려 약 12만 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KT는 5월 한달 동안 경쟁사로부터 36만2331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24만2890명의 가입자를 내줬다. 가입자가 총 11만9441명 늘은 셈이다.

KT가 월간 번호이동 기준으로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2월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업계 간 경쟁과 영업정지 등이 겹치면서 출몰 가입자 순증을 기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26만5041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38만7400명을 잃었다. LG유플러스도 16만1033명의 가입자를 얻었지만, 23만5753명을 내줬다. 결국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2만2359명, 7만4720명 순감했다. 업계에선 KT의 호실적을 순차 영업정지 기간중 가장 먼저 영업을 재개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영업재개에 나섰다. KT는 이달보다 3주 빨리 영업에 나섰다. 김범근 기자 nova@

제주·대구 경매시장 고가낙찰 수두룩

제주 땅 투자 활황 지난달 낙찰가율 124.5%... 주택 100.9% 대구 치솟는 전세가율에 수요자 경매로... 한건당 11명 입찰

지방 부동산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등 지방 주요 도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90~100%를 웃도는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 경매 활황을 이끄는 곳으로 단연 제주도가 꼽힌다. 지난달 19일 제주도 용강동의 1만1378㎡ 규모의 밭은 두 번 유찰된 후 3명이 응찰해 감가가 8억9157만원보다 무려 35.8%나 높은 12억1110만원에 낙찰됐다.

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토지의 낙찰가율은 124.5%로 지난 2008년 9월(163%)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토지 낙찰가율(63.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제주도 토지 경매는 최근 1년간 지난해 7월(100.4%)과 8월(113.9%), 9월(104.5%), 10월(100%), 11월(103.3%), 그리고 올 2월(113.1%)과 4월(108.8%), 5월(124.5%) 등 총 8회에 걸쳐 낙찰가율이 100%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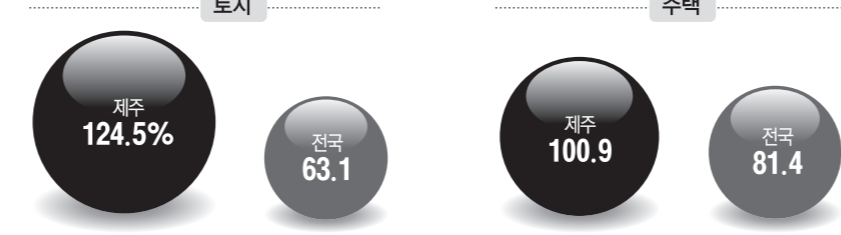
주택 역시 이달 낙찰가율 100.9%를 기록하는 등 올 3월(90.8%)을 제외한 월별 낙찰가율이 모두 100%를 넘겼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신진 조희 수 10위 안에 제주도 경매물건이 5개 이상일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제주도 투자 활황세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 수가 줄고 있어 당분간 입찰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워 대구 역시 경매 시장이 활황이다. 지난달 대구의 아

전국vs 제주 5월 낙찰가율 통계

*지역: 전국, 제주 *대상: 주택, 토지 *기간: 2014년5월1일~5월27일 *출처:지지옥션



파트 평균 낙찰가율(감가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1.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인 86.9%보다 14.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를 넘기고 있다.

물건 하나에 평균 11명 이상이 입찰하며 전국 평균인 6.2명의 두 배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낙찰률 역시 6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모두 42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돼 27건이 낙찰됐다.

대구 아파트 경매 시장의 열기가 뜨거

운 원인으로는 물량 부족과 높은 전셋값 등이 꼽힌다. 대구에서는 2005~2007년 대구도 분양이 이뤄졌지만 미분양이 속출해 한때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는 등 건설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후 공급 물량이 2008년 3만2942가구에서 2009년 1만5711가구, 2010년부터는 1만 가구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이후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강영관 기자 kwan@

한강시네폴리스 '탄력'

2조 사업비 김포의 역점 사업 산업단지개발 규제 개선 효과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이 지난 달 사업자가 선정된 데 이어 정부 산업단지개발 규제 개선 조치로 인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김포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인해 용지별 입주업종 제한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입주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산업, 지원, 공공시설 등 용지별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입주업종이 복합 용지 도입으로 입주업종 확대는 물론 기반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 업종 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 진행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고층을 향산리와 결포동 일대 230만8937㎡에 오는 2018년까지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 2차 구간으로 나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입지적으로 상암DMC, 한류월드 등 주변 영상산업단지와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전용 85㎡ 전셋값 1250만원 '경중'

올들어 5개월만에 3.3㎡당 48만원... 동작구 79만원 최고

아파트 전셋값 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3㎡당 48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5개월 사이 전셋값이 125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당 평균 전셋값은 371만9000원으로 작년 말(357만2000원)보다 14만

7000원 올랐다. 올해 들어 4.1% 상승한 수치다.

구별로는 동작구가 3.3㎡당 79만7000원(6.8%)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마포구(77만9000원, 6.1%), 서초구(72만9000원, 4.1%)가 2·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 68만3000원(5.4%), 용산구 65만9000원(4.8%), 중구 65만원(4.9%), 영등포구 63만6000원(5.7%), 광

진구 62만6000원(4.7%), 구로구 62만원(6.5%), 동대문구가 58만9000원(5.8%) 올라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전용 85㎡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5개월 새 동작구 2052만9000원, 마포구 2006만7000원, 서초구가 1877만7000원 가장 올랐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아파트 ㎡당 평균 전셋값은 577만5000원으로 전용 85㎡ 아파트의 전세를 구하려면 4억9087만 5000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관 기자 kwan@

올 하반기 입주물량 14만5000가구

작년보다 3만6020가구 늘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4만 5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올 상반기보다는 4.4% 늘어난 물량이다.

5일 닷터아파트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235개 단지, 14만5131가구로 조사됐다. 작년 동기와의 비교해 3만6020가구 증가한 물량이며 올해

상반기보다 6177가구 증가한다.

연간으로는 2010년 15만2493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는 아파트(임대 포함), 주상복합 아파트 기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만 1301가구(이하 작년 대비 1만4964가구 증가)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2만7532가구(2414가구 증가) △기타 지방중소도시 5만6298가구(1만8642가구 증가) 등이다.

월별로는 8월이 3만3637가구로 가장 많

고 이어 9월 2만8204가구, 12월 2만7073가구 순이다. 반면 7월은 1만5877가구로 가장 적었다. 수도권은 올 상반기보다는 6060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이 같은 입주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입주물량의 61.6%인 3만 7762가구가 공공물량이며 이 중 임대(공공·국립·영구임대 등)가 1만5802가구를 차지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전세물량은 증가분에 비해 적을 전망이다.

한편 대형건설사들은 5월말까지 4만 8000가구를 공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한 수치이다.

박태진 기자 tipjoo@

인기 많은 소형, 고가낙찰 피하려면

해당지역 급매물과 가격 비교... 등기부등본 거래금액 체크 필수

최근 경매시장의 대세는 소형 아파트다. 이런 가운데 경매의 장점을 외면한 어이없는 고가 낙찰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매의 경우 일반 매매에 비해 인도·인수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고려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 정석이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급매물과 비교하는 것은 빠질 수 없다.

만약 거래 사례가 드물거나 호가 위주의 시세만 있을 때에는 동·호수·층·방향 등에 따라 뜯어보아야 하는 시세를 정확히 가능

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거래 금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중개업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최근 거래된 아파트 사례를 확인, 등기부등본을 직접 조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나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해 참고하는 것도 고가 낙찰을 피하기 위한 확인 작업 중 하나이므로 빼놓지 말아야 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대지 (㎡)	대지 (평)	건물 (㎡)	건물 (평)	감정가 (원)	최저 입찰가(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 계	사건 번호
아파트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 116 동 6층 604호	41	12.3	85	25.7	400,000,000	256,000,000	64.00%	6월 30일	북부5	2012-15428
아파트	서울 강동구 길동 54 명일동산 69-1,260-2 삼익파크맨션 506 동 12층 1206호	39	11.8	72	21.9	330,000,000	211,200,000	64.00%	6월 30일	동부1	2013-17166
아파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0, 구로동 614-95 마성 7층 308호	44	13.4	84	25.3	320,000,000	256,000,000	80.00%	7월 01일	남부5	2013-93339
아파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50 힐스테이트 2단지 210동 2층 203호	40	12.1	84	25.5	940,000,000	752,000,000	80.00%	7월 02일	중앙6	2013-33837
아파트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성동구 금호동271 1209 약수하이츠 106동 12층 1205호	50	15.1	115	34.8	670,000,000	536,000,000	80.00%	7월 03일	중앙4	2013-43865
아파트	경기 시흥시 은행동 599 우남 105동 14층 1403호	42	12.7	85	25.6	275,000,000	192,500,000	70.00%	7월 03일	안산4	2013-3616
아파트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공리 520 평택영화빌라아임 206동 5층 504호	64	19.2	85	25.7	210,000,000	147,000,000	70.00%	6월 30일	평택5	2013-10862
아파트	경기 광명시 철산동 367 철산 한신 112동 7층 704호	48	14.5	130	39.2	450,000,000	315,000,000	70.00%	7월 03일	안산3	2014-2412
아파트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2-1 한 국 103동 15층 1503호	33	9.8	85	25.6	187,000,000	130,900,000	70.00%	6월 27일	인천25	2013-74556
아파트	인천 서구 감람동 512-2 동림 아이원차 405동 2층 204호	53	15.9	85	25.7	220,000,000	154,000,000	70.00%	6월 30일	인천9	2014-2435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 116 동 6층 6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2년 준공된 18개동 1668세대의 단지로 해당 물건은 21층 건물 중 6층이다.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죽구장, 이마트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고 창일중, 창일초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감가가 4억9000만원에서 2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56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6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 사건번호 2012-15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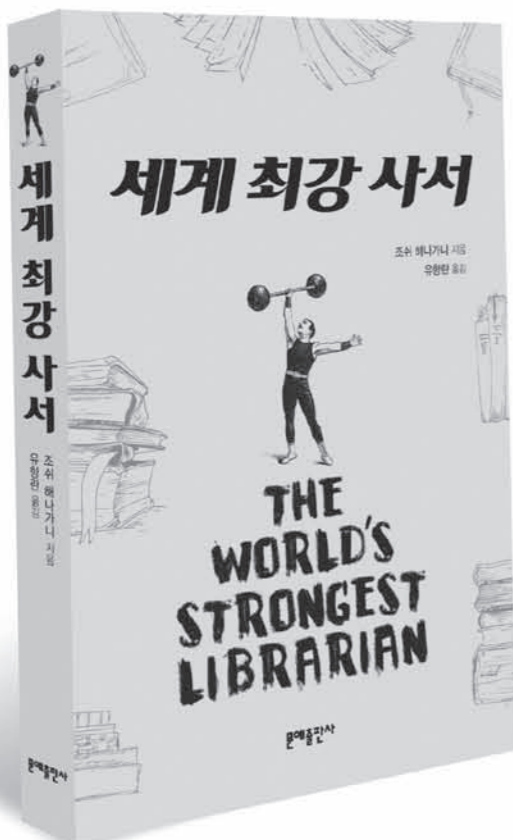
◇서울 강동구 길동 54, 산1-1, 산3-2, 명일동산69-1, 260-2 삼익파크맨션= 서울 강동구 길동 54, 산1-1, 산3-2, 명일동산69-1, 260-2 삼익파크맨션 506동 12층 1206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3년 준공된 12개동 1092세대의 단지다. 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다. 최초감가가 3억3000만원에서 2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 112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6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 사건번호 2013-17166.



◇경기 시흥시 은행동 599 우남= 경기 시흥시 은행동 599 우남 105동 14층 14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에 준공된 5개동 346세대의 단지로 해당 물건은 18층 건물 중의 14층이다. 주변에는 롯데근린공원, 은행근린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최초감가가 2억75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1억925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계, 사건번호는 2013-3616.

강영관 기자 kwan@

운명적인 시련을 가족의 사랑과 웃음의 힘으로 극복해낸 기적 실화!



세계 최강 사서

조쉬 해나가니 지음 | 유희란 옮김 | 392쪽 | 13,800원

중증 투렛 증후군의 아픔을 책에 대한 열정과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해나가는 한 행복한 사서의 감동 스토리

오프라 윈프리 추천도서

아버이라는 존재, 우정, 결혼, 그리고 이 책의 저자와 가족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기적을 슬프고도 애절하게 노래한 원대하고 감동적인 비가(悲歌). 한번 잡으면 절대로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하고 또 완벽한 보석 같은 작품.

— 팸 알린(What to Read When의 저자)

이 책을 읽으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웃고 배우라. —(워싱턴 포스트)

두려움을 모르며 유쾌한 책. —(뉴욕거)

고집의 힘에 대한 감동적이며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피플)

통찰과 유머, 은혜와 경이로 가득 찬 놀라운 이야기.

— 엘리자베스 손(Sweet Hearts의 저자)

정말로 재미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매혹적인 회고록.

— 조 렌스데일(Edge of Dark Water의 저자)

재미있고 진지하며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이로운 휴먼 스토리.

— 루 솔러(New Rules of Lifting의 공동 저자)

조쉬 해나가니는 도서관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오로지 이런 책들 덕분이다. 《세계 최강 사서》야말로 독서의 즐거움이다.

— 크리스 길아보(The \$100 Startup의 저자)

이 회고록은 앞으로 오랫동안 당신의 가슴 깊이와 닿을 현대의 고전으로 풍요롭고 지혜롭고 중요한 책이다. 조쉬는 그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웅장한 사람이다. —세스 고딘(Linchpin의 저자)



JOSH HANAGARNE

G2 사이버싸움에...새우등 터진 IT공룡

中, 인민장교 해킹 혐의 기소되자 美기업 견제 나서 CCTV·인민일보 "MS·구글 등 스파이 노릇" 비판

미국 IT기업들이 주요 2국(미국·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가 됐다. 중국 관영 CCTV가 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정오뉴스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 윈도8의 보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CCTV는 중국 정부가 최근 조달대상 품목에서 윈도8을 제외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MS가 윈도8을 통해 전화번호와 은행 계좌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S를 지배하는 사람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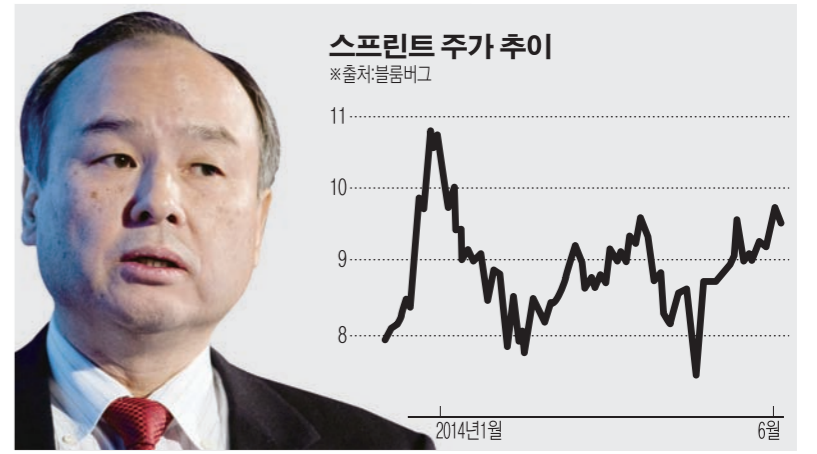
강조했다. 뉴스에 나온 한 중국 전문가는 "MS가 미국 정부와 협력해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CTV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을 받드 시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WSJ는 전했다. CCTV가 제품 사후서비스(AS)와 품질 불량 문제를 지적해 애플과 폭스바겐 등이 정책을 바꾸거나 리콜을 시행하기도 했다. 중국은 MS가 윈도XP의 보안 업데이트를 종료해 기존 PC의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놓이자 지난달 정부 조달품목에서 윈도8을 제외시켰다.



중국 관영 CCTV가 4일(현지시간) 정오뉴스에서 MS 윈도8의 보안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출처 CCTV 캡처

미국이 지난달 전격적으로 해킹 혐의를 적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을 기소하고 수배 대상에 올리자 중국에서 미국 IT기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비록 윈도8 제의 결정이 미국의 기소 전에 이뤄졌으나 CCTV가 이 견제를 들어 MS 비판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등 앞으로 많

은 IT기업들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중국 인민일보도 이날 "구글과 애플 등 미국 IT서비스업체들이 중국 사용자에 사이버보안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정보를 빼내는 주요 루트"라고 경고했다. 특히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정보수집 스킴을 폭로하는 등 사이버안보 이슈로 시스코 시스템스와 IBM 등의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 내 활동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 등은 지난달 말 은행과 정부 기관에 현재 사용하는 IBM 서버를 자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이들 서버가 금융 안정에 위협을 미치지 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이통사 3위 스프린트, 4위 T-모바일 인수 임박 손정의 '통신제국' 눈앞

인수액 50%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절반은 주식으로 도이체텔레콤 지분 처리 후 오는 7월 공식 발표할 예정

면 T-모바일의 가치는 313억 달러를 인정 받는 셈이 된다. 현재 T-모바일의 부채 145억 달러와 현금 55억 달러 등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기업가치는 4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가 임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는 인수 금액과 자본구조 그리고 계약이 파기됐을 때의 비용과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스프린트는 업계 4위인 T-모바일에 인수액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식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모바일의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는 도이체텔레콤은 최소 40달러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스프린트는 30달러 후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이체텔레콤은 또 합병 기업의 지분 15%를 보유할 전망이다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주당 39달러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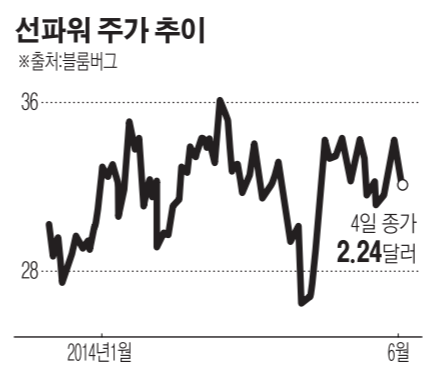
그동안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와 관련해 독점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찬성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달 일부 FCC 위원이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가 성사되면 글로벌 통신제국을 건설하려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프트뱅크는 스프린트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날 스프린트의 주가는 장중 1% 하락한 94달러를 기록했으며 T-모바일 인수 임박 보도가 전해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3% 상승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n@

美, 中 태양광기업에 '관세 부과'... 관련株 희비

솔라월드 청원서 제출 받던 美 "패널에 최대 35% 부과" 中 "무역보호주의 행위" 반발 잉그린 4%↓ 선파워 7%↑

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독일 솔라월드의 미국 자회사인 솔라월드인더스트리아메리카의 청원이 발단이 됐다. 솔라월드는 일부 중국 태양광장비업체가 타이완 등에서 태양전지부품을 출하하는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위기 이후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이 둔화되고 생산은 늘면서 태양광산업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등 G2는 물론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태양광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솔라월드가 청원서를 통해 언급한 태양광패널업체 트리나솔라라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실망했다면서 태양전지 생산의 아웃소싱과 관

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 태양광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제품 수입 규모는 1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의 31억20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2015년까지 태양광패널 생산량을 35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중에서 거래되는 중국과 미국 태양광패널업체들의 주가는 등락이 엇갈렸다. 중국 잉그린에너지홀딩가 4%, 트리나솔라가 4.5% 하락한 반면 미국 퍼스트솔라가 3.9%, 선파워의 주가는 7.0% 상승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n@



美연준 경기평가 '베이지북' "소비·고용시장 호조 보통서 완만한 성장"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미국 경제가 '보통에서 완만하게(Modest to Moderate)' 성장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연준은 이날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베이지북은 "소비지출이 모든 지역에서 확장했다"면서 "고용시장 환경도 전반적으로 강해졌다"고 밝혔다. 12개 지역 준비은행 중 7곳이 완만한 성장을 보고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연준은 밝혔다. 제조업 활동 역시 미국 전역에서 확장했고 운송 부문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베이지북은 밝혔다. 이날 베이지북 내용은 재닛 옐런 의장의 경기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지북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개회 2주 전에 발표하는 경기평가 보고서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17일부터 이를 동안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현재 0-0.25% 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채권매입 규모는 3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n@



텐안먼 25돌 희생자 추모 4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중국 텐안먼 민주화 운동 25주년 기념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 사진을 들고 서 있다. 이날 텐안먼 사태 재평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홍콩·대만 등지에서 열렸다. 타이베이/EPA연합뉴스

아마존, 3D 스마트폰 이달 18일 공개?

특수안경 없이 영상 지원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아마존의 스마트폰 사업이 마침내 베일을 벗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마존은 4일(현지시간) 동영상 사

트 유튜브에 신제품 티저광고를 게재하고 오는 18일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제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CNN머니가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제품이 3D 영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사가 공개한 티저 광고에서는

신제품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제품에 대한 추측이 한층 더 증폭됐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아마존이 특수 안경이 필요없이 3D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어떤 각도에서 보든 스마트폰 상의 스크린에 뜬 이미지가 3D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8@

글로벌 리포트

EU, 리투아니아 유로존 가입 승인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가입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가입 승인으로 리투아니아는 19번째 유로화 사용 국가가 됐다. 가입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올리 렌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리투아니아의 재정 정책은 신중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로화 사용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기르다스 부트케비시우스 리투아니아 총리는 "유로존 가입이 리투아니아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투아니아가 유로화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은 모두 유로존에 합류하게 됐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2011년, 라트비아는 올해 1월 각각 유로존 국가가 됐다.

한편 54%의 응답자는 자신들이 부모 세대에 비해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설문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에런 쿠리어 퓨자선기금 이코노모비리티프젝트 책임자는 "미국인들의) 비판적 인식은 많은 가구가 처한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소득이 늘었지만 이는 맞벌이가 늘었기 때문이며 저소득도 낮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 학자금 역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쿠리어 책임자는 덧붙였다.

미국인 60% "아메리칸드림 불가능"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아메리칸드림'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머니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머니는 '아메리칸드림'을 통해 10명 중 6명의 응답자가 이같이 밝혔다. 전하고 특히 젊은층의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18-34세의 응답자 중 63%가 꿈을 이루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8-34세의 응답자 중 63%가 꿈을 이루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8-34세의 응답자 중 63%가 꿈을 이루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8-34세의 응답자 중 63%가 꿈을 이루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3선 성공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시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8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선에 성공했다고 4일 자라드 라함 시리아 국회 의장이 밝혔다. 라함 국회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알아사드가 압승을 거뒀으며 하산 알누리 후보는 4.4% 마헤르 하자르 후보는 3.2%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총 1584만 5575명의 유권자 가운데 1163만 4412명이 선거 참여해 투표율이 73.42%에 달했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4번째 내전이 이어진 시리아에서 반군이 점령한 북부와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 알아사드 정권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만 유효해 대선 투표가 벌어졌다. 이에 반군 측은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12년 헌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수 십 년 만에 처음으로 3명의 후보가 대선에 나섰으나 알아사드의 3선은 일찍이 예견된 결과였다. 한편 알아사드가 3선으로 권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내전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행 치달는 스포츠투토 사업자 선정

체육공단, 조달청에 “웹캐시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해달라” 현사업자에 사업 연장 요청...“특정 업체 사전 낙점” 의혹도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인해 사업 연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부실 사업 기획과 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일 현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투토(주)에 8월 29일까지 사업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예정된 신규 사업자의 수탁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스포츠투토 사업은 내달 3일부터 새 수탁사업자인 웹캐시 컨소시엄에 이관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단이 조달청에 웹캐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요청하면서 수탁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조달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를 수요기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웹캐시 관계자는 만약 조달청이 공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경우 가져보 소

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업체들 사이에서는 ‘공단이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낙점해 놓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안서상 일부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는 온라인·전자·인쇄 통합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제안에 다소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을 이끌어냈다.

공단이 웹캐시 컨소시엄의 자격을 문제 삼았던 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를 간의 일관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입찰에 참여했던 6개 컨소시엄 중 오백 컨소시엄을 제외한 5개 컨소시엄 모두가 금액을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떤 컨

소사업이 선정됐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오백 컨소시엄이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차기 스포츠투토 사업 출범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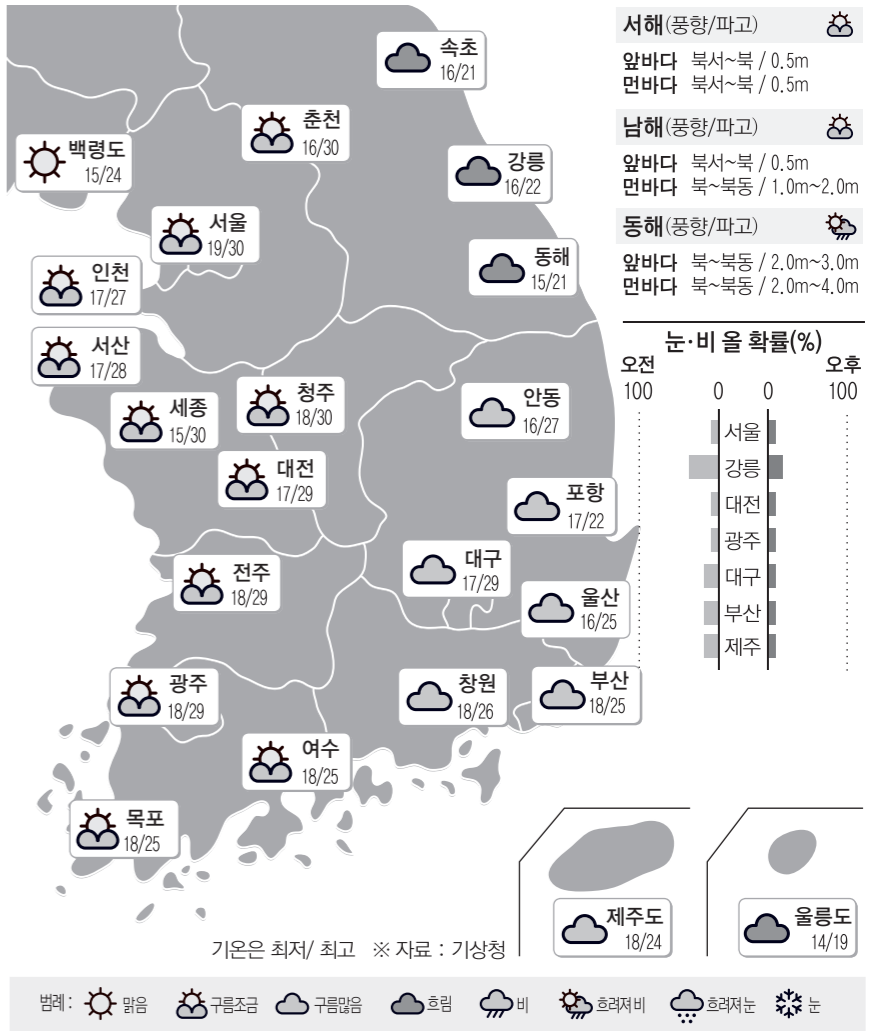
차기 스포츠투토 사업을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사업 연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공단의 부실 사업 기획이 스포츠 배팅 사업의 매출 정점 호기인 월드컵 시즌을 사업자 교체로 시간만 낭비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웹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협상이 보류된 상황이다.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조달청에 판단을 요청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내일의 날씨 6월 6일 ☀ 해돋이 05:11 해질 19:51 🌙 달출 12:43 달짐 00:37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구름많다가 오전에 점차 맑아지겠으나 강원도영동과 경상남북도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9도, 낮 최고기온은 20-3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먼바다와 동해전해상에서 1.5-4.0m로 높게 일다가 동해중부전해상에서는 오후에 조금 낮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공정위 ‘입찰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40억

검찰 고발 빠진 ‘숨방망이’ 처벌 논란

사전별 조치 달라 공정성 도마위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담합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립산업과 성지건설의 썬파미를 추가로 잡아냈다. 하지만 과징금 40억여원을 부과했을 뿐 올해 들어 내려진 다른 제재조치와 달리 검찰고

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숨방망이’라는 뒷맛을 남겼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한 대립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업체의 합의로 성지건설이 들

리 입찰을 한 결과 대립산업은 예정이 509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를 투찰율 95%(483억78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번 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검찰고발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사금액 규모가 크지 않고 관련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행정제재만으

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인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담합 사건에서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사건의 공사금액과 과징금 규모는 이번 사건보다도 적었으며 관련업체도 2개로 같았다.

사전별로 조치가 다른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사건들의 경우 카르텔 조사국 내의 공공입찰담합과에서 처리한 사건인 반면 이번 사건은 카르텔총괄과에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을 두고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담합근절의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동화은행 불법대출’ 주범 16년만에 재판에

형진건설 사장 美 도피끝 귀국

1990년대 말 동화은행 불법대출·로비 사건의 주범인 형진건설 사장 최상만(57) 씨가 무려 16년 만에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회사가 부도나자 지난 1998년 6월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특별수사1부(김후근 부장 검사)는 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6년 11월 서

울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명판 등을 위조해 만든 허위 담보서류로 동화은행에게서 1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동화은행 관계자들에게 대출사례비를 뿌린 혐의도 있다.

중견 건설업체였던 형진건설은 이듬해 4월 부도를 냈다. 검찰이 1998년 퇴출당한 동화은행의 부실대출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진건설의 각종 로비 혐의가 포착됐다.

최씨는 지난달 중순 미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자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최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붙잡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힘있는’ 기관이 민사재판할 때 제출문서 확대

사법정책자문회 개선안 일반인 정보 부족 보완

앞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대기업 등 일명 ‘힘있는’ 기관이 일반인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관련 ▲증거 채택·불채택(제부)의 기준 마련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 제출 확대 ▲법원 제출서류의 표준화 ▲합의부 관할기준 역수 상향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 대기업 등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제출명령이 확대된 것이다.

문서제출명령은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제출을 명령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을 확대한 것은 일반인이 정부나 대기업과 맞설 때 겪는 정보 편중·부족의 문제점을 줄이는 한편 소송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민사 합의재판부에 해당하는 소송 기준액(사물관할 기준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투표 완료... 떠나자 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휴대전화 로밍서비스 등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민간 출신 개방직 공무원 임기 늘린다

임용기간 1년 연장해 ‘최소 3년’ 우수 인재 공직 진출 유도키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안건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 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중앙인사관장직 산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운영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계획은 세월호 참

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직(관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파업 철도노조 조합원 직위해제는 부당”

서울노동위 3676명 구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

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5일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코레일이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

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태도의 문제일 뿐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외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과 파면·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이 계속됐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해군 차기 호위함에 짝퉁 부품 징역 3년

방산업자 독일 정품 위조 혐의

울산지법은 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부품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제품증명서와 함께 납품한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군함 핵심부품인 유압공급장치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2010년 해군의 차기 호위함과 차세대 상륙함에 납품하는 유압공급장치 중 가변용량 펌프 등을 계약서에 명기된 독일 회사의 규격품 대신 엉터리 제품을 납품하고, 이 과정에서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호위함의 유압공급장치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 펌프 등을 같은 방법으로 납품해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의 검찰 기소 내용에는 1차 납품업체 임원에게 납품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독일 정품 대신 국내의 출처 불명의 부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비엔비코퍼레이션 “신입 초봉 2400만원”

여성직장 재탐색

전자제품 도매... 소품물 관리

전자제품-컴퓨터 도매 유통회사 비엔비코퍼레이션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인터넷 소품물 관리가 주 업무로 회사는 종합 소품물과 자체 소품물을 운영 중이다.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중 선택 가능하다. 근무처는 경기 화성시 병점

동이다.

회사는 오픈마켓 운영관리 경험자·웹디자인 경험자·독립소품물 운영 경험자 등을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또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여성우대,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출신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연봉은 2400만원이며 면접 후 재조정할 수 있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중식이 지원되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혜은 기자 euna@

장세영의 서울 숨은그림 찾기 이태원 우사단길

매달 마지막 토요일 '계단장' 놀러오세요

이태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트렌디한 레스토랑? 럭셔리한 편집숍들? 최근 유행하는 클럽? 그것만 알고 있다면, 진짜 이태원의 재미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사단길은 조선 태종 때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세운 우사단에서 유래했다. 이 길에는 서울에서 유일한 이슬람 사원이 있다. 사원 인근에는 터번이나 히잡을 쓴 이슬람계 아프리카계, 중국계 외국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태원 계단장은 조그만 동네 베품시장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슬람사원 뒤편 계단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자신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나 쿠기 등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장이 열리는 주말이면 우사단길 주변이 구경꾼들로 왁자지껄하다.

우사단은 계단장 외에도 그들만의 취향과 독창적 아이템으로 무장한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타투가게, DJ교습소, 헬크로마 등 평소 다른 동네에서 접하기 힘든 우사단에서만 볼 수 있는 가게도 많다.

이런 문화적 공간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서울 삼성동, 서촌(세종마을), 흥대 인근 연남동 등이 그랬고, 지금은 우사단에도 밀어닥칠 기세다.



부동산 광풍이 이 짧은 공간만은 피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타임스 포토뱅크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부국장 겸 문화부장

대한민국은 사건사고 공화국 그 자체다. 선박사고, 대형 화재사고, 붕괴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삶의 질조차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추한 욕망을 드러내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과 탐욕의 공직자와 관료, 정치인들로 인해 꽃도 피우지 못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탐욕과 무능으로 얼룩진 관료와 정치인, 관피아의 자리 지키기로 인해 수많은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반대의 그림을 떠올려 본다.

“하와이의 노을을 바라보는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황홀했다. 서서히 햇빛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 노을처럼 모

패티김·박지성의 아름다운 은퇴와 추한 관피아

두의 기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겠다고 결심했다. 옛날과 똑같이 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떠나자고 마음먹었다.

“무엇이 다음 시즌을 버티기엔 안 좋은 상태였다. 그래서 은퇴를 결정했다. 축구선수로서 더 이상의 미련은 없다. 충분히 즐겼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급류용퇴(急流勇退)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미련을 갖는 관직을 버리고 물러가는 것이 급류를 건너는 것과 같은 용감함을 뜻하는 말이다.

지 않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사건사고 공화국으로 전락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엄청난 사건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인 자리를 보전하려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전긍긍한다.

이들에게는 애당초 아름다운 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한 자리 보전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탐욕과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자리 보전이 대재앙을 낳고 있다.

오랫동안 국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던 패티 김과 박지성은 은퇴시기를 미루며 높은 인기와 팬심을 활용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다.

knbae@

온라인 외출와글 삼겹살·치킨값 급등...여름 영양보충 어찌라고

○삼겹살과 치킨 등 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4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10.81로 2011년 9월의 111.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여자지만 왜 명품을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차 가격과 맞먹는 가방도 적지 않구나. 다이아몬드라도 박했으면 모를까, 차랑 가격과 맞먹는 건 심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명품 브랜드가 일제히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백화점에 사재기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다.

사치품이라고 불려야, “허영심의 노예, 대한민국,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저런 데 쓰고 싶나”는 의견도 내놓았다.



- ① 유병언 망명신청 타진한 '의명의 인사' 누구?
② 6.4 지방선거 20대 투표율, 사전투표 성적 뛰어넘을까
③ '세월호' 안산, 잠정투표율 48.1%...1995년 이래 '최고'
④ 정몽준 사실상 패배 인정...'성원에 보답' 못해 송구?
⑤ '생애 첫 투표' 참가 아이돌 스타들 투표 인증샷 공개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완전체로 컴백한 '제국의 아이들'



배국남닷컴은 3일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을 만났다. 제국의 아이들은 이날 미니앨범 'First Homme (퍼스트홈)' 쇼케이스를 열고 약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Advertisement for '아이타올(주)' (Itowel Co., Ltd.) featuring images of towels and the word 'SPRING'. Includes website URL www.itowelmall.co.kr, ISO 9001 certification, and contact number 02) 755-1091.

正論

피크타임 전기요금 인상하라

날씨가 더워지니까 걱정이 앞선다. 전력대란 이야기다. 벌써 이렇게 더운데 8월 한 더위는 대단할 것 같다. 이제 어디 가나 에어컨 없는 곳이 없으니, 그것들을 모두 틀어대는 날에는 전기가 모자라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과부하가 걸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닥칠까봐 걱정이다.



김 정 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마켓토리 대표

대상이 된다. 공무원들은 여름만 되면 전력소비를 줄인다고 에어콘을 못 틀고 부채질로 더위를 식혀야 한다.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에게는 조업을 중단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미봉책들이다. 이렇게 원시적이고 아슬아슬한 땀집 처방으로는 블랙아웃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요금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 심지어 전기의 원료인 기름보다 전기가 더 싼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을 돌리는 기업이나 온실, 양계장 같은 곳들도 기름보다 전기를 예나저로 쓰는 일이 빈발한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이런 모순이 해결된다. 특히 한여름과 한겨울과 같은 피크시간대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에어컨을 틀 수 없다. 또 소비패턴 자체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대형빌딩이나 기업들에서는 인버터 같은 전기 절약 장치들을 설치해서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이다. 또 전력이 남는 시간에 비축해 두었다가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너무도 뻔한 답이다. 문제는 아무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하면 시민단체며,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전력의 적자는 끝도 없이 늘어나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소동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요금인상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한 전 담당자들에게 호통만 치는 비겁한 정치인들은 본인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전력대란 위기가 사라지더라도 한다는 말인가. 요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해 온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더 문제가 크다.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위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블랙아웃이 닥치더라도 당장 전기를 켜고 쓰는 것이 더 나쁘다는 말인가.

정치인도, 학자들도, 시민단체도 모두 대중에게 아부만 한다. 아무리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것이라 해도 '틀린 것은 틀렸다' 해야 할 텐데, 무조건 '지당하십니까'만 외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올해도 전력대란을 걱정해야 한다. 올해도 운에 맡겨야 한다. 에어컨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름이 시원해질 바랄 뿐이다.

스타 에세이

연기하는 즐거움



김 영 민 배우

안녕하세요. 배우 김영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후 11년 만에 김기덕 감독님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일대일'은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단면을 적나라하게 들춰낸 영화입니다. 김기덕 감독님은 해외 영화제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권력에 고통 받고 상처 받는다면 누구나 갈게 외방을 수 있는 작품이예요. 다행히 이번에 '일대일'이 제11회 '베니스 데이즈' 개막작으로 초청됐습니다. 정말 기뻐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일대일'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준 것에 대해 참여한 배우로서 뿌듯하고 1인8억이어서인지 그 기쁨은 8배 그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1인8억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리딩 때 대본이 바뀌었습니다. 김기덕 감독님께서 '알아서 해'라고 한 마디 했는데 그 말이 무섭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했습니

다. 내면 연기를 바꿔가는 맛이 있었지만 캐릭터를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시나리오 읽었을 때 느낌을 받고 촬영했습니다. 10회차 찍었는데 나를 즐기면서 했습니다. 김기덕 감독님은 제 영화의 시작이자 좋은 선배, 은사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다수 관객들은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가 '싸다고 하는데 시나리오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연극 배우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처음 포스터 붙이며 연극을 시작했고, 김기덕 감독님을 만나 영화도 찍었어요. 군대도 다녀왔고, 결혼도 했죠. 연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3년 주기로 들었어요. 고통스럽다가도 어느 순간 한 계단 올라가듯 나아져 있었죠. 이제는 어떻게든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어요. 배우는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작품 안에서 잘 놀았을 때 관객이 좋아해주는 것 아닐까요. 모든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꽃 하나 예쁘지 않은 꽃이 없듯이 작품마다 가차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인물 장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작품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편이예요.

기자의 눈

여전한 지하철 안전불감증



유 헤 온 사회경제부/euna@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또 다시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좀처럼 안전공포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선박을 이용해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배 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안전공포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지하철에 대한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지하철 사고에 오죽하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사고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5월 오전 6시 34분께 서울 지하철 분당선 선릉역에서 분당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지붕의 전기절연장치(에자)가 폭발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6시 56분께 경기 군포시 금정동 지하철 4호선 상행선(당고개 방행) 금정역에서 전동차 변압기 폭발로 승강장에 있던 시민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오전 7시 25분께는 분당선 열차가 서울 강남구 왕십리역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가던 중 철로에 멈춰 후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합정역 화재 사고와 레일 침몰 화재 사고, 그리고 지하철 3호선 도곡역서 객실 화재 등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완벽한 재난방재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조치 등 당국의 지속적인 사고 예방 노력 이 지름길이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일수록 안전상 미비점이 개선점은 없지 철저히 재확인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당국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두선의 나비효과

이성진의 음주운전이 불편한 이유



아이돌 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성진은 5월 30일 새벽 경기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 개인차는 있었지만 만취 상태였다. 면허취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0.2% 이상은 적발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이성진은 사건 당일 조사를 모두 마치고, 면허취소에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이성진이었다. 2011년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연예계를 떠난 뒤 조용히 식당을 운영하며 재기의 기회를 엿보던 이성진이었다. 그래서 그의 음주운전은 더욱 안타깝다. 술을 마시면 심신이 약이라며 형량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지만 적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위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 정립돼 있다. 특히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딱딱하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실망감이 큰 것처럼 나를 즐겁게 봐줬던 분들이 나 때문에 실망했다. 날 보고 즐거워해 줄 사람이 남아있었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는 이성진은 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나. "사람을 한 번 배신했는데 또 배신하는 건 용납이 안 됐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던 이성진은 왜 음주운전으로 실낱 같은 희망을 스스로 차버렸나. 과거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그리워서, 너무 힘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술을 마셔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것도 엄지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최근 MBC '무한도전'에 출연하던 리쌍 멤버 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 많은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

는지 이성진이 몰랐을 리 없다. 음주운전하기 전 사람들은 "단속 없겠지", "나 안 취했어"라고 자기 합리화에 나선다. 이성진은 그 긴 자속기간의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순간의 실수로 더 긴 자속기간을 갖는지 연에게 복귀 자체가 힘들게 됐다.

가수 이성희는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연예인의 공백기에 대해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누구에게나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다. 그 안 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잘 되는 시간이 다시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나를 사랑하고 애끼고 돌아보면서 지내면 기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너무 망가져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타락과 향락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문화창조 시대, 한류가 융성된 이 시기에 연예인의 말과 행동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예인은 더 이상 '판따라'가 아닌 '스타'이다. 이들의 몸가짐은 개인의 부, 명예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때이다. 이성진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벌금형이란 결과를 낳았다. 어쩌면 그의 음주운전이 연예인 면허마저 취소시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화부 기자 sun@

이투데이

社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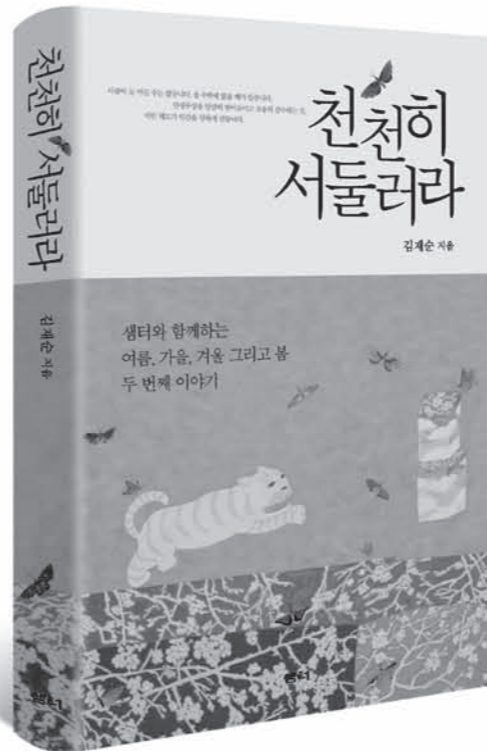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and phone numbers for different divisions like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etc.

43년간 변함없이 월간 샐터 뒤표지를 지켜 온 지혜의 샘

“서두르되 무엇을 위해 서두르는지 알고 하라”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 줄 한 권의 나침반

<샐터>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읽는 뒤표지글이 좋아 내 마음의 앞자리로 모여 오곤 했습니다. 이해인 수녀(시인) 이 세상에 앞표지보다 뒤표지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샐터>가 그렇습니다. <정명회 교수(수필가) 김재순 씨(아 말로 여든 살이 된다 하더라도 청년에 머물러 있는 '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최민호



김재순 지음 | 224쪽 | 울림출판 | 값 13,000원

월간 <샐터>의 창간인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샐터> 뒤표지에 쓴 글들을 묶은 책.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떠한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들려준다.

내가 만드는 행복, 함께 나누는 기쁨

당신의 책상 앞에는 어떤 결심이 적혀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또 다시, 나태해진 영혼을 일으켜 줄 어떤 말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월간 샐터 2014년 1월호

특급 반가운 손님

참살이 마음공부 법문 | 양인자의 다락방 책꽂이 | 뉴욕에서 떠온 진주알 편지 현경 기생충에게 배우다 서인 | 추구 수집가의 보물창고 이재형 | 초상화 박물관 정은지 현책이 말을 걸었다 윤성근 | 개그맨 김경진의 언저리 | 할머니의 부엌수첩

함박는 함박웃음 샐터 정기구독 이벤트 (2014년 2월 7일까지)

- 1 샐터 2개월 추가 증정, 2 레노바 자수 타일 (1개, 가격은 별도 별도), 3 통 티스폰 + 포크 세트, 4 클래식 정사각 유리병 2개 (100ml + 250ml), 5 수필집 <샐터에도 권한다> (내용 문장마다 세련된 이미지)

1권 값 2,500원 / 1년 정기구독료 30,000원 - 25,000원 (5,000원 할인) 정기구독 문의 및 신청 T. 02-763-8961 family@isamtoh.com

30代 한인 변호사 '美 연방의원 꿈' 바짝

로이 조,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서 승리 소상공인 지원·공교육 개혁 주장... 친기업적 평가 11월 본선거 이기면 美 연방하의원 사상 두번째 한인



한인 변호사 로이 조. 연합뉴스

은 1992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밥 베이커 후보를 누르고 한인 사상 첫 연방 하원의원이 됐으며 1994년과 1996년 재선에 성공했다.

조 변호사 외에 올해 유진철 전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 예비선거에서 패배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빌 패스크렐(민주·뉴저지), 로레타 산체스(민주·캘리포니아), 하비에르 베세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의 당선이 유력 시되고 있다.

코널리 의원은 워싱턴DC 인근 한인타운인 버지니아주 애네타일을 포함하는 11선거구가 지역구로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이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한인 변호사 로이 조(33)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90%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조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5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0%의 득표율을 기록한 다이언 셰어를 물리쳤다.

조 변호사는 앞서 5선거구를 구성하는 버겐 패세의 서섹스 워렌 등 4개 카운티의 민주당위원회로부터 공식 지지를 확보해 승리가 확실시됐다. 그는 오는 11월 4일 본선거에서 공화당 중진 현역 스캇 가렛 의원과 맞붙을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한 살 때 미국에 건너가

브라운대에서 정치과학을 전공한 뒤 조지타운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법률회사인 커크랜드앤드엘리스 뉴욕사무소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및 사모펀드와 관련한 자문 역할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소상공인 지원과 공교육을 비롯해 이민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친기업적인 성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아 주목을 끌었으며 본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5선거구 전통

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도 조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 변호사가 본선거에서 승리하면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두 번째 한국인이 된다. 김 전 의원

이문세, 7월 갑상선암 재수술 받는다

"해외 투어에 최선"... 美·호주 등 남은 공연 마친 후

가수 이문세(사진)가 오는 7월 갑상선암 재수술을 받는다.

이문세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7월에 재수술을 받게 됐다"며 "지난 3월 종합검진 결과 의료진은 갑상선에 또 작은 게 발견됐다고 수술을 제안했다. 이에 급하지 않으면 공연 일정 다 끝낸 후 수술을 받기로 의료진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문세는 해외투어 공연 중이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3년 만에 뉴욕 뉴저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6월부터 캐나다(토론토), 미국(로스앤젤레스·뉴저지), 호주(시드니)에서 3개국 4개 도시 해외 순회 공연을 가지며 해외 팬들을 만난다.

이문세는 "좋은 일도 아니고 많은 분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알리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남은 공연을 하는 것이다. 끝



곰하게 수술 받고 건강하게 노래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멋지게 해낼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문세는 지난해 JTBC '히든싱어' 이문세 편에 출연해 2007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김민정 기자 ml_kim@

조양호 회장, IATA 전략정책위원회

(국제항공운송협회)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 전략정책위원회(SPC)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지난 2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70회 IATA 총회에서 SPC위원을 맡게 됐다고 5일 밝혔다.

SPC는 IATA의 주요 전략 및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전 세계 항공사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된 총 31명의 집행위원회(BOG) 위원들 중 총회에서 11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1996년부터 IATA 집행위원을 맡아 온 조 회장은 향후 2년간 SPC 위원으로 IATA의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대훈(사진)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IATA SPC 선임으로 국제항공 업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ATA는 항공 운송 발전과 문제 연구, 국제항공 운송업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항공사 간 국제협력기구다. 현재 118개국 240개 민간 항공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6월 과학자상' 김상욱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탄소 소재의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김상욱(사진) KAIST 신소재 공학과 교수를 '6월 과학기술자상' 6월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 소재는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김 교수는 탄소 소재에 질소·붕소 등의 이종원소를 치환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재의 전기적 특성 등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이를 다양한 소자에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크기 조절이 가능한 나노기공이 있는 3차원 그래핀 질소·붕소를 만들고, 이를 에너지 변환 소자인 슈퍼커패시터 전극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임직원들에 우리사주... 애사심 갖자"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사장 이메일로 밝혀... "상장 기회로 글로벌 기업 도약"

상장을 결정한 삼성에버랜드의 우리사주 배정 방침에 임직원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김봉영(사진)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지난 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계획을 알리는 이메일을 통해 "주식 상장으로 우리사주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임직원들한테도 우리사주가 배정되게 될 것"이라며 "상장이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이 고취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우리사주는 IPO(기업공개)를 추진한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최대 20%까지 직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이 올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지분가치는 1주당 209만원이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김 사장의 이메일은 우리사주를 통해 임직원들도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하게 되는 만큼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1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을 결의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상장을 통

해 패션·리조트·건설 등 사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패션(에이치앤씨) '글로벌 톱 브랜드' 도약 △스포츠·아웃도어 신규사업 강화 △용인 에버랜드의 시설 확충 △호텔 투자 확대 등이다. 더불어 대주주(44.5%)로 있는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신기술 확보, 경영인프라 투자 등을 계획 중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이권희 삼성그룹 회장(3.72%)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25.1%)이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패션 부문 사장이 각각 8.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CC는 2대 주주로 1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삼성엔지니어링 '찾아가는 환경교실' 열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에서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열었다.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직원과 기술·화성 현장의 임직원 10여명은 4~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재활용과 관련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태양광 하우스와 에코 소품백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했다.

또한 친환경 텀블러와 재생종이로 만든 연필, 에코 화분을 나눠주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 사랑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이 행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꿈



나무 푸른교실' 활동 가운데 하나로 2011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강영관 기자 kwan@

'텔레이 장학금' 약속한 건국대 기숙사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학생 기숙사인 콜하우스(KU·L HOUSE) 학생들이 재학생 받은 기숙사 나눔장학금을 졸업 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텔레이 장학금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최근 건국대 행정관에서 열린 약정식에서 콜하우스 학생자치위원장 김동익(응용 생물과학 4학년) 학생이 KU·L나눔장학선발자 227명을 대표해 'KU·L HOUSE 텔레이 장학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콜하우스 자치위원회장을 지낸 김정호(28, 전자공학) 동문이 자신이 기숙사에서 받았던 장학과 프로그램 등의 혜택에 보답하고자 지난해 3월 기숙사 후배들을 위해 소정의 장학금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건국대 김동익 학생(왼쪽)이 최근 행정관에서 열린 텔레이 장학금 약정식에서 KU·L나눔 장학선발자 227명을 대표해 장학금 약정서를 송희영 총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제공 건국대

텔레이 장학금이 신설됐다. 이들이 졸업 후 되돌릴하기로 한 장학금은 총 1억500만원에 이른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인사

- ◆관세청 <전>부 △관세청 규제개혁부 담당관 한민 <관세청 민회>
- ◆한국관광공사 <수> △수출·입국 △경영지역 실장 신상용 △해외마케팅실장 나상훈 △국민관광실장 김응상 △지역관광실장 박병직 △산업협력실장 최승우 △관광인력 개발실장 이강길 △브랜드마케팅실장 신평섭 △관광인프라실장 윤선중 △여행정보 서비스실장 양문수 △남북관광팀장 김명선 △감사팀장 신희섭 △기획조정팀장(안정 여행팀)장 정진수 △자회사지원팀장 이승관 △CSR센터장 안덕수 △구매팀장 권창근 △부산항면세점장 이규근 △마케팅전략팀장 김흥기 △아시아중동팀장 정기정 △

- 브랜드마케팅팀장 우병희 △의료관광센터장 김세만 △국민관광복지팀장 김영자 △지역협력팀장 김성훈 △관광컨설팅팀장 이성일 △관광자원개발팀장 정재선 △대전충남협력지사장 윤재진 △전북협력지사장 이철희 △광주전남협력지사장 이강우 △스마트관광지원팀장 송재근 △크루즈교통팀장 박익락 △교육기획팀장 이창용 △1330 관광안내센터장 장재선 △관광R&D센터장 안지환 △성과관리팀장 권준술 △일본팀장 임용득 △국제협력팀장 정성에 △홍보제작반역팀장 정혜경 △국민관광기획팀장 김용재 △레저스포츠관광팀장 이상기 △해외스마트관광팀장 이태혁 △강원협력지사장 김대근 △세종충북협력지사장 이태호 △대구경북협력지사장 강남규 △동

- 남권협력지사장 정용문 △관광인프라기획팀장 이영근 △관광속박개선팀장 박석주 △음식소품팀장 설경희 △동북합동관광산업팀장 전용찬 △교육운영팀장 이재상 △사랑채운영센터장 김태환 △인재개발파트장 박형관 △마케팅전략팀장 유진호 △스마트관광지원팀장 파트장 김경태 △전북협력지사 파트장 박재서 △제주협력지사 파트장 이운재 △관광R&D센터 파트장 김성은 △해외지사장 △로스앤젤레스지사장 김태식 △선양지사장 안득표
- ◆신한생명 <센터>장 승진 △제주고객 플라자 김성화 <본부>장 전보 △준법감시인 윤석재 <본부>장 전보 △TCM지원부 김재순 △상품개발부 이대희 △마케팅부 배형철 △감사부 장유희 <담당> 전보 △선인업

- 리사지원팀(부장 대우) 정석재 <지점>장 전보 △중계지점 이석구 △중로지점 김재두 △용산지점 김상락 △호수지점 최정환 △서면지점 전병호 △남산지점 박철현 △김해지점 심규봉 △구미지점 홍승모 △대전지점 양재훈 △동전주지점 이주일 △영동지점 박현남 △신제주지점 이동우 △원주SOHO지점 김근우 △일산FM지점 김순기 △부산FM지점 배동운 △경기FM지점 박기현 △대전FM지점 최진기 △충주FM지점 심중보 △상무FM지점 이경환 △창원VM지점 안도현 △새롬ACE지점 이운상
-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광웅
- ◆안전성평가연구소 △선인본부장 신천철 △독성평가연구소본부장 정은주

박광식 교수, '노벨상 근접 과학자' 선정

동덕여대대학교는 최근 약학과 박광식(사진) 교수가 세계적인 석학 반열에 올라섰다고 5일 밝혔다.

박 교수가 지난날 30일 세계적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인 톰슨로이터가 발표한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인 과학자 16명 중 1명에 선정된 것이다.

톰슨로이터는 세계적으로 논문의 인용 횟수, 인용 저널의 영향력 등을 종합해 최근 10년간 논문 인용도가 높은 전 세계 과



학자 3200명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는 박광식 교수를 비롯한 16명의 과학자가 등재됐다.

2002년부터 동덕여대 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 교수는 주로 나노물질의 특성 기전 및 안정성 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논문을 발표해 왔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이현동 전 국제청장, 영남대 석좌교수로 교단에

이현동(사진) 전 국제청장이 교단에 선다.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는 최근 이현동 전 국제청장을 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5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 석좌교수의 임기는 오는 2015년 5월 31일까지다.

이 석좌교수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4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구미세무서장, 국제청 조사국장, 서울



9일 오전 10시 영남대 총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방국제청장, 국제청 차장을 거쳐 지난 2010년 8월부터 제19대 국제청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이 석좌교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영남대 총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learand76@

부음

- ▲이재규(경인일보 안산주재 기자)씨 장모상 = 4일 오후 3시 14분, 광주광역시 그린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9시 30분, 062-250-4410
- ▲김정수(동양일보 청원·보은주재 부장)씨 모친상 = 5일 오전 0시 10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1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43-298-9200
- ▲정현숙(대한탁구협회 부회장)씨 부친상 = 4일 오후 1시 19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31-999-1444

- ▲강박광(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씨 별세 = 3일 오후 1시 53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 30분, 02-3410-3151
- ▲최태열(전 삼성전자 과장)·재판(현대산업개발 대리)씨 부친상 = 3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34호,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절두산 천주교 순교성지, 02-3010-2294
- ▲최태열(전 부천시 부시장)·태근·태숙씨 모친상, 하현주(전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이사)·오정욱(삼일선원 원장)씨 시모상 = 2일 오후 11시 44분,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7시, 031-999-1444

싸이, 컴백 초읽기 이번엔 '양끼' 듬뿍 힙합

(양아치 끼)



뉴스시스

싸이의 신곡은 '강남스타일' 인기를 넘어설 것인가. 월드스타 싸이(본명 박재상·37)가 컴백 초읽기에 들어 가면서 신곡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싸이는 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게임 나이트'에 힙합 뮤지션 스눕독과 함께 출연해 신곡 '행오버(HANGOVER)'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싸이는 뮤직비디오 공개에 이어 9일 오후 1시(한국시간) 아이튠즈를 통해 음원을 발매하고, 올여름 타이틀곡을 발매해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토크쇼에 출연해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것은 싸이의 새 앨범 월드 프로모션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행오버'는 '강남스타일'(2012)과 '젠틀맨'(2013)에 이은 '월드스타' 싸이의 신곡이다. 싸이가 월드 스타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향방을 가릴 중요한 컴백이다.

'젠틀맨'은 '강남스타일' 이후 8개월 만에 발표됐고 '행오버'는 '젠틀맨'이 발매된 지 1년 2개월 만에 공개돼 전보다 컴백에 신중을 기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강남스타일'에 버금가는 곡을 만들기 위해 8개월 동안 노력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올 싸이의 새 앨범에는 해외 유명 뮤지션과의 협업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싸이의 새 음반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뮤지션이 대거 참여했다'며 '싱글이 될지 정규 앨범이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명한 힙합 뮤지션 스눕독과 밴드 에어로스미스(Aerosmith)의 보컬 스티븐 타이일러가 싸이의 새 앨범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미국 빌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에어로스미스는 내 인생의 롤모델이었는데 지금 나는 스티븐 타이일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미국 아티스트와 많은 교류를 했다"고 새 앨범에 대해 귀띔했다.

이번 새 앨범은 스타일 면에서도 확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싸이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노래가 솔로 미디어 곡에 가깝다면, 이번 노래는 완전한 힙합곡"이라면서 스눕독

8일 美방송 '행오버' 뮤비 선공개 완전한 힙합곡... 직접 랩 구사도

여름쯤 새앨범 발매 본격 활동 스눕독·스티븐 타이일러 등 참여 '월드스타' 입지 굳히기 나서

의 도움으로 랩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싸이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콘서트에서 그는 "젠틀맨은 나답지 않은 노래였다"면서 "누구를 겨냥하지 않았던 '강남스타일'과 달리 '젠틀맨'은 마치 무언가를 의도해 언어학을 한다 싶은 정도로 단어마다 신경 썼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며 "재롭게 만드는 신곡은 나답게 '양끼'(양아치 끼)를 담기로 했다"고 신곡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B급 정서의 코믹한 '강남스타일'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보인다. '강남스타일'은 싸이의 최대 히트곡으로 2012년 7월 15일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5월 31일 낮 12시 30분 기준 유튜브 사상 최초 조회수 20억건을 돌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싸이의 구체적인 컴백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YG엔터테인먼트는 "싸이의 컴백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확정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싸이는 오는 8월 국내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8월 9-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시티브레이크 2014', 같은 달 15-16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나우 페스티벌 2014' 무대가 예정됐다. 흥넷 기자 byul0104@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휴 잭맨의 할리우드 영화 '엑스맨'이 왕좌를 굳건히 지켜냈다. 안젤리나 졸리, 엘르 패밍의 모험 판타지 '탈레판트'가 3위를 차지했다. TV는 KBS 2TV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시청률 30%(닐슨 코리아 제공)로 1위를 수성했다. 김희선, 이서진, 옥택연이 출연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잠 좋은 시절'은 24.9%의 시청률로 2위다. 음악은 정인과 개리의 '사람냄새'가 1위에 등극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5년 만에 내놓은 '너를 너를 너를'이 2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KBS 1TV
2	참 좋은 시절	24.9	KBS 2TV
3	천상여자	19.2	KBS 2TV
4	KBS9시뉴스	17.3	KBS 1TV
5	정도전	16.6	KBS 1TV
6	개그콘서트	15.6	KBS 2TV
7	나만의 당신	15.1	SBS
8	너희들은 포위됐다/왔다 장보리	13.2	SBS/MBC
10	닥터 이방인	12.8	SBS
11	무한도전	12.6	MBC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사람냄새	정인, 개리	진입
2	너를 너를 너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1
3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	-1
4	너를 위해	장기고	-1
5	너의 의미	아이유	0
6	미운오리새끼	지오디	-2
7	중독	엑스-K	0
8	봄 사랑 벚꽃 말고	하이피, 아이유	-2
9	야생화	박효신	1
10	미스터 추	에이핑크	1

스타.스타를 말한다 장서희가 말하는 장서희

“복수의 아이콘? 잘할 수 있는 역 맡을 뿐”

일일극 '빠꾸기...' 4년 만에 컴백 대리로 출산 선택한 비극적 여인 韓·中 문화 잇는 연기자 되고 싶어

안녕하세요. 장서희입니다. 약 4년 만에 TV 드라마로 인사드리네요.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극본 황순영, 연출 박기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영구불임이 된 후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비극적인 여인 백연희 역을 맡았어요.

아역배우로 데뷔해 그간 수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중 기억해 주시는 부분이 선행의 일일극이라 대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덕에 복수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도 생겼죠. 이번 작품에서도 '장서희가 복수극을 하는구나'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깨고 싶어서 이번 작품을 선택했어요. 나이를 점점 먹어 가니까 성숙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빠꾸기 동지'는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 모성애에 대한 드라마예요. 막장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저는 막장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세 내용의 드라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어떤 역할이든 소화해내야 해요. 착한 드라마, 나쁜 드라마로 나누기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드라마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대리모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있지만 뒷이야기를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드라마를 다 본 뒤 평가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특히 박기원 감독과 황순영 작가는 20대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분들이라 이번에 함께 작업하게 돼 무척 기뻐요. 뿐만 아니라 좋은 선배 분들과 멋진 팀으로 작업하게 돼 무척 설레요. 한국에서 카메라 앞에 서고 보니 진짜 한국에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때문에 정말 끝까지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더 노력해야 해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인어아가씨'(MBC, 2002)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화려하게 해외진출을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부인과'(SBS, 2010) 작품 이후 중국에서 2년 반 동안 살았죠. 신인의 마음으로 오라프로 그랩과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생활했어요.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문화교류의 고두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김민정 기자 mj_kim@

www.BRAVO-MYLIFE.co.kr

6월 16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BRAVO MY LIFE 브라보 My 라이프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꿈꾸는 新중년,

당신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Dynamic Senior'들의 신나는 놀이터!



'신중년들의 든든한 길라잡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중년'



'애환과 고통을 나누는 시니어들의 사랑방'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라!!”

-마광수 연대 교수-이근후 이대 명예교수의 행복 메시지

창간호 주요 콘텐츠

- [창간기획 설문] 신구세대간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 [파워 인터뷰1] 이타심을 뛰어넘은 이기심이 필요하다-이근후 이대 명예교수
- [파워 인터뷰2] "게을러져라", "황혼이혼 과감하게 빨리해라"-마광수 연세대 교수
- [FIRST CLASS] 허룻밤 머물면 하루 연장이 되는 그곳의 비밀
- [시니어들의 성실택 보고서] 황혼의 性...시니어 '우리도 하고 싶다'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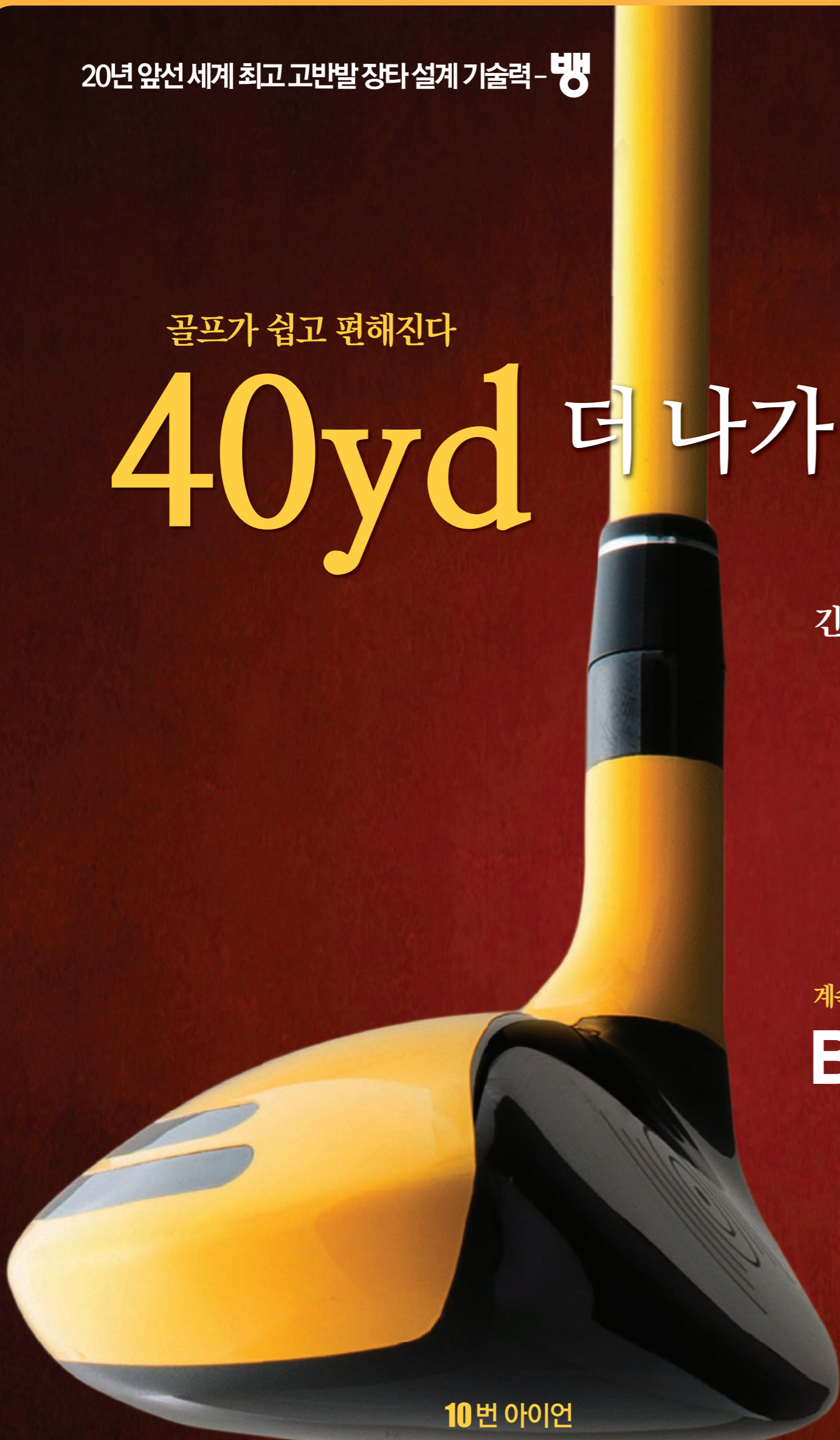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 큰 헤드 체적으로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더 향상되었다.
- 총 중량과 헤드밸런스가 더 가벼워져서 스윙이 편하다.
- F1 포물러 타이어 접지 원리와 같이 백스핀량이 증가한다.
- 헤드의 와이드 솔 디자인으로 인하여 뒤땅이 없다.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신세계 백화점 본점 (02-310-1538)
의정부 (031-8082-0712)

강남점 (02-3479-1532)
부산점 (051-745-1823)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영등포점 (02-2639-1536)
총청점 (041-640-5753)

경기점 (031-695-1845)
마산점 (055-240-1406)

인천점 (032-430-1563)
광주점 (062-360-1402)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반포골프백화점 (02-534-0220)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재건축 대타... 수익성 홈런 칠까

Cover Story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동

15년 이상 된 아파트 3개층 증축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수혜
강남 잠원한신 등 조합설립 추진
'베란다 쪽 확장' 안전 문제 제기
분담금 클 수 있어 투자 따져봐야

지난 4월 25일 노후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수직증축 허용 기대감에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가 보험세에 있으며 안전성과 수익성 문제도 여전히 리모델링 사업의 본격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기존보다 최대 3개층 더 올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15층 미만의 아파트를 수직증축할 때에는 2개 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가구 수는 15% 증가하고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 사업비는 35%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가장 큰 수혜지역은 수도권 1기 신도시다. 실제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건을 갖춘 400만 가구 중 200만 가구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특히 신도시 형성 이후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2007년 이후 하락폭을 키웠던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분당의 경우 오랫동안 리모델링이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해체 상태였던 조합들도 수직증축 허용 이후 즉시 재결성 단계를 밟고 있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고 앞서 지난 3월 한솔마을 주공5단지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정해졌다.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당 외에도 일산, 평촌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일산시도시와 평촌이 각각 위치한 고양시와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에선 잠원한신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인근 소형 단지인 한신로얄아파트 등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매수 시장은 이미 호기가 많이 올라 관망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분당 리모델링 단지들의 매매가격은 작년 말 대비 연초 2000만~3000만원 정도 상승한 뒤 계속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직증축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넓어지는 평면 구조가 베란다 쪽으로 확대돼 기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안전성 문제에 99점이 있을 수 없다. 수익 창출이 아니라 주거 질의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안전 진단을 철저히 해 논란을 불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도 적고 리모델링 분담금을 클 수 있어 투자가치를 잘 따져봐야 한다. 수직증축을 통해 확보된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강영관 기자 kwan@

리모델링 1번지 분당, 매매가 평균 3000만원 '쑥'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범단지로 선정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 아파트 전경. 장세영 기자 phototink@

수도권 1기 신도시, 조합설립 활발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작년 12월 통과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합설립 등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곳은 분당이다. 이곳은 도시 조성 시 아파트단지들이 몰려 있는 데가 최근 시공되는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길게 늘어서 있는 판상형 단지가 즐비하다.

현재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관련 조합이 설립돼 있고 다른 단지는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지의 매매가는 작년 말 대비 연초 2000만~3000만원 정도 상승했다가 현재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뿐만 아니라 일산과 평촌 신도시가 속해 있는 일산시와 안양시도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매화마을 수주 국내 첫개시

노티마을·한솔마을도 시행사 선정 나서

사업대상 아파트값 상승 후 보합세 유지

최소 1000가구 이동... 전세가 상승 우려

일산·평촌 지자체 주도 사업추진 움직임

◇분당 다시 주목받다 = 분당이 신도시 조성 당시 이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이 몇몇 단지에서 추진되면서 주거지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추게 됐다.

대표적 단지로 정자동 노티마을공무원 3, 4단지 아파트와 한솔마을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다.

노티마을 리모델링 추진의 관계자는 "시에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르면 오는 9월쯤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며 "현재 시행사 선정, 입찰 과정 등에 대한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솔마을 5단지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상황이고 시행사도 현대산업개발로 확정된 상태다.

이 단지도 현재 리모델링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달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포스코건설은 분당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5년 완공됐으며 전체 2만6360㎡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짜리 6개동, 전용면적 67~81㎡ 562가구로 구성돼 있다.

포스코건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한 대안설계를 제시해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시행사 선정이 첫 리모델링 수주 사업이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대복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부사장)은 "분당 매화마을 1단지는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주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매가는 연초 상승 후 보합 = 분당 리모델링 단지들의 매매가격은 작년 말 대비 연초 2000만~3000만원 정도 상승한 뒤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노티마을 3단지 58㎡(이하 전용)의 경우, 작년 12월 매매가는 3억8000만~4억2900만원이었지만 올해 2월 4억5500만원, 3월 4억5800만~4억8800만원을 기록했다.

66㎡은 작년 말 4억3900만~4억775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 3월에는 4억9300만~5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4단지의 경우도 작년 12월 58㎡은 4억1000만~4억2000만원에, 66㎡은 3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58㎡은 올 1월 4억1000만~4억4800만원과 3월 4억3000만~4억6000만원에, 66㎡은 1월 4억1500만~4억5800만

원과 2월 4억7400만~4억8000만원대로 상승했다.

한솔마을 주공 5차의 경우, 41㎡은 작년 12월 2억1600만~2억6000만원에, 51㎡은 3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41㎡은 올해 1월에는 2억5500만~2억6000만원, 3월 2억6000만~2억8600만원을, 51㎡의 경우 1월 3억2500만~3억6000만원, 2월 3억2500만~3억4000만원의 매매가를 기록했다. 노티마을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연초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다. 현재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솔마을 근처 B부동산 관계자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잠잠한 편이다. 매매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부동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인근 C부동산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소식 이후 매도자들이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는 상황"이라며 "한솔5단지 경우 1000가구 규모가 이사를 해야 하다 보니 주변 4, 6단지 쪽으로 유동 중인 것으로 안다. 30~40%만 움직여도 전세가 등 주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산, 평촌도 지자체 주도 리모델링 박차 =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당 외에도 일산, 평촌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일산시도시와 평촌이 각각 위치한 고양시와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일산신도시와 행신, 화정, 탄현, 중산, 성사 등 5개 택지지구 중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용역을 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끝낸 후 단지마다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촌 신도시가 속한 안양시도 4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안양시에서는 '리모델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리모델링 업계도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한국 리모델링협회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업체,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리모델링 관계자를 초빙해 '리모델링 제도개선 주택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태진 기자 tjipippo@

동서식품
www.dongsuh.co.kr

Bette Beans better coffee
Maxim
좋은 원두, 좋은 커피

세상에서 가장 욕심부리지 않는 추출

커피의 맛은 좋은 원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원두도

추출에 욕심을 부리면 품질이 낮아지죠. 카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엄선된 콜롬비아 원두를 카누만의 기술로

욕심부리지 않고 추출합니다. 여기에 미세원두의

품미가 더해지면 신선한 아메리카노

카누가 탄생합니다

단지명	규모(전용면적)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3년 3월
노티마을공무원3단지	58㎡	3억8000만~4억2900만원	-	4억5500만원	4억5800만~4억8800만원
	66㎡	4억3900만~4억7750만원	-	-	4억9300만~5억2000만원
노티마을공무원4단지	58㎡	4억1000만~4억2000만원	4억1000~4억4600만원	-	4억3000만~4억6000만원
	66㎡	3억9000만원	4억1500만~4억5800만원	4억7400만~4억8000만원	-
한솔마을주공5차	41㎡	2억1600만~2억6000만원	2억5500만~2억6000만원	-	2억6000만~2억8600만원
	51㎡	3억2000만원	3억2500만~3억6000만원	3억2500만~3억4000만원	-

리모델링, 건설사 신 수익모델 부상

가구당 1억... 시장 가치 수백兆

총 428만 가구 중 절반 수도권 집중
업체별 TF팀 운영 시장 조사 착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리모델링이 주택 정비사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 중 경과연수 15년을 넘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총 428만5130가구로 이 중 47%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가구당 사업비를 1억원으로 가정하면 리모델링 시장의 잠재적인 가치가 수백조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포스코건설이 최근 분당 아람동 '매화마을 1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4월 만든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한 이후 곧바로 경기도 매화마을 1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는 신속성을 발휘, 이번에 결실을 본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분당 매화마을 1단지는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

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주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리모델링 전담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 중의 하나다. 일찌감치 지난 3월 분당 한솔주공 5단지의 시공사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달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전담팀(TF)을 운영해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장조사와 함께 수주를 위한 단지 물체에 나서고 있다. 물 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2개 단지를 새우기로 결정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 청담동 청담두산과 대치동 대치우성2차를 각각 리모델링한 청담 래미안 로이뷰와 대치 래미안 하이스턴 등 2개 단지를 최근 완공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선두주자인 쌍용건설은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례를 보유한 쌍용건설은 이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맞춘 평면을 개발했으며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문 기자 kwan@

뼈대부실·지진취약 우려... 건설사 “보강공사 철저”

잇따른 안전성 논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논란 끝에 허용됐다. 때문에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건설업계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주 영입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성남시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가 포스코건설과 손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이어지며 국토부가 안전점검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좀처럼 안전성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구조안전성' 규정 강화

건축 도면 없으면 사업 불허
연구원 등 전문가 평가 반영

신도시 건설 때 '부실' 의혹

중국산 철근·저급 시멘트 등
사용 소문... 안전 담보 못해

건설사 “이미 시행... 문제없다”

상업시설선 1·2층 이상 증축
최신 공법 적용으로 더 튼튼

재건축vs리모델링 어떻게 유리할까?



용적률·층수 높으면 리모델링 노후 저층 아파트라면 재건축

리모델링 공기 짧아 좋지만

분양물량 적어 주민 부담 커
평면 설계도 일정부분 한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관련 업계를 비롯해 해당지역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재건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저울질하며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곳 역시 적지 않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 건축 기간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다른 제약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착공 후 1년 6개월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돼 살던 곳에 재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평균 3년 이상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이나 규제 등으로 사업기간이 불확실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사업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인허가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투자 성과도 상대적으로 단시 일 내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단지가 높은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수익률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일부 가구 수를 늘리거나 면적을 넓히는 사업이어서 주민 부담이 크다. 반면 재건축은 일

반분양 물량이 많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 증가는 15층 이상 단지가 유리하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건물이 받는 하중을 감안, 최대 2개층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적게 나온다.

또한 수직증축이 허용돼도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구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인 만큼 자유롭게 평면을 설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아파트를 건립한 지 최소 30년이 지나야 허가받을 수 있다. 1988년 지어진 아파트는 2022년부터, 1992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지난 2032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때문에 재건축 가능 연한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단지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존 용적률이 높고 층수가 높은 단지는 리모델링이 유리하고 기존 용적률이 낮으며 저층의 준공연한이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층수와 기존 용적률이 높다”면서 “때문에 향후 리모델링이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선진국들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했다. 이제 한 달여가 지난 셈이다. 이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 총 559만1000여 가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골자는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5%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수평증축이나 별도 증축만을 허용해 왔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준 셈인데 때문에 실제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성 담보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 자체를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또 민간이 아닌 정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감리과정에서도 부분적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주요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건설 당시 철근 부족으로 강도가 높지 않은 중국산 철근 사용과 저급 시멘트, 염분을 덜 바닷모래가 사용된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불량 자재와 불량 시공이

관했다는 사실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때문에 건물이 지어질 당시 수직증축이 허용될 만큼의 구조적 안전을 가지고 설계 및 시공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반래 뼈대가 온전하지 않다면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도 증축하면 신축 건물처럼 하중을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설사 15·20년 전 건축도면이 있다 해도 구조 안전성이 실제 시공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안전진단만으로 구조물 상태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진설계의 부재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실제로 1988년 이전 설계된 공동주택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반도 일대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리히터 규모 5·6의 지진을 수직증축 아파트가 감당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진단과 성능 기반 설계를 포함한 구조엔지니어링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사, “이미 시행되던 것, 문제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존 건축물이 큰 하중을 받게 되고 증축된 부분과의 접합이 정밀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설의 과밀도가 높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시공을 담당하게 될 건설사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엄밀히 말해 ‘허용’된 것이 아닌 ‘확장’된 것”이라며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아파트 부분에도

서도 1·2층 이상 수직증축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주택법 개정은 3개층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언론에서 마치 전에 없던 것이 부동산 경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긴 듯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수직증축은 이미 기존 사례가 존재하고 신규 조 공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수직증축의 안전성은 건축공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외관 역시 입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따라 기초라 할 수 있는 파일 보강부터 벽체, 기둥, 슬래브 등 전 구조물에 적절한 보강공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들 역시 국토부 법령 외에도 건설사들이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내진설계 부분도 최신 구조설계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더 튼튼한 시공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안전성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금호건설 등 일부 대형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모델링 경험이 없는 회사의 경우 공사 과정상 비용 산정 등 사업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KYO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1297호(2014.03.12 ~ 2014.12.31)
www.iprovest.com

모바일
주식거래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마음껏 누리세요!

SMART K

마음껏~ 누리자!

이벤트 기간 2014.2.10 ~ 2014.12.31.

누림 하나

1. 매 2주간 10억원 이상 거래금액
상위200명 10만원 지급

2. 월간 누적 거래금액
상위 5명 50만원 상품권 지급

※ 기존이벤트 참가자는 참여 불가
※ 월간 누적 상위는 해당월초부터 말일까지 집계하여 지급
※ SMART K로 매매한 주식 거래금액만 인정
※ 발표는 매달회차 종료 후 SMART K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누림 둘

은행연계 개설계좌 거래시
0.014%의 착한 주식거래 수수료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누림 셋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4.95%의 저렴한 신용용자 이자율

용자사용기간	30일 이내	31 ~ 60일	61 ~ 90일	91 ~ 180일	연세이자율
이자율	4.95%	5.0%	5.5%	9.0%	12%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 신용 거래이율시 신용거래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금융/증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최고 권위의 우수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제3회 스마트앱어워드]
금융 증권서비스부문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앱으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휴대폰)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 58% “서류전형 불합격 未통보”...열린채용이라고?

기업에 반감 커지는 구직자들

취업 준비생 K씨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회사들은) 불합격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 낭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열불을 냈다. 실제로 K씨처럼 서류전형을 실시한 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최근 기업 452개사를 대상으로 ‘불합격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58.6%가 ‘통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6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48.2%), 대기업(36.8%) 순으로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는 “더 큰 반감을 일으킬

중소 60% 최다...대기업도 37%

기업 “더 반감살라...통보 안해”

구직자 83% “채용 불공정 느껴

심사기준·과정 공개 1순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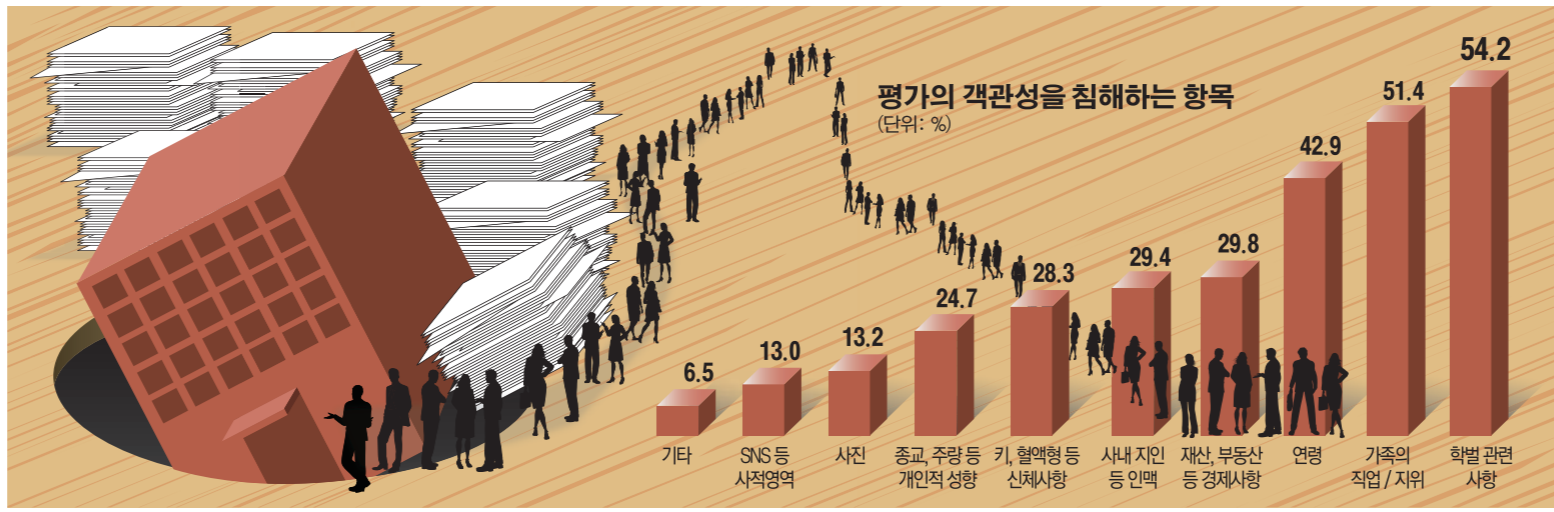
수 있어서(27.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4%),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서’(17.4%), ‘합격자 공지로 확인할 수 있어서’(11.7%), ‘시간이 없어서’(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합격 통보를 하는 기업(187개사)은 ‘지원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67.4%,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본적인 채용 매너로서’(48.1%),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서’(11.2%), ‘미통보 시 문의로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5.9%) 등의 이유를 들었다. 불합격 통보를 하는 전형은 ‘최종 면접’(50.3%, 복수응답), ‘1차 면접’(43.3%), ‘서류’(36.4%) 순이었다. 통보 방식은 전형별로 모두 문자 메시지(각각 60.6%, 59.3%, 58.8%,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불합격한 지원자가 다시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작은 배려가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직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구직자 10명 중 8명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이 구직자 73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 경험’을 조사한 결과 83.2%가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의 불공정성은 서류전형(63.7%, 복수응답)



채용기업 리스트 (사람인)

기업	구분	모집	자격조건	우대조건	접수방법	마감일
LG손해보험	인턴 (전문대졸)	사무직	• 2/3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고교 기졸업자 • 전학년 평점평균 B학점 이상자 • 전공무관	• 보훈 및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영/금융/세무/회계 등 상경계열 및 보건의공과자 • 지방 연고자 중 해당 지역 근무가능자 • 국가보훈대상자 • 인턴수료자 중 임원면접을 통해 정규직 전문대졸 신입사원 채용예정	채용 홈페이지 (recruit.lg.co.kr)	6/9
	인턴 (대졸)	상품개발/수리, 자산운용, 경영지원, 개인영업관리 등 7개 부문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8월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전학년 평점평균 B학점 이상자 • 전공무관	• 자산운용, 상품개발/수리부문 관련 전공자 • 직무경력보유자 • 국가보훈대상자 • 인턴연수 후 임원면접 합격자 하반기대졸신입사원 조건서발 특전 부여	채용 홈페이지 (apply.powertech.co.kr)	6/8
현대파워텍	인턴	생산공정, 품질, R&D, 경영지원 등 7개 분야	• 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분야별 관련 전공자	• 인턴십 종료 후 우수인턴 14년 하반기 대졸공채 최종면접 응시 자격 부여 • 국가보훈대상자	채용 홈페이지 (recruit.isu.co.kr)	6/9
이수그룹	인턴	경영관리, 영업, 엔지니어, R&D	•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R&D: 석사 이상자) • 분야별 관련 전공자	• 연 평균 수료 인원의 70% 이상에 공개 최종면접 참가자 격이 부여되며, 면접 시 우대	채용 홈페이지 (www.lisg.co.kr)	6/9
LS산전	인턴	국내영업, 제조, 서비스, IT 등 10개 부문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자 • 토익 기준 700점 이상자	• 영어 및 제2외국어 능통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사/기사(공사) 등) • 해당 근무지역 거주자(청주, 천안, 부산 등) • 연구개발: 석사학위예정자 • 취업보호대상자 • 인턴 수료 후 최종 인성면접 합격자는 2015년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	홈페이지 (www.lsis.co.kr)	6/9
대상	신입	대상, 대상FN	•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8월 졸업예정자(이화여자, 연이연구, 건강연구, 전분영연구, 식품연구, 석사 학위자) • 부문별 전공자 • 구매: 영어 구사 능력 우수자 • 부문별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부문별 전공자 및 세부 전공자 • 부문별 자격증 소지자 • 부문별 외국어 가능자 및 우수자 • 판매: 식품관련 검사 관련 학점 이수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홈페이지 (www.daesang.com)	6/9
웅진씽크빅	인턴	기획/관리, 마케팅/홍보, 교육, WEB디자인, 편집개발 등 9개 부문	•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8월 졸업예정자	• 부문별 전공자(편집개발: 전공무관) • 교육: CPM 자격증 소지자 • WEB기획, WEB개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 인턴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즉시 정규직 채용	홈페이지 (www.woongjin.com)	6/8
화승	신입/경력	화승R&A, 화승소재	•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8월 졸업예정자	• 부문별 전공자 • 영어 및 기타 외국어 능통자 • 생산/생산관리, 생산기술: 3D Blow Molding 경력자 • 해외영업: 일반어 가능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우편/방문	6/7
생주그룹	신입/경력	주니어 판매사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럭셔리 패션 브랜드 세일즈 경력자 • 항공운항학과 및 그 밖의 서비스 교육 이수자	사람인 홈페이지 (www.saramin.co.kr)	6/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턴	사무, 기술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8월 졸업예정자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어학성적 토익 기준 750점 이상자(장어 및 및 다문화가정 자녀는 650점 이상자) • 평점평균 3.0 이상자(4.3만점의 2.86 이상자) • 공고일 현재 34세 이하인 자 • 경력자,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 지원 불가	• 지방대 졸업자(30% 채용목표제 실시) • 분야별 우대자격증 소지자 • 중언 어학스피킹성적 보유자 • 장애인, 다문화가정자녀 별도 전형 진행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가정자녀, 다문화가족자녀 • 현재 공인인턴 수료자는 함께 한하여 인턴대비 적용 • 2014년 정규직 공개 채용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우수인턴에 한하여 가점 부여(인턴과 동일한 분야 응시 경우)	채용 홈페이지 (airport.career.co.kr)	6/9
한국수력원자력	인턴	일반, UAE 의무근무	• 일반 -토익 기준 사무 800점, 기술 750점, 지역모집 500점 이상 -사무: 학력 무관 -기술: 응시분야별 관련학과(고교과정 인성) 2년 이상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보유자 -지역 모집: 원자력, 수력, 양수 발전소 소재지 지역 주민 인(거주지 방백정유지지역 포함) • UAE 의무근무 -UAE 5년 이상 의무 근무 가능자 -토익 800점 이상 및 토익스피킹 기준 레벨 6 이상자	• 토익 스피킹 레벨 5 이상자 • 고급 자격, 면허증 소지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방백정유지지역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연명도 포격도발 전상자, 당사 장애인 인턴 수료자 • 일정기간 인턴교육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95% 이상 전환)	채용 홈페이지 (www.khnp.co.kr/RECU)	6/12

에서 느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채용공고 내용’(44.6%), ‘면접전형’(36.3%)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하다고 느낀 이유로는 ‘학벌 등 스펙으로 필터링해서’(51.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지원자격에 제한 항목이 많아서’(37.7%), ‘평가기준이 불명확해서’(37.2%), ‘신상 등 불필요

항목을 기재하게 해서’(33.7%),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26.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68.5%는 객관성을 침해하는 입사지원서 항목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학벌 관련 사항’(54.2%, 복수응답), ‘가족의 직업·직위’(51.4%), ‘연령’(42.9%), ‘재산, 부동산 등 경제사항’(29.8%), ‘새내기인 등 인맥

(29.4%) 등을 선택했다. 구직자들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채용 심사기준 및 과정 공개’(23.8%)가 1순위였다. 이어 ‘열린 채용 도입 및 확대’(20.3%), ‘학벌, 사진 등 블라인드 평가 도입’(16.5%), ‘체계적이고 다양한 채용 프로세스 도입’(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기자 tearand76@

주목! 서울 일자리 교육훈련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가 6월을 맞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취업준비 교육을 마련했다. 취업난에 고생하고 있는 청년, 이직과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장년 등 1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취업희망 청년 핵심전략 교육

18-35세 취업희망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구직능력 향상 핵심전략을 강의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강사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평가팀 상담사가 청년 신규 일자자를 위한 취업 프로세스 및 구직전략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실전 면접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을지로로본 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인원은 25명이며 선착순 마감 후 대기자 등록 방식이다.

오는 18일까지 인터넷(<http://job.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 및 방문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2-731-9527)로 하면 된다.

이·전직 중장년 취업준비교육

30-50세 취업희망 남성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전략을 알려준다.

동덕여대 대학청소년고용센터 선임 컨설턴트 안정민 강사가 이력서 작성법, 면접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전략 등을 설명한다.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을지로로본 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인원은 25명이며 총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는 9일까지 인터넷·전화·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731-9524)로 가능하다.

장년층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직업정보 및 구직 스킬이 부족한 51-65세 취업희망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이 마련돼 있다.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 이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이미지 메이킹·면접 실습 등이 주 강의 내용이다.

이날 교육에는 서울관악지방관아종합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소속 정희숙 강사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교육팀 직업상담사 이남경 강사가 나선다.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을지로로본 5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11일까지 인터넷·전화·방문 접수하면 된다.

www.izumikorea.co.kr

男子

당당한 파워 섬세한 감각 세계적 명성

자존심을 세우다!

전기면도기의 새로운 중심, 이즈미 FR-300

방수기능

무빙헤드

팝업 트리머

충전표시

- 전기면도기 스탠더드(FR-300) : ₩3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 전기면도기 프리미엄(FR-500) : ₩4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IZUMI

IZUMI BEAUTY PRODUCTS

1,000세트 한정판매!

55년 일본 장인정신이 만든 이즈미 전기면도기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전기면도기 스탠더드 FR-300 ₩99,000

제품특징 • 초정밀 예칭 가공 3중 면도날(mode in Japan) 사용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고주파음으로 자진동 실현 • 천연모 손님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림감 •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자동 충전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도기를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왕팩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5g • 구성품: 본체/파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 N-MH(전지포장포함) 2개

전기면도기 프리미엄 FR-500 ₩129,000

제품특징 • 전원 스위치의 오작동 방지 Lock버튼 부착 • 독립 플로팅 3중날 시스템 (센터 트리머 포함)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고주파음으로 자진동 실현 • 천연모 손님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림감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5단계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도기를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왕팩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6g • 구성품: 본체/파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 N-MH(전지포장포함) 2개

다기능 코팅 면도기 NB-12 (전기면도기 함께 구매시) ₩17,000

제품특징 • 생필품 필수 기능으로 잘 세척 가능 • 접기 편한 울경량 가방 • 콤팩트 사이즈로 출장 등 외출시 최적 • 면도날 덮개로 면도날 보호 • 청소하기 편리한 솔 장착 • 약 6500rpm의 강력한 회전력 및 부드러운 작동 • 정교한 커빙을 구현하는 일체 cutter • 피부를 상처하지 않게 하는 2중 안전설계의 방수구조

제품사양 • 간접지 사용식 • 15V AA 사이즈 • 130.5×28×31.8mm • 중량 52g • 작동시간 약 1개월(1회 1회 3분 사용)

24시간 무료 주문전화 080-769-9000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 A/S센터 : 031-791-3983

(주)오리플 | 대표: 최병철 | 서울 중구 정충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0

왕실부터 극지까지... 기술을 담아 열정을 지키다

원터치 진공단열 휴대용 텀블러 JNL

170g에 불과한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인 제품이다. 특히 양손으로 돌려 여는 일반 텀블러에 비해 엄지손가락 하나로 열 수 있는 원터치 오픈 구조를 채택해 간편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음용구도 원터치로 쉽게 분리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으며 패킹도 쉽게 분리되도록 설계했다. 독자적인 열이동 차단 기술을 적용해 6시간 이후에도 온도를 유지하는 탁월한 보온·보냉력을 제공한다.

탁상용 스테인리스 포트 THS

보온·보냉 전용 포트로, 책상 또는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 포트가 넘어져도 물이 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입구 크기가 7cm로 손을 집어넣어 구석구석 세척하기 좋고, 원터치 레버 마개가 모두 분리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름철 아이스 드링크나 차가운 물을 10시간 동안 차가운 상태로 유지해준다.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여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실전을 돕는 제품으로도 유용하다.

진공단열컵 JDA

'맥주컵'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보온병 구조로 오랫동안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열을 넣어도 결로현상이 없으며, 뜨거운 음료를 넣어도 표면이 뜨겁지 않다. 보냉 효과도 뛰어나 장시간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거품이 있는 음료인 맥주나 콜라·사이다는 물론 아이스크림이나 팔빙수도 오랫동안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빨대컵 푸고

'국민 빨대컵'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보틀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며, 진공단열 원리로 보냉 기능이 있어 대장균 증식을 억제한다. 아이 성장에 따른 단계별 맞춤 시스템을 적용했고, 각 단계 별 마개가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보틀을 하나만 구매 후 마개를 추가로 구입하면 전 단계를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써모스코리아는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파스텔톤 색상과 귀여운 캐릭터를 담은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뉴 푸고를 선보이고 있다.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19 써모스 GENUINE THERMOS BRAND



써모스 연혁

1892	1904	1908	1911	1978	1988	1989
영국의 화학자 듀어에 의해 보온병의 원형 고안	독일에서 유리제 보온병을 제품화해 써모스 브랜드로 출시	일본에 보온병 수출, 놀라운 발명품으로 소개	전 세계 노동자 15만 명 이상에게 써모스 런치 키트 판매	세계 최초로 고진공 스테인리스 보온병 개발 및 판매	세계 최초 초경량 티타늄제 보온병 출시	세계 최대보온병 브랜드로 발전
2013	2011	2010	2005	2004	2001	1998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뉴 푸고 출시	써모스코리아 주식회사 설립	보온·보냉이 가능한 진공단열 휴대용 텀블러 시장 확대	보온병 기술을 가전에 적용한 진공단열 커피 메이커 출시	브랜드 100주년 맞이	써모스 주식회사 발족	휴대하기 편리한 진공단열 스포츠 보틀 출시

써모스(Thermos)는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보온병 브랜드다. 보온병의 역사는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4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유리 보온병을 제조, 이를 세계 최초로 상품화한 브랜드가 바로 써모스다. 이후 써모스는 극한 체험을 하는 수많은 극지 탐험가들에게 애용됐다. 동력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와 의사이며 탐험가인 프레데릭 쿡 박사가 써모스 보온병을 사용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또 제26대 미국 대통령 테어더 루스벨트, 제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등이 사용하며 미국 백악관의 보온병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고 품질과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에만 수여한다는 영국 왕실의 엠블렘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재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판매되며 명실상부 보온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유명 모험가·등반가들의 필수품으로 = 1892년 영국의 화학자인 제임스 듀어는 액체로 된 화학약품을 오랜 시간 온도의 변화없이 보관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최초의 보온병인 진공 플라스크였다.

듀어는 한 플라스크를 다른 플라스크 안에 넣은 다음, 두 용기 사이의 공기를 얇게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진공상태에선 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안쪽 플라스크에 담긴 액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듀어가 처음 만든 이 보온병은 지금도 런던의 왕립 과학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가정용 보온병을 상품화한 사람은 듀어와 함께 일했던 유리공 레인홀트 부르크거였다. 부르크거는 듀어의 진공 플라스크가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를 보관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용 보온병 개발에 뛰어들었다.

1903년 부르크거는 '진공 공간을 지닌 이중 벽으로 구성된 유리 용기'로 독일에서 특허를 따냈으며, 1904년에는 그리스어로 '따뜻한'이란 뜻을 가진 '써모스'로 상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부르크거의 써모스는 1906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극지탐험가인 프레데릭 쿡 박사, 남극을

1904년 영 화학자 듀어, 세계 최초 보온병 '진공 플라스크' 발명 라이트 형제·美 대통령 사용하며 유명세... '영 왕실 엠블렘' 명예 초고진공·티타늄 사용 등 신기술 선도... 120개국 대표 브랜드로

탐험한 새클턴, 최초의 북극점 도달자 피어리, 동력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비행선을 연구한 슈페린 등 수많은 모험가들이 써모스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1950년대 프랑스 원정대의 안나푸르나 1봉 초등을 비롯해 1953년 영국 원정대의 에베레스트 초등, 1954년 이탈리아 원정대의 K2 초등 때도 써모스 보온병은 소중한 필수품이었다.

써모스는 고객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제품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써모스는 유리 보온병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보온병, 티타늄 보온병, 보냉전용 스포츠보틀 등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보온병 시장을 선도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 써모스코리아가 설립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00만분의 1기압, 초고진공단열 텀블러 = 써모스는 설계 단계서부터 철저한 안전심사와 모니터 테스트를 거치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생산공정에서는 보온 성능시험 등 철저한 품질규격 시험과 안전 조사를 거듭해 써모스만의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써모스는 열을 전달하는 3가지 방법을 최대한 억제해 성능이 뛰어난 보온병을 만든다. 보온병의 보온, 보냉 원리는 열을 전달하는 3가지 방법인 대류, 복사, 전도를 억제해 내용물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우선 써모스는 대류의 경우 외부벽과 내부벽 사이를 100만분의 1기압이라는 초고진공상태로 만들어 대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복사 에 의한 열은 내부벽 표면에 열에너지 자체를 반사시키는 동을 도금하거나 알루미늄 막을 이용

해 차단한다. 전도 대책으로는 이중으로 돼 있는 진공단열 구조의 내벽과 외벽이 만나는 용접부위를 최대한 얇고 좁게 만들어 열 전달을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보온병 업체들이 스테인리스 보온병 제작 시 외부벽과 내부벽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대형 설비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유리 보온병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 제조 원리는 펌프로 유리보온병 내 공기를 흡입해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펌프 성능 등에 따라 병마다 진공 상태의 질이 달라져 품질관리가 어렵다.

그러나 써모스는 대형 진공 챔버 안에 용기를 넣어 초고진공상태를 만든다. 이 진공 챔버는 써모스의 독자적인 방법이다.

써모스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출시된 제품은 고객의 사용 후기, 설문조사 및 분석, 판매점의 의견을 바탕으로 품질 개선과 시장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발상의 신제품으로 출시되기도 한다. 즉,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써모스가 추구하는 제조 철학이다.

이선애 기자 isa@

ELLE
TIME & JEWELRY



에버랜드 장외주식 “240만원에 삽니다”

상장 발표에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 매수글 등장
대부분 이권희 회장 일가와 그룹 계열사가 소유
유통가능 주식 적어... 차액 노린 투자자들 몰려

잠잠하던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수요가 꿈틀대고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발표하면서 차액을 노린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 피스톡에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산다는 글이 올라왔다. 오전 10시 기준 총 7건으로 매수 희망가는 모두 240만원이다. 주식을 판다는 글 역시 240만원에 7건 올라와 있다. 또 다른 장외주식 사이트 제이스톡에도 에버랜드 주식을 산다는 글이 7건 게재됐다. 거래가격은 대부분 200만원. 지난 5월 9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올라온

글이다. 반면 매도 게시판에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팔고자 하는 글이 한 건도 없다. 이들 사이트의 매수 희망가는 KCC가 2011년 삼성카드로부터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매입할 당시 주당 가격인 182만원보다 20만~6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유통 가능한 주식 수량이 미미해 장외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는 주식으로 통한다. 주식 대부분을 이권희 삼성전자 회장가 세 자녀, 그리고 그룹 계열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에버랜드의 유

통 주식 수는 자사주(38만676주)를 제외한 보통주 21만9324주다. 이마저도 그룹 일가와 계열사들이 대부분 갖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10%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고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차녀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이 각각 8.37%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5.00%), 삼성전기(4.00%), 삼성SDI(4.00%), 제일모직(4.00%) 등도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4% 이상 보유 중이다.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5.40%에 달한다. KCC(17.00%)와 자사주(15.23%)를 뺀 나머지 주식은 3.74%(9만3612주)에 불과하다. 이 주식은 소액주주 17명이 나눠 갖고 있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에버랜드 주식 가운데 개인이 보유한 것은 삼성카드의 보유 지분 매각 때 개인투자자들에게 간 계 전부”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조폐공사 인증 골드바 KDB대우증권 판매

KDB대우증권은 2일 금융회사 최초로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인증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드바 판매는 최초로 위조방지 잠상마크가 첨가된 위·변조에 대한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제조원가와 배송비용 등을 감안한 총수수료가 은행과 거래 시 5%인 데 반해, KDB대우증권에서 거래 시 4.3%로 0.7%P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진제공 KDB대우증권

증권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⑰ 크라운그룹

오너가 기업 ‘두라푸드’ 내부거래 93%

크라운그룹은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 식품의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 지분을 해태제과식품과 나눠 갖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의 지분 85.2%를 크라운제과가 보유하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운영달 회장이 지분의 27.38%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달 회장의 특수관계자 지분은 49.01%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크라운그룹은 주력사 크라운제과 외 두라푸드, 해태제과식품, 해상농림, 씨에이치테크, 아트벨라, 코디서 비스코리아, 빨라조,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두라푸드는 운영달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다. 윤석빈 대표는 두라푸드의 지분 59.60%를 보유하고 있다. 두라푸드는 윤석빈 대표의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오너기업의 회사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라푸드의 매출은 별도 기준 2009년 39억원, 2010년에는 82억원, 2011년 96억원, 2012년 96억원, 2013년 100억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50% 매출이 성장한 것이다. 두라푸드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데에는 내부거래의 힘이 컸다. 두라푸드는 2009년 크라운제과에 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09년 내부거래 비율은 47.86%였고 2010년에는 크라운제과에 23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내부거래 비중 28.04%를 기록했다. 이후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매출이 특수거래 매출로 잡히면서 내부거래 비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1년 98.20%(95억원), 2012년 98.63%(95억원), 2013년 93.42%(93억원)가 내부거래 매출이었다. 두라푸드는 관계기업으로 웨미리산업을 두고 있다. 웨미리산업은 웨미리식품 주식회사의 과자류 및 방과후 제조·판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지난해 12월 31일 설립됐다. 지난해 말 기준 두라푸드는 웨미리산업의 지분 43.7%를 보유하고 있다. 웨미리산업의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비중은 2010년 92.02%, 2011년 92.03%, 2012년 91.03%로 줄곧 90% 이상을 차지하다 지난해 87.23%로 다소 줄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결산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3,959,135	8,290,258	9,629,102	9,643,015	9,997,476
내부거래	1,894,752	2,324,554	9,455,340	9,511,080	9,339,354
비율(%)	47.86	28.04	98.20	98.63	93.42

결산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44,082,167	47,198,423	56,277,423	60,584,666	60,656,740
내부거래	43,430,560	51,791,438	55,149,270	52,910,743	
비율(%)		92.02	92.03	91.03	87.23

KRX금시장 참여계좌

1021개

개설 10주만에...개인거래 활발

KRX금시장의 참여계좌가 1000개를 돌파했다.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 개설 10주 만에 증권사를 통한 위탁자의 참여계좌가 1021개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골드뱅크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차익에 대한 비교세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KRX금시장을 이용하는 일반투자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개인 등의 활발한 거래 참여로 경쟁시장 형성을 통한 적정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 향후 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RX금시장 참여 증권사는 총 9개로 하나대우증권, 동양증권 2개사가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1위는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 96억6400만원
구자엽 LS전선 회장 59억 2억
울 1분기 5억이상 받은 임원
코스피·코스닥 104명...코넥스 0

올해 1분기 상장사 등기임원 가운데 5억원 이상 보수(급여 및 상여, 기타, 퇴직소득 포함, 이하 동일)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4명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기간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의 보수총액이 9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2월 결산법인 1675곳(미발표 기업 제외)을 분석한 결과, 1분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모두 104명으로 이들이 속한 기업은 총 80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기업은 총 64곳으로, 이 중 86명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전체 인원 중 82.7%를 차지했다. 코스닥 기업은 총 16곳으로 18명(17.3%)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넥스 기업 중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단 1명도 없었다. 그룹별로는 SK그룹 소속 등기임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그룹 7명, 포스코그룹 6명, 현대차그룹 5명, 삼성그룹 5명, 코오롱그룹 4명, CJ그룹 4명 등이었다. 특히 지속적인 업황 침체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화학업종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급여 및 상여, 기타, 퇴직소득 포함, 이하 동일)를 받은 등기임원이 10명

으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금속 및 광물(8명), 건축소재(1명), 종이목재(1명) 분야 등기임원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1분기 보수 5억원 이상을 기록한 104명 가운데 50억원 이상을 받은 임원은 2명이었고, 10억원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명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보수총액 최상위 등기임원으로는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96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LS전선의 구자엽 회장이 59억3800만원을 받아 50억원 이상의 1분기 보수를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경정호 현대백화점그룹 총괄 부회장(49억9200만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39억9600만원), 김우진 LIG손해보험 부회장(37억5200만원), 하영봉 전 LG상사 회장(30억5200만원) 등이 1분기 보수총액 상위를 차지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용기, 당신에게는 있는가?”

말 못 할 콤플렉스와 우울로 인생이 괴로운 사람을 위한 자존감의 심리학

나답게 살아갈 용기

Je Depasse Mes complexes et mes deprimes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거절 못하는 나, 쫓대 없는 당신, 남의 인정에 연연하는 우리...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회복 매뉴얼

- 늘 할 말을 못해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위한 자존감 따라잡기
-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예민한 현대인을 위한 불안감 떨쳐내기
- 열등감 조장하는 사회에서 생길 대로 살기 위한 자기사랑의 기술
-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우울해서 스트레스 받는 '기본부전증' 해소법

문의: 02-332-0931

안전과 초과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수들의 필살기, 권리분석

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권리분석 완전정복 2

경매 고수 신정현의 초베스트셀러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2탄! 레알생초보의 권리분석 실전편

내 집 마련부터 수익형 부동산까지, 경매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적인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권리분석이 까다롭거나 복잡하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들고,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 수익이 늘어 나게 된다.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는 고수들의 치밀한 권리분석 노하우를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독자들도 이 배운 지식을 당장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실전문제를 통해 복습하고, 고수들의 Q&A를 통해 경매의 숨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신정현 지음 | 한빛비즈 | 416쪽 | 값 18,500원

문의: 02-2128-8775



‘中心’ 잡았나... 비트코인株 ‘벌떡’

중국 규제완화 기대·애플 가상통화 허용 제이씨현시스템 등 국내 관련주 급등세

중국에 비트코인 자동입출금기(ATM)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라 관련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5일 비트코인 가격지수를 집계하는 코인덱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로보코인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사토시 플라자(Satoshi Plaza)에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ATM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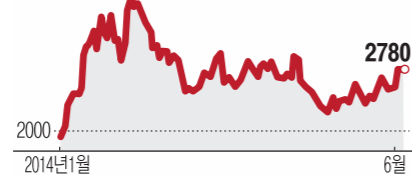
이번 중국 내 비트코인 ATM 설치의 지난 4월 비트코인 거래소인 중국의 비트코인(BTC) 차이나가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비트코인 ATM을 설치한 이후 처음이다.

로보코인은 이번 중국 내 ATM 설치로 아시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로보코인은 1월 대만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대만 당국의 강한 규제 무산됐으나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제이씨현시스템 주가 추이

단위: 원



확보한 셈이다.

이번 로보코인의 ATM 설치로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

은행은 지난해부터 금융기관에 비트코인 유통 및 사용 중지를 지시하며 관련 시장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두 달새 중국 내 비트코인 ATM가 2개나 설치되며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시장에 비트코인 확산 추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제이씨현시스템은 비트코인 채굴 메인보드를 만드는 대만 업체 ‘에스락’을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 시장의 확대에 따라 잠재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지난 2일 애플이 응용프로그램 내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하도록 정책을 바꿨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전 세계 사용자를 확보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가상통화가 사용되면 비트코인 시장 또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공시 돋보기

한국선재 사장, 287만주 주담대출

(이제훈)

보유지분의 45%... 주가하락에 워런트 165만주 소멸

한국선재 이제훈 사장이 287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이 보유한 640만주(26.10%)의 45%에 달하는 물량으로 기존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담보대출까지 더하면 총 440여만주가 담보로 잡혀있다.

이 사장은 3일 공시를 통해 287만 8435주를 담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176만2000주)과 대우증권(46만5272주) 등을 통해 돈을 빌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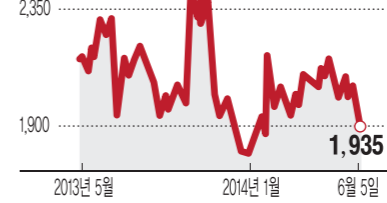
작년 6월 한국선재는 증여세 납세담보해지 및 대출금 상환으로 담보로 잡혀있는 이 사장의 주식이 170만여주라고 공시했다.

그 후 1년 만에 담보 제공된 주식이 100만주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금제 등 기존 특수관계인이 받은 주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891만여주(36.36%) 중 담보로 잡혀있는 지분은 439만여주에 이른다.

한편 한국선재 주가는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850

한국선재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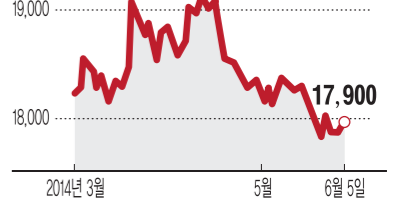
원까지 내려앉은 한국선재 주가는 올 초 2400원대까지 반짝 상승했으나 이후 별다른 상승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2000원-210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지난 5월28일에는 이 사장이 보유한 워런트 165만700주가 행사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워런트 행사가는 1910원으로 워런트 행사에 따른 평가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8월에도 이 사장은 132만여주에 달하는 워런트를 행사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며 7월에는 148만주에 대한 워런트를 행사한 바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선광 주가 추이

단위: 원



한-중 FTA 연내 체결 기대감 선광·대현 수혜주로 ‘부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쓰촨성 메이산에서 한중 FTA 11차 협상을 벌였다. 산업부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었지만 이번 11차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2차 협상은 7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연내 체결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수혜주로는 먼저 선광이 꼽힌다. 선광은 광산 내에서 수출·입화물의 선택에 양호·적하 또는 보관·장차·운송 등 유통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이 늘어나면 덩달아 선광의 중국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는 선광이 투자한 인천신항 건설이 마무리된다. 이번 사업은 선광이 송도신도시 인천신항에 2600억원을 투자해 자동화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중국 진출을 앞둔 ‘듀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류기업에 대한도 주목되는 종목이다. 지난 2012년 2월 출시된 듀얼은 국내 의류업체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해에 155억원, 2년차에 4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자산매각 지연 교육지책... 한진중 2450억 유증

회사채 3000억 상환 예정

한진중공업이 올해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조선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자산매각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선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한진중공업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448억60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예정발행가는 7420원,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8월29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신주는 3300주로 유통주식수(6925만8760주)의 47.65%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초에도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도 245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증을 결정할 것이다.

한진중공업이 주당순이익(EPS) 회식 우려감에도 대규모 유증을 결정한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산 매각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4월 재무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돼 약정에 따른 다양한 자구책을 진행중이다.

한진중공업은 오는 8월과 11월 각각 1500억원의 공모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달 5월 만기가 도래한 공모사채 1500억원의 자산 매각 지연에 따라 내부 보유 현금으로 상환했다. 차환을 위해 회사채 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난해 말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한단계 떨어져 여의치 않다.

회사측 관계자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현금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도조선소 운영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

에스티큐브, 바이오메디칼홀딩스와 합병 철회

에스티큐브는 지난 3일 (주)바이오메디칼홀딩스와 합병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식했다.

철회 이유는 주주 반대다. 에스티큐브 관계자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폐합병 법인인 바이오메디칼홀딩스 측 주주의 반대 등 양측 모두 반대가 있었으며 내부

적으로 협의 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진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 신고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면서 소기의 목적하는 바에 달성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메디칼홀딩스는 정현진 에스티큐브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정 사장 및 특수관계인이 17.16%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효성, 김효원, 박윤준 등 개인 주주가 각각 4.05% 보유하고 있다.

에스티큐브는 4월 1일 항암제 신약 개발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메디칼홀딩스를 흡수합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에스티큐브와 바이오메디칼홀딩스가 1대 0.4187462다.

김희진 기자 heejin@

투자환기종목 큐브스 자금조달 안간힘

배정 대상자 변경...납입일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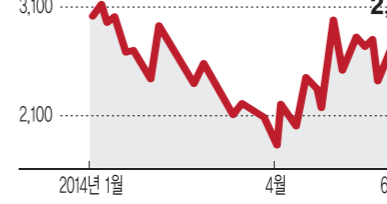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타상장사 큐브스가 자금 조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말 결정한 3차 배정 유상증자가 2차례나 연기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배정 대상자를 바꿔 자금확충에 올인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큐브스는 지난 4월25일 결정한 60억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 배정자를 기존 이정아·이성근·김상근씨에서 이정아·정동하·강민씨로 변경했다. 이 유증에 대한 최초 자금 납입일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일정 변경에 따라 2차례나 연기되면서 납입일은 오는 20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다음달 7일로 변경됐다.

회사 측은 유증 결정 이후 투자주의환

큐브스 주가 추이

단위: 원



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최초 투자자 중 일부가 고민을 하다가 유증 포기 의사를 밝혀 불가피하게 배정자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금 납입 일정이 2차례나 연기되고 배정 대상자가 바뀌었지만 유증이 불발된 것은 아니다”며 “오는 20일 자금 납입일에 무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1시간 속성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올 에너지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유엔재) 번역
신국판 199쪽 1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 youngsh@etoday.co.kr

제네시스의 퍼포먼스는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 제네시스, 2014 미국 IIHS 충돌테스트 세단부문 세계 최초 전 항목 만점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 전 항목 만점으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TOP SAFETY PICK+]을 받은 제네시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IHS(1959년 설립)는 미국 내 80여개 보험사가 가입한 비영리단체로, 현지에 출시된 차량의 안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테스트 차량은 미국시장 기준이며, 국내와 미국 차량은 구조/재질 등 안전성능 관련 사항은 동일합니다.
(국가별 법규대응 차이가 있어 국내차량에는 부형차 보호 대응 사양이 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서비스 080-6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2WD,18'') : 복합 9.4km/ℓ (도시 8.1km/ℓ, 고속도로 11.7km/ℓ) | CO₂ 배출량 : 189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90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2WD,17'') : 복합 9.0km/ℓ (도시 7.7km/ℓ, 고속도로 11.5km/ℓ) | CO₂ 배출량 : 198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88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AWD,18'') : 복합 8.8km/ℓ (도시 7.6km/ℓ, 고속도로 10.9km/ℓ) | CO₂ 배출량 : 203g/km | 배기량 : 1,97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3 GDI A/T (AWD,17'') : 복합 8.5km/ℓ (도시 7.2km/ℓ, 고속도로 11.0km/ℓ) | CO₂ 배출량 : 210g/km | 배기량 : 3,342cc | 공차중량 : 1,95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8 GDI A/T (2WD) : 복합 9.0km/ℓ (도시 7.7km/ℓ, 고속도로 11.3km/ℓ) | CO₂ 배출량 : 199g/km | 배기량 : 3,778cc | 공차중량 : 1,930kg | 자중(4등급) -V6 램다(라) 3.8 GDI A/T (AWD) : 복합 8.5km/ℓ (도시 7.4km/ℓ, 고속도로 10.5km/ℓ) | CO₂ 배출량 : 210g/km | 배기량 : 3,778cc | 공차중량 : 2,000kg | 자중(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무형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리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개를 같은 가격으로 비싼 거래를 살리고 있습니다